

가치를
잇는
건축자산
활용



가치를 잇는 건축자산 활용

02 주택

들어가기

건축공간연구원 건축문화자산센터에서는 건축자산의 역사적·건축적·사회문화적·예술적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활용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건축자산의 폭넓은 활용가능성을 모색함과 동시에 실무적 해결책을 공유하고 널리 알리고자 「가치를 잇는 건축자산 활용」 시리즈를 기획하였다.

건축자산을 발굴하여 보전·활용하기 위한 법·제도가 마련된 지 5년이 경과되었고, 관련 정책·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건축자산'은 낯설고 어려운 대상이다. 이에 건축자산의 건축적 특성과 가치를 보전하면서 현재 원활하게 사용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쉽고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진과 도면 등 풍부한 시각자료를 활용하여 단행본을 구성하였다.

2018년 「가치를 잇는 건축자산 활용」의 첫 번째 시리즈로 공간활용 가능성 및 용도변경 용이성 등의 이점이 있는 공장·창고의 보전·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올해 두 번째로 건축물의

용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간 건축문화자산센터에서 발굴한 건축자산 보전·활용 사례 507건 중 기존용도가 주택인 사례가 203건으로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이 중 주택의 건축연도, 양식, 규모 등의 건축적 특성과 소유자, 설계자, 운영자 등 해당 건축자산 관계자의 협조 여부, 도면 및 사진 등 관련 자료 구축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4건을 선정하였다. 사례별로 건축자산 발굴과정부터 기획·설계·시공, 운영의 전 과정에서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노력과 기능을 변경하기 위해 고민했던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가치를 잇는 건축자산 활용」의 주요독자는 건축자산 소유자 및 활용주체, 설계 및 시공분야 실무자, 건축자산에 관심 있는 국민들이다. 이 책은 건축자산의 가치를 보전하면서도 새로운 기능으로 활용하기 위한 애로사항 등을 극복하여 재탄생된 사례들을 담고 있어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건축자산 관련 정책과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목차

1 서울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 01 한양도성과 옛 서울시장 공관의 가치를 발견하다 012
- 02 서울의 랜드스케이프를 담다 015
- 03 창의적 복원을 위해 고심하다 018
- 04 다양한 시간적 층위를 포용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만들다 050

3 광주 예술공간 집

- 01 어릴 적 살던 한옥, 갤러리가 되다 100
- 02 집의 기억을 남기다 102
- 03 작품 전시를 위해 공간 활용을 고민하다 108
- 04 오래된 작품을 꺼내어 전시하다 130

2 서울 구의살롱

- 01 시대를 대변하는 집합체적 양식으로서의 주택에 주목하다 056
- 02 1980년대 다세대주택에 새로운 공간을 제안하다 062
- 03 공간구성을 위한 보전과 활용을 고민하다 065
- 04 기존 도시조직 안에서의 점진적인 변화를 꿈꾸다 094

4 제주 순아커피

- 01 순아할망을 기억하다 140
- 02 오래된 주택의 가치를 알아보다 142
- 03 가족의 역사를 담다 150
- 04 공간의 가치 보전을 위해 고민하다 175

서울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한양도성 성벽 위에 올라앉은 옛 서울시장 공관은 1941년에 지어져 광복 이후에는 대법원장 공관으로 사용되었다. 1981년부터는 서울시장 공관으로 사용되던 곳으로, 한양도성 600년 역사 위에 지어진 80년의 근대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건축자산이다. 또한 한양도성 성벽과 주변으로 펼쳐지는 내사산과 외사산, 성 밖 마을이었던 성북동의 전경을 품어 '서울의 랜드스케이프'를 보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다. 옛 서울시장 공관의 역사성과 한양도성의 장소성을 고려하여 2016년 서울시민을 위한 공간인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로 재탄생하였다.

- 01 한양도성과 옛 서울시장 공관의 가치를 발견하다
- 02 서울의 랜드스케이프를 담다
- 03 창의적 복원을 위해 고심하다
- 04 다양한 시간적 층위를 포용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만들다

서울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Hyangdoseong
Exhibition & Visitor Center in
Hyehwa-dong, Seoul

위치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35길 63
지역·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1,628.1㎡
건축면적	355.63㎡
연면적	517.25㎡
층수	전시동 — 지상2층, 지하1층 사무동 — 지상1층, 안내동 — 지상1층
구조	전시동 — 목구조(일부 철골 보강) 사무동 — 목구조, 안내동 — 조적조, 철근 콘크리트조
용도	서울시장 공관 → 전시장 겸 휴게 음식점



이 한양도성과 옛 서울시장 공관의 가치를 발견하다

한양도성은 1392년에 건국하여 1910년까지 지속된 조선왕조의 수도였던 한성부를 둘러싸고 있는 조선시대의 성곽이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는 1394년 한양을 왕조의 새 수도로 정하고 1395년 궁궐과 종묘, 사직단을 조성한 후, 수도의 운영과 방위를 목적으로 1396년 봄과 가을에 한양도성을 축조하여 같은 해에 1차 완성하였다. 한양도성은 백악산, 낙산, 남산^{북면산}, 인왕산의 정상과 능선을 따라 축조되었으며, 평지성과 산성의 구조가 결합한 포곡식^{包谷式} 성곽으로 각 시기별 축조 형태와 수리 기술의 증거가 잘 남아 있다. 이처럼 한양도성은 주변 지형을 이용해 축조한 석축 성곽으로 궁궐과 종묘, 사직 등의 역사적인 건축물에 에워싸고 있는 도성의 경계이면서 동시에 내사산의 굴곡과 도성의 안팎이 함께 조망되는 역사 도시 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는 유산이다². 따라서 한양도성은 단순히 도성의 경계를 규정하거나 방어를 위한 도시 구조물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³.

1 계곡을 둘러싸고 산 능선을 따라 조성된 성곽을 의미한다. (출처: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홈페이지(검색 일자: 2020. 7. 15.)(http://heritage.go.kr/heri/html/HtmlPage.do?pg=/unesco/Heritage/Heritage_99_12.jsp&pageNo=5_2_2_0)

2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홈페이지(검색 일자: 2020. 7. 15.)(http://heritage.go.kr/heri/html/HtmlPage.do?pg=/unesco/Heritage/Heritage_99_12.jsp&pageNo=5_2_2_0)

3 김영수(2015),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 과정과 현안, 서울정책아카이브, 세계와도시 제6호, p. 25.

한양도성은 조선시대 태조 이후 고종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성벽 공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관리되어왔지만 일제강점기에 성벽이 훼손되고 철거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근대화와 도시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벽의 보존이 위협받았다. 1961년 창의문 일대 보수공사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복원 사업을 통해 옛 한양도성의 모습은 서서히 회복되었다. 2012년 11월 한양도성이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면서, 2013년 서울시는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용지침」에 따라 한양도성의 가치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⁴.

한양도성 복원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문화재인 600년 된 한양도성을 담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옛 서울시장 공관의 존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전차가 부설되고 도시가 팽창하면서 한양도성 일부가 해체되었고, 해체된 부분에 집들이 들어서면서 자연스레 남아 있는 한양도성 성벽이 담장 역할을 하였는데, 옛 서울시장 공관도 한양도성을 담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발굴조사 결과, 공관이 성벽의 하부구조를 침범하지 않았고 2013년에 마련된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 종합계획」이 한양도성의 재현이나 복원이 아닌 원형 존중과 보존에 초점을 두고 있어, 공관을 존치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한양도성과 옛 서울시장 공관의 가치가 상생할 수 있도록 옛 서울시장 공관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공관의 역사성과 한양도성의 장소성을 고려하여 한양도성 탐방객과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한 ‘한양도성 전시·안내센터’로 조성하고자 하였다. 본관 건축물을 전시공간으로 재구성하는 것 외에 성벽에 면해 있는 부속건축물 일부를 헐어내고, 입구에 관리자 공간과 장애인의 접근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가 함께 진행되었다⁵.

4 김영수(2015),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 과정과 현안, 서울정책아카이브, 세계와도시 제6호, p. 32.

5 아람지기의 한양도성 해화동 전시·안내센터 아카이브 자료(<http://arumjigi.org/data/bbs/005/arumjigi.pdf>)

옛 서울시장 공관은 1941년 일본인 다나카 사부로에 의해 당시의 서구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던 ‘문화주택’⁶⁾이라 불리는 형식의 목조주택으로 지어졌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논밭이 주를 이루었던 해화동에 전차가 부설되고 도로가 신설되면서 1930년대를 전후하여 문화주택이 많이 지어졌다. 옛 서울시장 공관은 문화주택의 일반적인 특징인 응접실과 입식부엌 그리고 뽀족지붕이 반영되었다. 하지만 옛 서울시장 공관 2층에는 도쿄노마가 있어 일본 주택의 특징도 보여주고 있다. 옛 서울시장 공관은 광복 전후로는 독립 운동가이자 국방부장관을 지낸 손원일 등의 개인 주택이었으며 1959년부터 1979년까지는 대법원장 공관이였다. 대법원장 공관으로 사용될 당시, 4·19혁명 재판 판결문의 초고가 이곳에서 작성되었고, 1971년 검찰과 법원의 갈등으로 불거진 제1차 사법 파동이 타결되는 등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적인 순간과 함께하였다⁷⁾. 그 후 1981년부터는 서울시장 공관으로 사용되었고 2013년까지 13명의 서울시장이 이곳에서 살았다. 건립된 이후 80여 년의 시간동안 건축물은 개인주택, 대법원장 공관, 서울시장 공관으로 사용되었고, 20여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거쳐가면서 건축물의 역사를 기록하였다.

건축물 연혁

- 1941~1959 개인주택(문화주택: 당시 서양식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던 주택)
- 1941~1945 다나카 사부로(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 사장)
- 1945~1955 하준석(중추원 참의)
- 1955~1957 손원일(독립운동가, 초대 해군참모총장, 제5대 국방부장관)
- 1957~1959 한석진(기업가)
- 1959~1979 대법원장 공관(조진만, 민복기 대법원장)
- 1981~2013 서울시장 공관(18대 박영수 시장 ~ 35대 박원순 시장)

6 문화주택은 서양식 생활양식과 주택 형식이 전통 주택 건축의 비기능성, 비경제성, 비위생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서양 주택의 공간 구조와 외관을 따라 지어졌던 주택이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B%AC%B8%ED%99%94%EC%A3%BC%ED%83%9D&ridx=0&tot=1>) (검색 일자: 2020. 7. 15.)

7 아름다기의 한양도성 해화동 전시·안내센터 아카이브 자료(<http://arumjigi.org/data/bbs/005/arumjigi.pdf>)

02 서울의 랜드스케이프를 담다

원오원 아키텍츠의 최욱 대표는 서울시의 의뢰를 받아 ‘한양도성 해화동 전시·안내센터’를 기획한 아름다기의 제안을 받고 설계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참여 동기는 옛 서울시장 공관의 위치가 외사산과 내사산이 다 보여 ‘서울의 랜드스케이프’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다.

최욱 대표에 따르면, 옛 서울시장 공관은 근대식 일본 본토 주택의 전형을 갖추고 있으나 구조 및 벽체 구성 등의 기술적인 부분은 재래식 구법과 한국인의 솜씨 등이 혼재되어 일본에서도 보기 어려운 혼합형 건축물이라고 한다. 대들보, 아궁이가 있는 곳에서 보이는 타일의 흔적 뿐만 아니라, 작은 부재를 연결해 시공된 지붕 등에서 한국의 기술이 혼합된 것을 알 수 있다.

건축물이 공관으로 오랜 기간 사용되면서 개축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최초의 모습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웠다. 전기, 설비를 비롯한 공간의 증축 및 개축이 있었고, 특히 공관으로서의 기능 충족을 위한 평면 변화와 의견을 위한 출입구 등의 변형은 주택의 원형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남아 있는 간살이⁸⁾를 볼 때 현관과 홀을 갖추고 이에 연결

8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출처: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한 입식의 방들이 중심부에 있고, 안쪽과 2층에 엔가와縁側와 도쿄노마床の間를 갖춘 좌식 다다미방이 연접한 근대 일본의 절충식 주택이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리모델링 전 마지막 시기의 사진 자료를 보면, 툇마루 공간과 비슷한 엔가와는 복도로 바뀌었고 도쿄노마는 막아서 벽장으로 사용하였으며, 부엌과 욕실, 침실 등이 모두 근대적 설비의 도입으로 바뀌어 있었다⁹.

최옥 대표는 기존 건축물의 구조는 살리되 불법 증축된 부분은 철거하여 유네스코의 세 가지 원칙에 준하도록 설계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는 원형에서 증·개축된 부분은 제거하여 원형 배치 회복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둥 및 천장 등 주요 부재의 원형은 보존하고 구조보강용 부재와 기타 새로운 재료는 원형의 구조, 구법 및 재료와 구별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대지와 건물의 관계는 유지하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해 사회적으로 유용한 목적을 위한 활용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옛 서울시장 공관의 원래 도면 자료가 없었고 여러 차례 보수를 거쳐 원형을 알기 어려웠기 때문에, 건축물 일부를 철거하고 구조 부재를 하나하나 기록하는 과정을 거쳤다.

최옥 대표는 옛 서울시장 공관이 1941년 일제강점기에 건축되었고 여러 차례 보수한 흔적이 있었기에 땅을 파보면 조선시대인 600년 전의 흔적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여 아쉽게도 600년 전 흔적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옛 서울시장 공관은 위치적으로 조선시대부터 근대사까지 600년의 역사를 살펴보기에 유리했고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의 하부구조가 남아 있어, 옛 서울시장 공관이 한양도성과의 매개체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설계를 진행하였다.

9 전봉희(2017), “유적을 대하는 태도”, SPACE 2017년 1월호.

INTERVIEW

옛 서울시장 공관은 조선시대부터 근대사까지 600여 년의 역사를 거꾸로 살펴볼 수 있고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의 하부구조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외사산과 내사산으로 둘러싸여 ‘서울의 랜드스케이프’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2020. 6. 17.
최옥 대표 인터뷰 중



03 창의적 복원을 위해 고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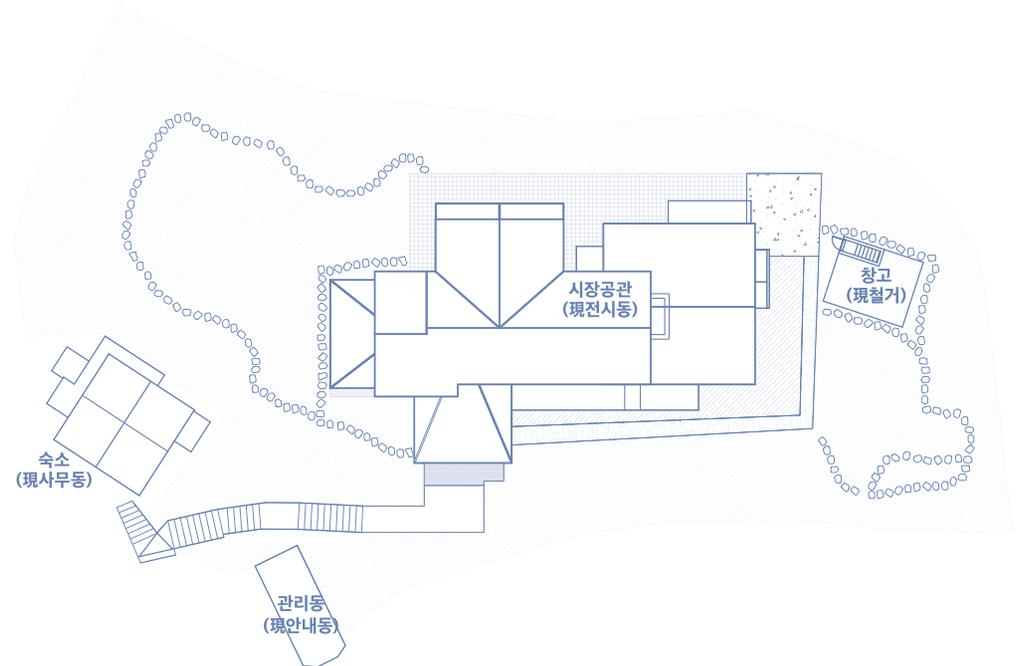
최옥 대표는 앞서 언급한 유네스코의 세 가지 원칙에 준하여 설계하되, 원래 주택이자 공관이었던 공간을 전시·안내센터로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 창의적 변형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주택과 공관으로 사용되었던 건축물의 기억을 최대한 남겨 두기 위해 기둥과 구조벽, 지붕틀은 원형을 보존하되, 벽면과 바닥면, 천장면은 새로운 용도에 맞도록 변경하였다. 주택으로 사용될 때보다 공관으로 사용될 당시 추가된 서비스 동선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하나하나 해체하면서 전시·안내센터에 필요한 공간들을 만들어나갔다. 무엇보다 업무공간인 공적영역과 주택인 사적영역이 혼합된 공간을 공적인 전시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공간의 스케일, 바닥의 질감, 창문 배치, 동선의 흐름 등을 조율하고자 노력



옛 서울시장 공관의 전경(左)과 리모델링 후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의 전경(右)의 모습

하였다. 물리적으로는 70여 년 동안 여러 거주자를 거치며 변형된 공간의 원형을 찾는 데 초점을 두었고, 여기에 한양도성과 혜화동, 근·현대사의 한가운데 있었던 이 집의 역사를 전시로 풀어내어 시민들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계획하였다.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는 전시동A동을 비롯하여 사무동B동과 안내동C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옛 서울시장 공관으로 사용되었던 본관A동, 숙소B동, 경비실C동 모두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으며, 장애인의 접근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는 작업도 함께 진행되었다.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배치도

건축물의 자리와 골격

최옥 대표는 건축물이 건축된 이후 일어난 많은 변화들은 생략하고, 건축물이 서 있는 자리와 건축물의 골격을 이루는 구조 두 가지에 집중하였다.¹⁰ 건축물이 서 있는 자리는 앞서 언급한 ‘서울의 랜드스케이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리라는 점, 그리고 조선시대의 한양도성과 1941년에 완공된 개인 주택이라는 두 가지 층위의 유적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라는 점이다.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에서 바라본 한양도성 성곽의 모습



건축물이 서 있는 자리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출시킨 흙바닥

10 전봉희(2017), “유적을 대하는 태도”, SPACE 2017년 1월호.

기단의 확장

최옥 대표는 땅에 접한 점점인 ‘기단(基壇)’이 우리나라 고유의 경관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하였다. 우리나라의 건축이 기단을 두고 높이를 달리하며 건축물들이 모여 있어 단순한 공간이더라도 깊이가 다르고 풍경이 공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으로 옛 서울시장 공관 출입구의 기단을 확장하여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출입구의 기단과 좌측면의 카페테리아의 데크를 연결하였다.



©ONE O ONE factory



©윤준환



©ONE O ONE factory



©윤준환



©ONE O ONE fac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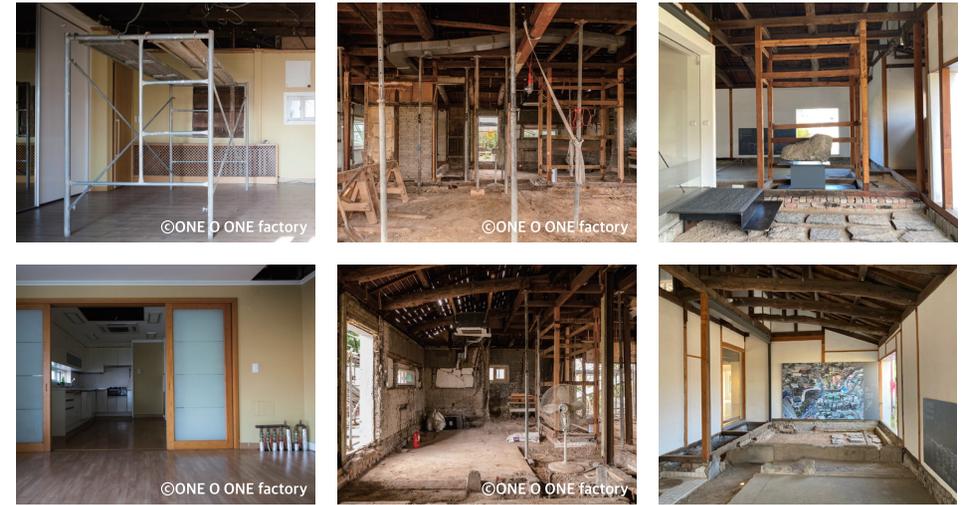


©윤준환

옛 서울시장 공관의 출입구(左)와 리모델링 후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의 출입구(右)의 모습

실내에 실외공간 조성

과거 부엌과 응접실이 있던 1층의 동쪽 끝부분은 바닥을 들어내고 흙바닥을 노출시켜서 실내에 실외공간을 조성하였다. 내부공간이면서 외부공간이고 외부공간이면서 내부공간인 것이다. 아궁이 등 옛 부엌터와 같은 주거공간의 흔적 또한 그대로 남겨 두었다. 최옥 대표는 이 건축물에서 한양도성의 역사와 근현대의 역사가 맞는 ‘바닥’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바닥 아래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관람자에게 보여주고자 바닥을 노출하도록 계획하였다. 맞은편에는 낮은 창을 내어 관람자에게 건너편의 성벽을 볼 수 있게 하였고, 전시실 내부와 흙바닥을 노출시킨 공간, 그리고 외부의 성벽으로 연결되는 관람동선을 계획하였다.



한양도성 해화동 전시·안내센터 2전시실의 리모델링 전(左), 시공 중(中), 리모델링 후(右) 모습



옛 서울시장 공간의 모습(左)과 리모델링 후 한양도성 해화동 전시·안내센터의 2전시실 내부 모습(右)



1층 동쪽 끝부분의 바닥을 들어내고 흙바닥을 노출시켜 조성한 2전시실의 모습



과거 주거공간이었음을 보여주는 아궁이 등의 흔적



1전시실에서 2전시실과 외부 정원으로 연결되는 문(左)과 외부 정원과 연결된 2전시실의 모습(右)

구조보강

옛 서울시장 공관의 골격을 이루는 구조는 얇은 일본식 구재로 되어 있었다. 이를 보존하고자 일부는 구재를 프레임으로 활용하여 벽체를 세웠고 일부는 원형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 구조보강을 하여 노출하였다. 2층 4전시실 기둥 중 일부는 철골로 구조보강하였는데, 상부 구조를 살리기 위해 철골을 세운 후 상부는 기존의 형태와 재료를 유지하였다.



건축물이 지어질 당시의 원형을 보존하는 구조와 새롭게 구성되는 부분을 개념적으로 표현한 모형



2층에서 1층 천장 구조를 볼 수 있도록 유리창을 낸 모습



철골로 보강한 모습

원형 회복을 위한 노력

원형에서 증·개축된 부분은 제거하여 원형 회복을 하는 것을 첫 번째 원칙으로 삼았다. 건축물의 골격에서 임의로 달아내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철거하여 본체의 원형을 살리고자 하였다. 옛 서울시장 공관 서측면 응접실과 데크로 사용되었던 공간에 덧붙여진 캐노피를 철거하여 카페테리아로 계획하였고, 옛 서울시장 공관의 보조 부엌과 창고 등 증축된 공간을 철거하였다. 사무동과 안내동의 샌드위치 패널로 건축된 창고와 전실은 증축된 부분으로 추정되어 철거하였다.



옛 서울시장 공관의 모습(左)과 리모델링 후 한양도성 해화동 전사·안내센터의 카페 모습(右)



전시 공간으로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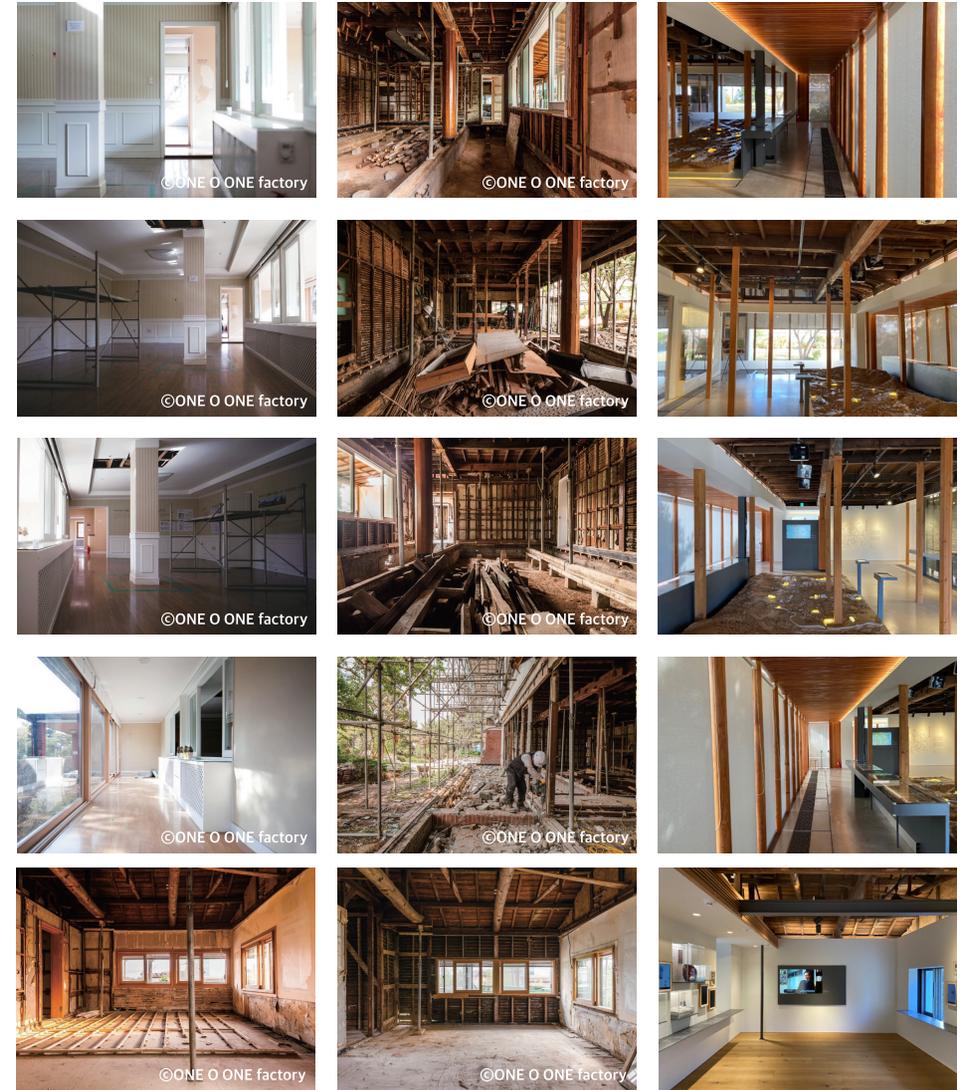
전시공간으로서의 용도를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창틀만 남기고 덧벽을 대거나, 반자를 털어내고 천장을 노출시켰다. 주택과 공관으로 지어진 사적공간의 스케일을 공적공간의 전시공간으로 맞춰 조정하였다.

최욱 대표는 건축가에게 창은 ‘풍경을 보기 위한 디테일’이고, 벽은 ‘빛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며, 디테일은 ‘형태의 완성도가 아닌 감성의 질감’이라고 설명하였다. 한양도성 해화동 전시·안내센터는 목조 건축물이 지닌 기존의 구조와 재료를 최대한 보전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개구부를 통해 주변의 자연지세를 끌어들이 수 있는 창을 계획함으로써 외부의 빛과 풍경을 끌어들이 공간을 조성하였다. 또한 전시공간 일부에는 창호를 모두 막지 않고 여백을 두어 바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창호를 모두 막지않고 일부를 개방하여 외부를 볼 수 있도록 계획

전시공간 천장에는 관람자가 천장의 목구조를 볼 수 있도록 반자를 털어 드러내고, 1층 2전시실의 천장 목구조를 2층 4전시실에서 볼 수 있도록 낮은 창을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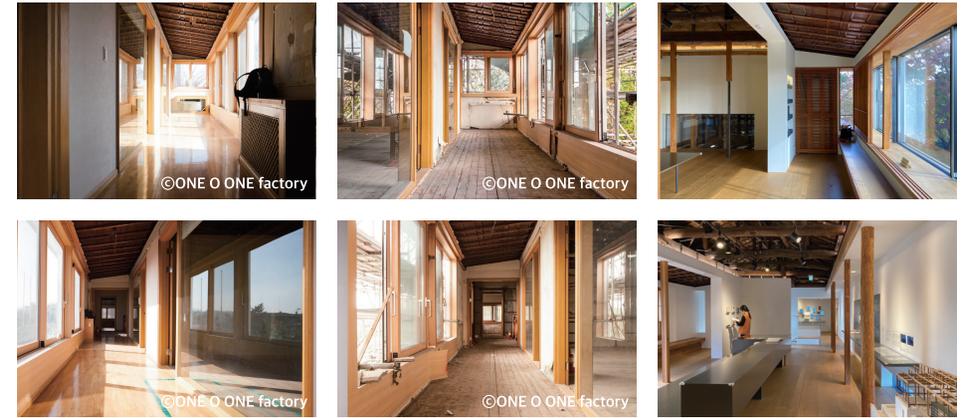


한양도성 해화동 전시·안내센터 3전시실의 리모델링 전(左), 시공 중(中), 리모델링 후(右) 모습

2층 영상실5전시실에 보존되어 있는 도코노마를 활용하여 상부에 빔프로젝터를 설치하고 벽면에 영상을 띄워 전시하고 있다. 그 외의 전시공간은 벽체를 그대로 보존하여 건축물 자체의 역사적 가치를 드러내하고자 하였다.



2전시실의 천장 목구조를 볼 수 있도록 낮은 창을 낸 4전시실



한양도성 해화동 전시·안내센터 4전시실의 리모델링 전(左), 시공 중(中), 리모델링 후(右) 모습



벽체를 일부 보존하여 전시하고 있는 4전시실의 모습



도코노마를 활용하여 영상물을 전시하고 있는 영상실의 모습(左)과 낮은 창을 낸 모습(右)

두개의 층으로 나누어진 전시공간들을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1층 동쪽끝 응접실이었던 천장과 2층 계단실 홀 부분의 바닥을 철거하였다. 2층 보이드 공간에는 좁고 긴 창을 내어 관람객의 시선이 공간을 관통하며 확장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기존 건축물의 기둥 배치 및 형태 등을 관람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벽체를 조정하여 기둥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리모델링하면서 새롭게 계획된 벽체 및 바닥, 그리고 천장은 흰색 마감을 하였는데, 이는 창을 통해 내부로 들어오는 빛으로 인한 그림자를 잘 반영함과 동시에 단열기준을 충족시키면서 벽 두께를 얇게 하기 위해 최대한 마감두께를 얇게 하기 위해서이다.



관람객 시선 관통을 고려해 계획한 창



기둥을 노출시키기 위한 벽체계획



본관인 한양도성 해화동 전시안내센터를 전시장으로 재구성하는 것 외에 성벽에 면한 부속 건축물 일부를 헐어내고 입구의 관리자 공간과 장애인 접근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는 작업도 함께 진행되었다. 내부 전시공간에도 현행법상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였는데, 최옥 대표는 장애인 동선과 휠체어의 접근을 위해 전시공간의 복도 폭을 확보하는 데 있어 설계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한양도성 해화동 전시안내센터 입구의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의 모습(左 1,2,3)과 전시관 입구의 램프(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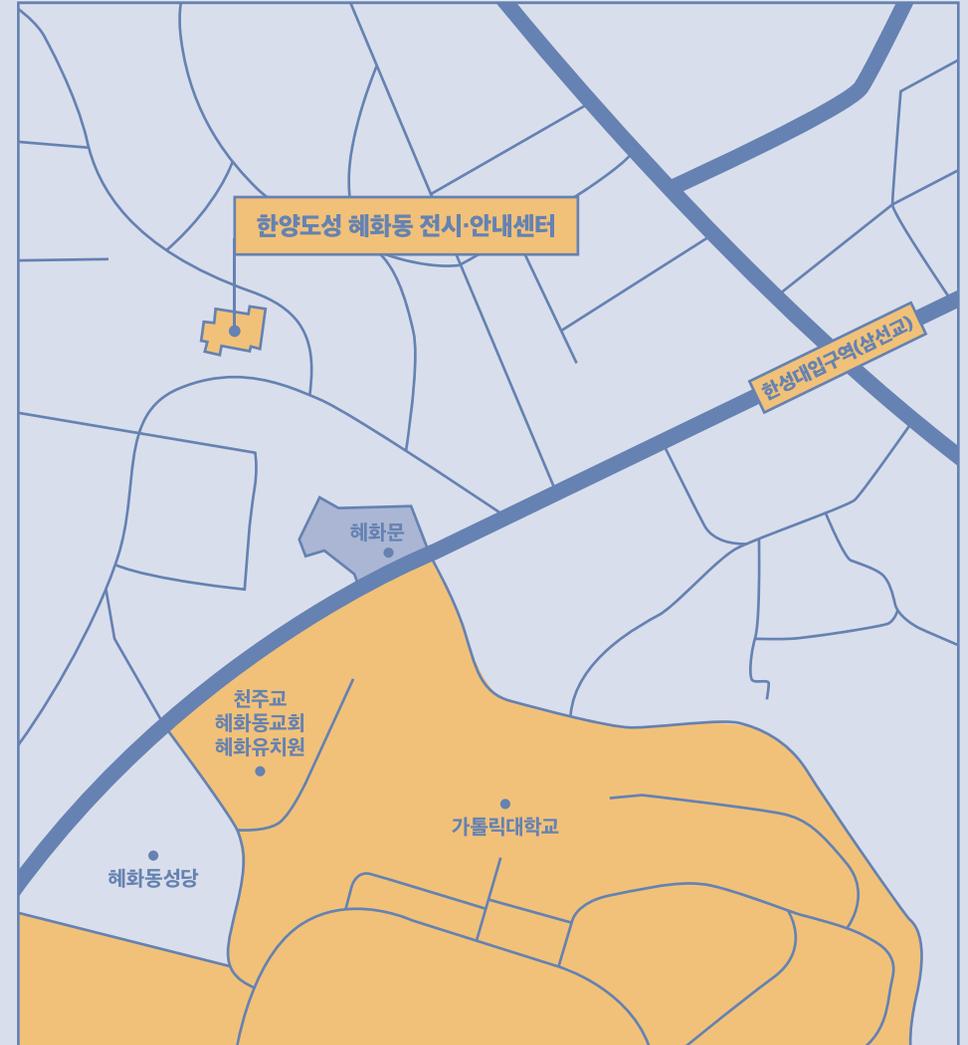


성곽에서 바라본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의 우측면(2전시실)

위치도

서울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35길 63 (구)서울시장공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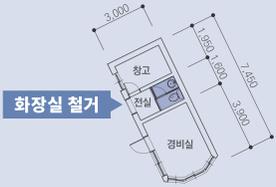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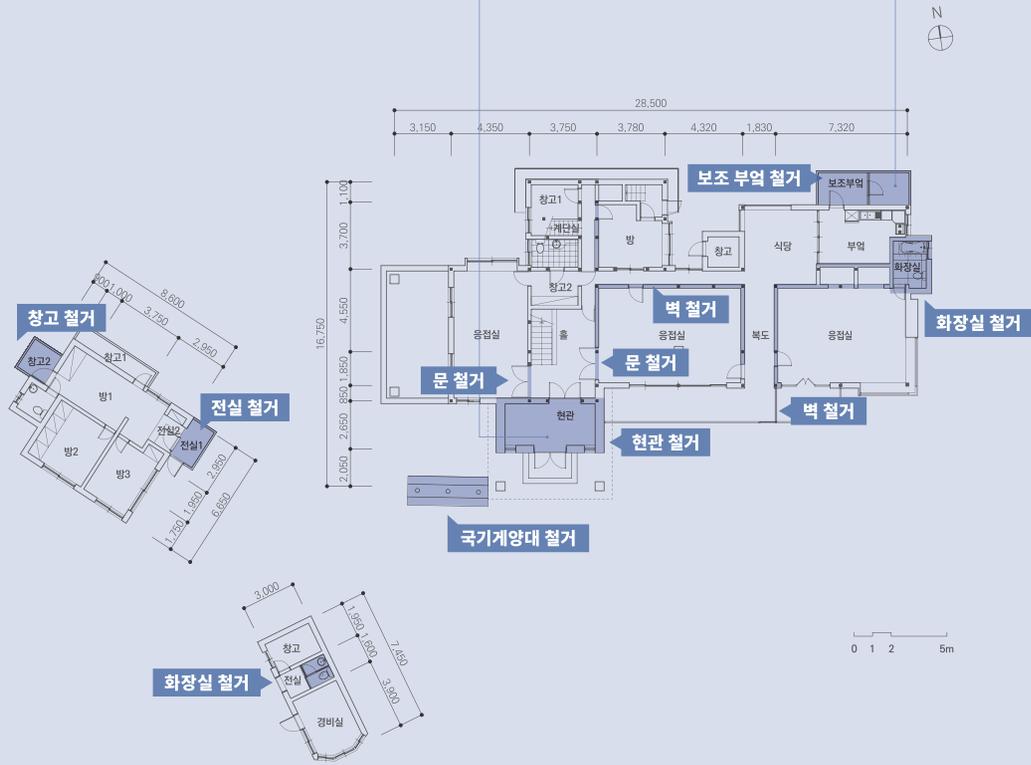
리모델링 전
1층 평면도



옛 서울시장 공관의 출입구



증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조 부엌



리모델링 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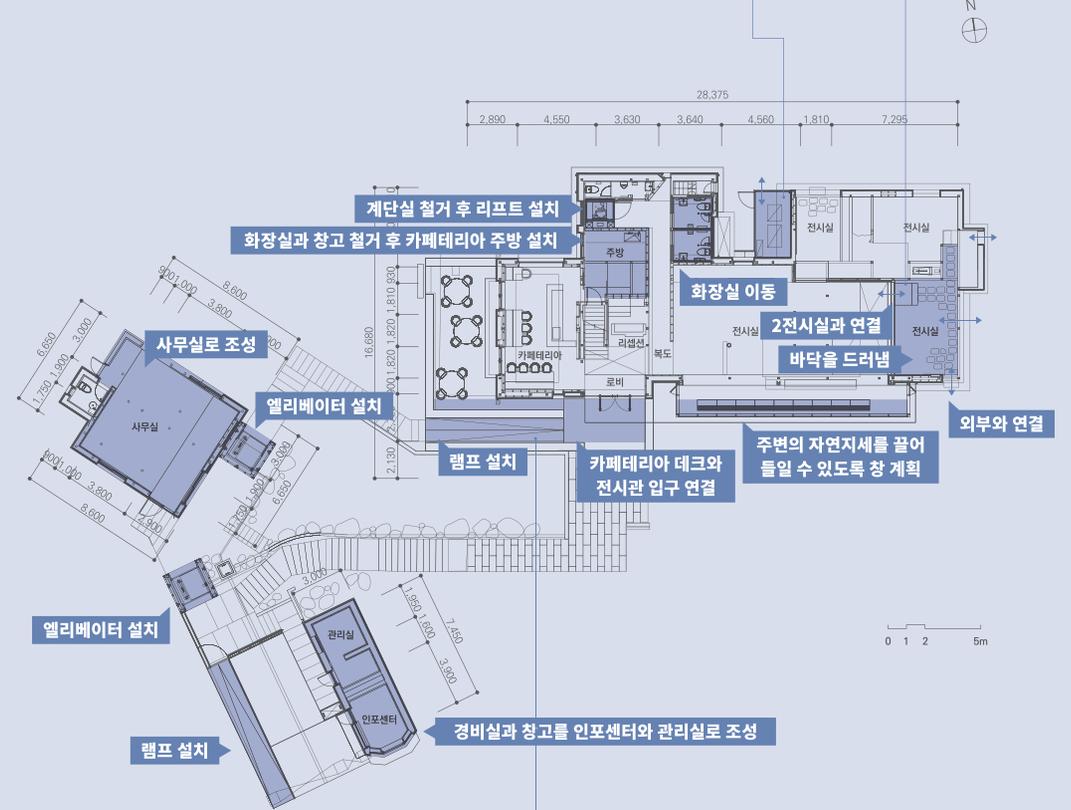
배면 전경



2전시실의 실내외 공간 연결



계단실 철거 후 리프트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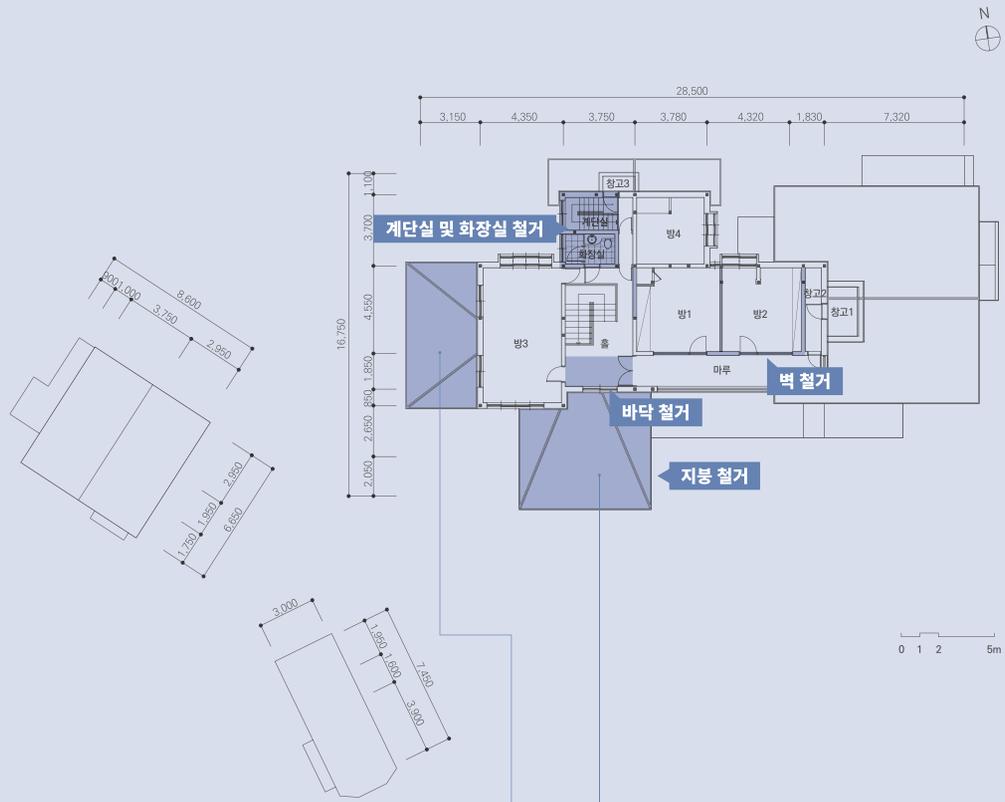
전시·안내센터 입구에 설치된 램프



전시·안내센터 입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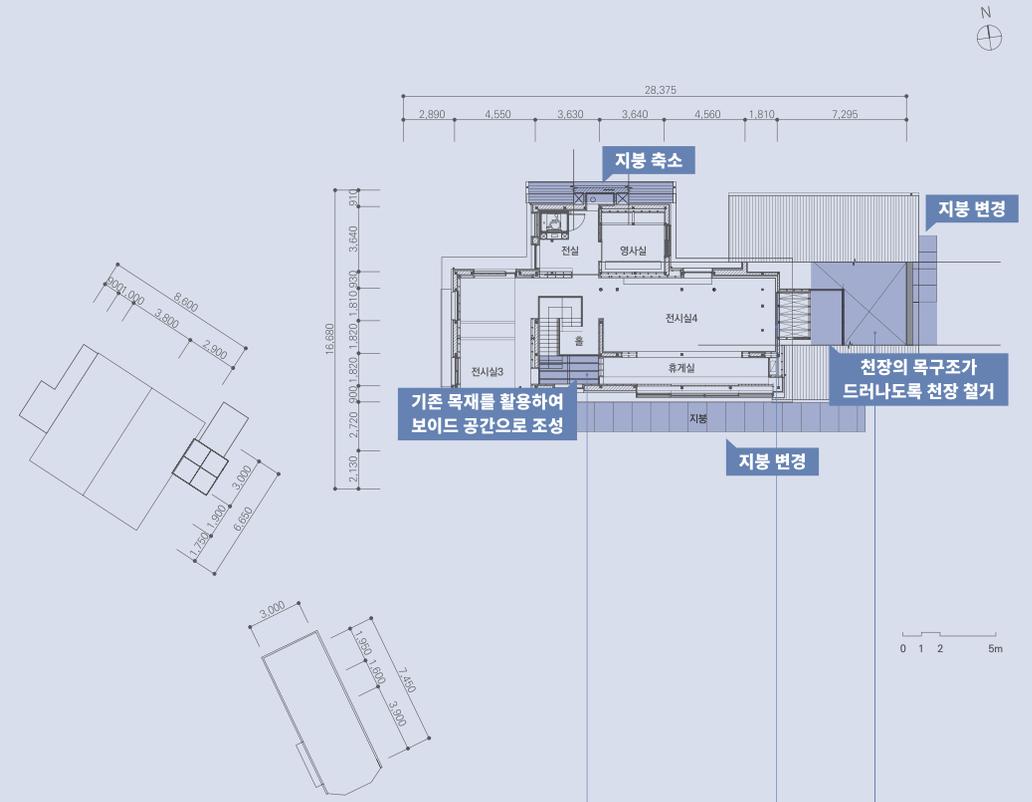
외부와 연결된 2전시실



옛 서울시장 공관 응접실 옆 테라스



옛 서울시장 공관 출입구의 좌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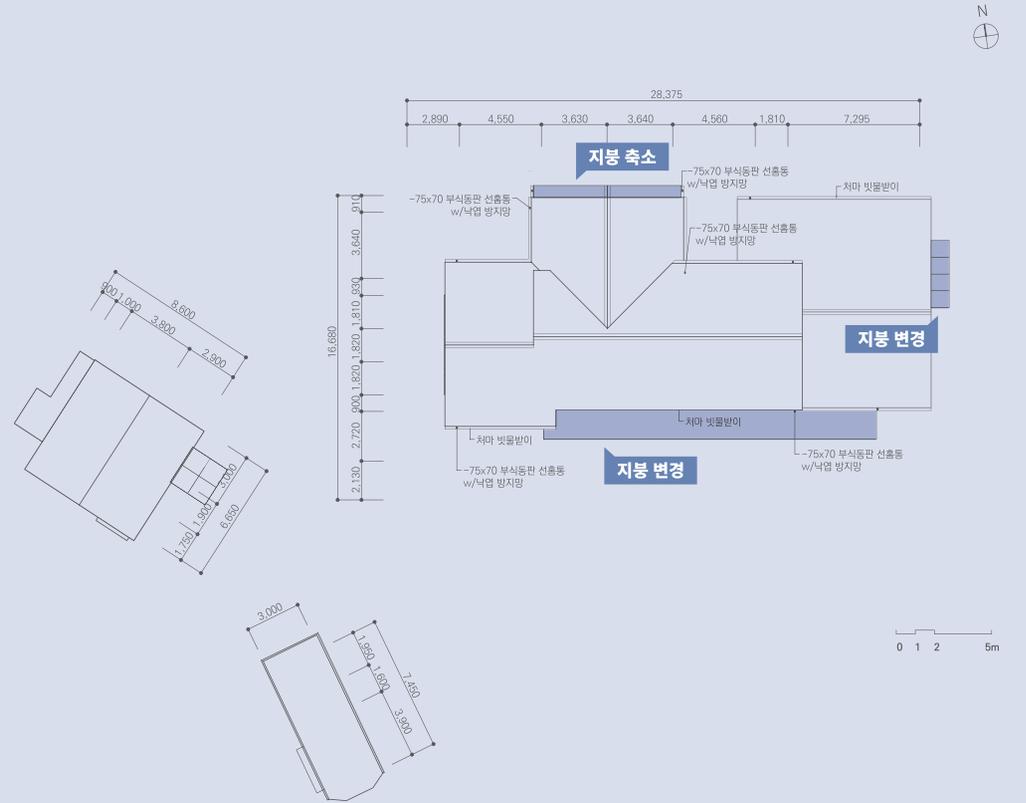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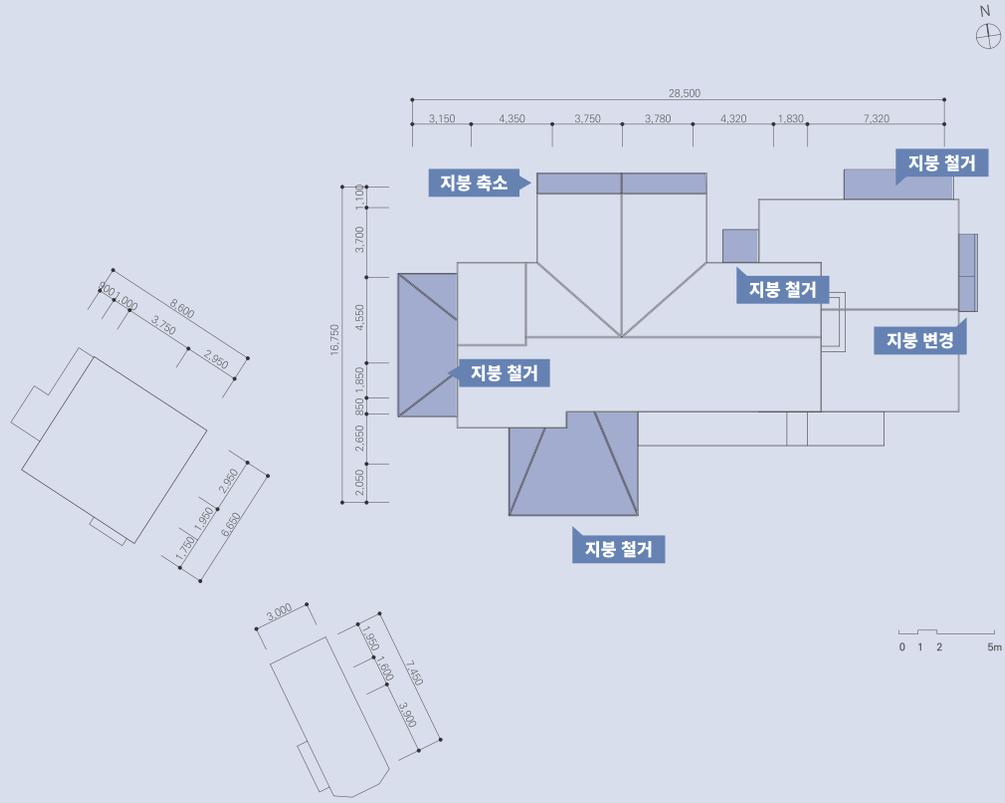
계단실 전경



천장의 목구조를 볼 수 있도록 낮은 창 설치



지붕구조 노출을 위해 천장 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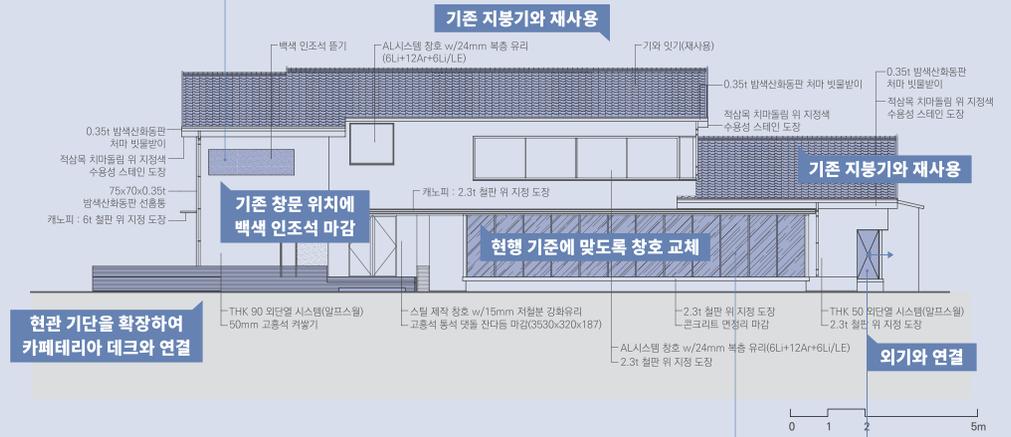
옛 서울시장 공관 출입구



옛 서울시장 공관의 응접실 앞 복도 창호



창을 인조석으로 막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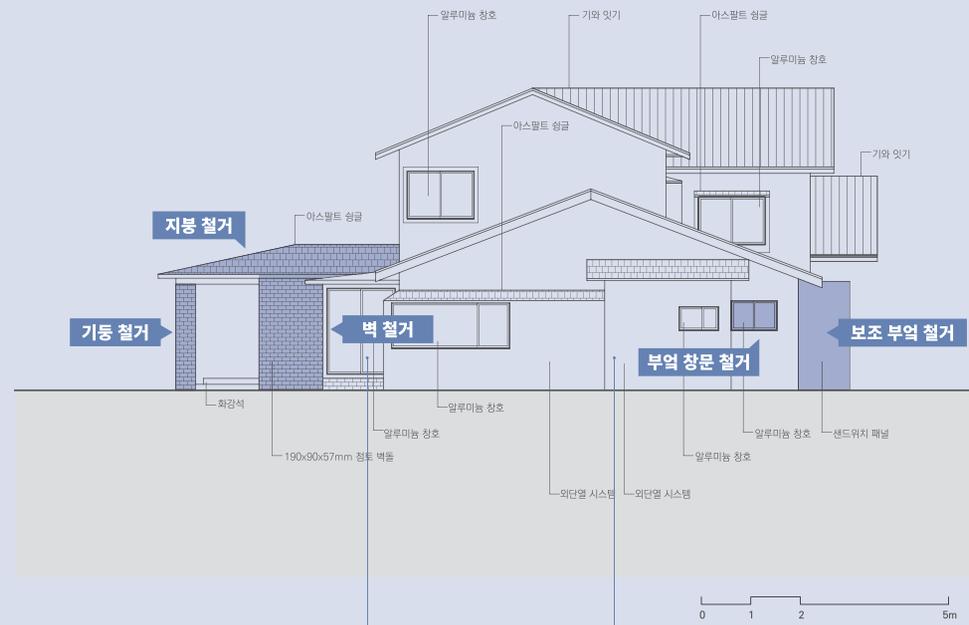
한양도성 혜화동 전사·안내센터의 정면



알루미늄 창호를 목재창호로 교체



외부와 연결된 2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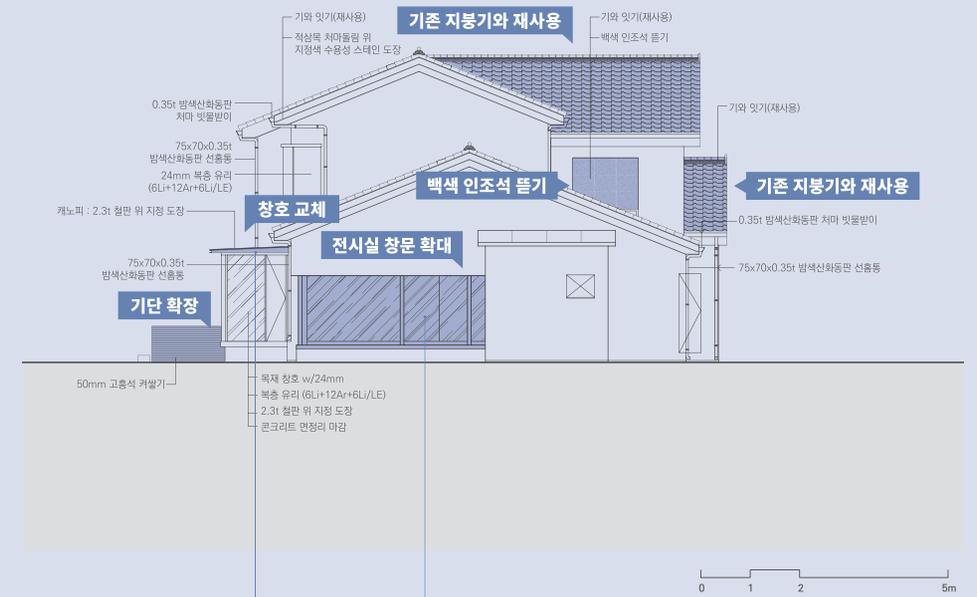
옛 서울시장 공관의 우측면



부엌 창문에 덧대어진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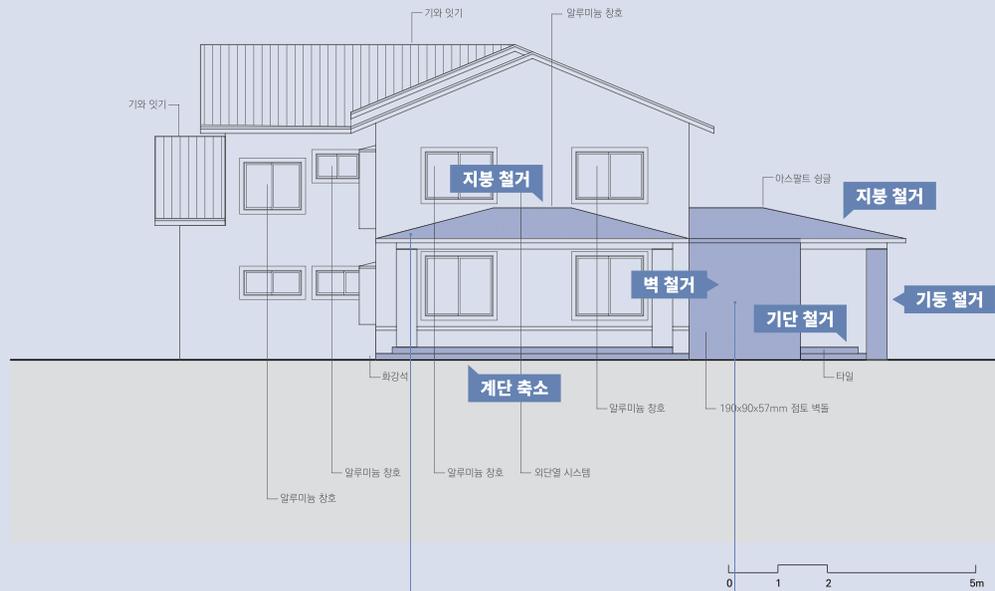
샌드위치 패널로 증축된 보조 부엌



교체된 창호



1전시실의 창문을 개방하여 실내의 실외 공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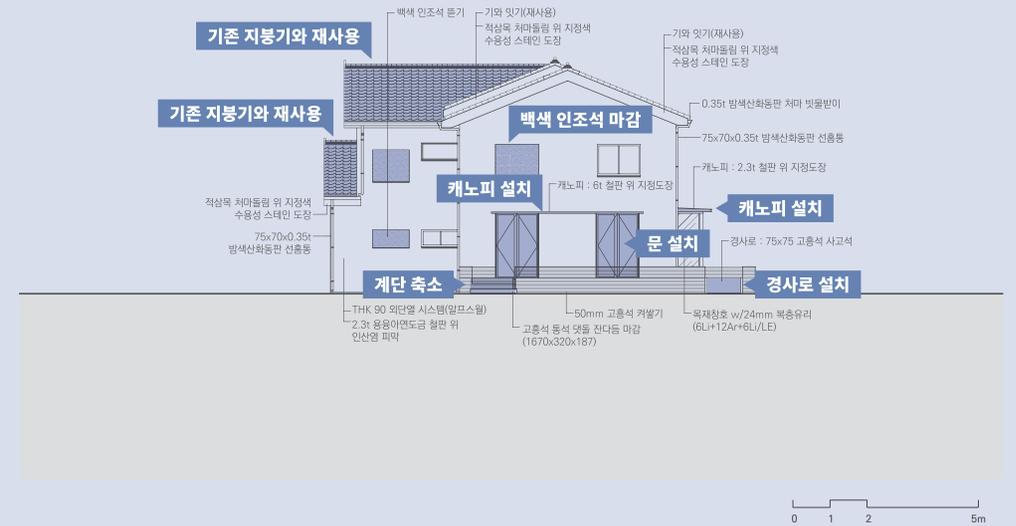
옛 서울시장 공관 응접실 앞 테라스



옛 서울시장 공관의 출입구

©ONE O ONE FAC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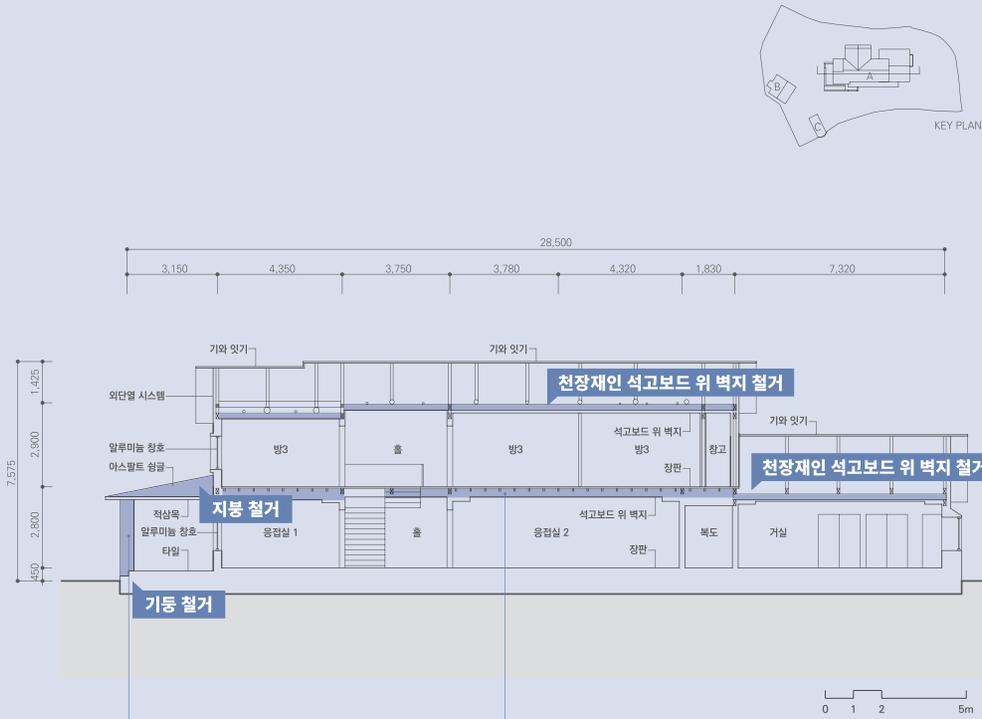
©ONE O ONE FACTORY



좌측면 전경

©윤준환

리모델링 전
A동 횡단면도



옛 서울시장 공관의 테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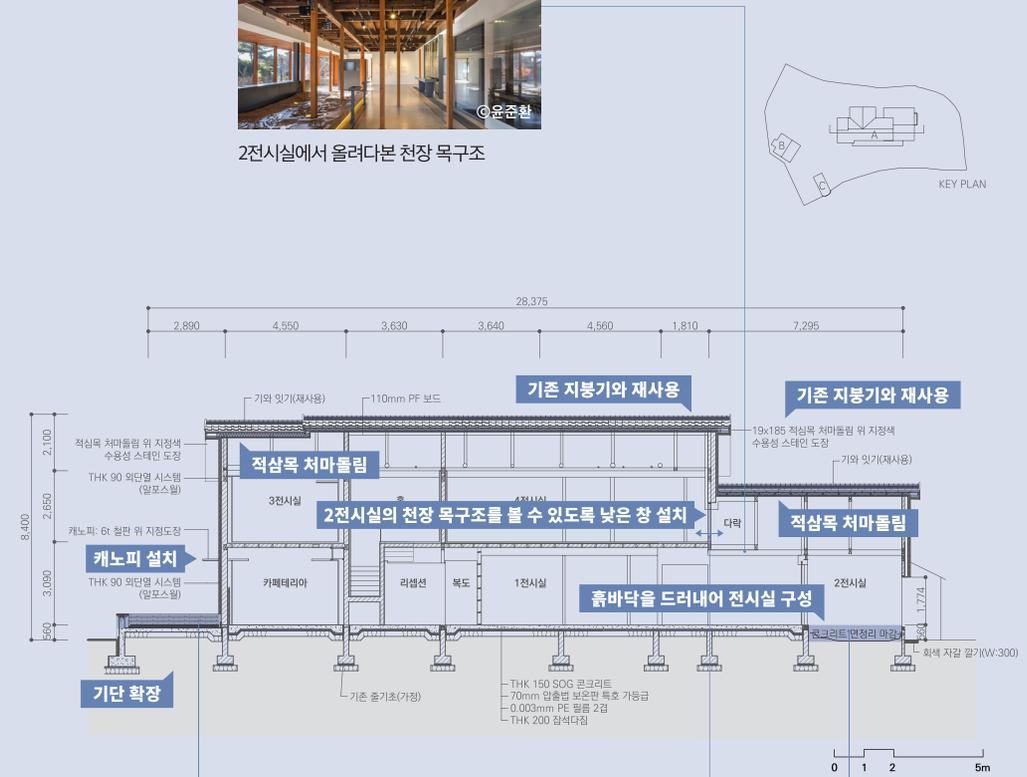


옛 서울시장 공관의 응접실 내부모습

리모델링 후
A동 횡단면도



2전시실에서 올라다본 천장 목구조



카페테리아 테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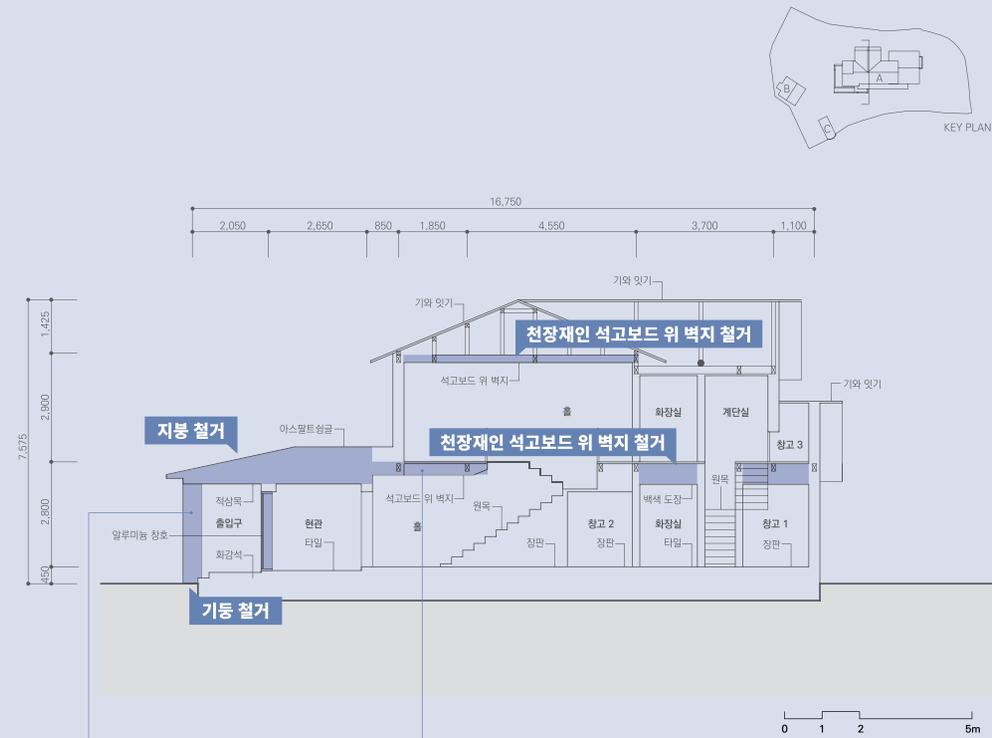


2전시실의 천장 목구조를 볼 수 있도록 낮은 창 설치



흙바닥을 드러낸 2전시실

리모델링 전
A동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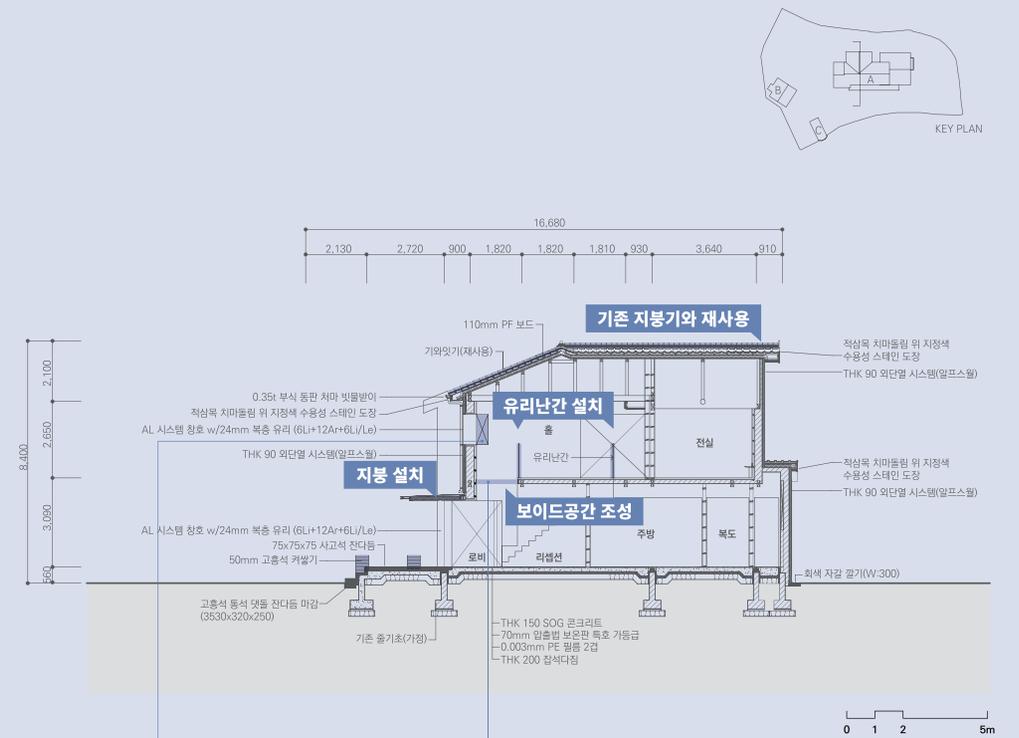


옛 서울시장 공관의 출입구



옛 서울시장 공관의 응접실에서 바라본 홀의 모습
석고보드 위 벽지로 마감된 천장

리모델링 후
A동 종단면도



2층 보이드공간의 긴 창



계단실의 유리난간 및 보이드 공간



계단홀 전경

04 다양한 시간적 층위를 포용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만들다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는 재단법인 아름지기가 사업을 기획하고 네이버가 후원하였으며, 서울시가 시공 비용을 부담하여 리모델링하였다. 서울시장 공관이 자리한 혜화동과 혜화문, 한양도성을 담장 삼아 지은 이 집의 역사와 인물들 이야기가 담긴 전시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전봉희 교수는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에 대해 “양식적 완전성을 향한 회귀라기보다는 다양한 시간적 층위를 포용하고 그것들을 체험하게 하는 공간”이라고 표현하였다.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1층은 1전시실과 2전시실, 카페로, 2층은 3전시실, 4전시실, 5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1전시실에는 혜화동의 1941년 전후 모습과 현재까지 이어져오거나, 혹은 변화된 모습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시하고 있다. 2전시실에는 한양도성의 축성법과 축성자들 이름이 새겨진 각자성석, 창밖으로 보이는 외사산에 대한 설명을 전시하고 있다. 서울시장과 그의 가족들이 거주했던 2층에는 3전시실에 총 13명의 역대 서울시장의 당시 생활 모습 사진과 각 시장에게 기증 받은 소지품 등을 전시하고 있다. 4전시실에는 가옥의 목구조를 볼 수 있도록 노출된 천장 아래 어린이를 위한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11 전봉희(2017), "유적을 대하는 태도", SPACE 2017년 1월호.



1전시실 전경



1전시실 창문으로 바라본 2전시실



2전시실 전경



3전시실 전경



4전시실 전경



5전시실 전경

서울 구의살롱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는 1980년대에 건축된 다세대주택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골목마다 예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1988년에 지어진 '구의살롱'은 제도적 이유로 형성된 반지하층과 각 층별 독립적인 접근동선, 한국식 베이 윈도우, 물탱크실 등 당시의 시대상을 외형적인 주택 구조를 통해 하나의 '보편적인 장면^{scene}'을 보여준다. 1980년대 이른바 집장사가 지은 다세대주택에도 당시의 건축양식과 언어가 담겨 있으며, 한 시대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집합체'로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의살롱'은 이러한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양식이자 집합적 양식으로 보는 것에서 시작하고 있으며, 1980년대에 유행한 한국의 전형적인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2

- 01 시대를 대변하는 집합체적 양식으로서의 주택에 주목하다
- 02 1980년대 다세대주택에 새로운 공간을 제안하다
- 03 공간구성을 위한 보전과 활용을 고민하다
- 04 기존 도시조직의 점진적인 변화를 꿈꾸다

서울 구의살롱

Salon Gueui in Seoul

위치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134길 39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121.3㎡
건축면적 65.58㎡
연면적 195.83㎡
층수 지상 2층, 지하 1층
구조 연와조(철골조 보강)
용도 다세대주택 → 건축사무소 겸 주택



이 시대를 대변하는 집합체적 양식¹으로서의 주택에 주목하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서울에는 주택 공급이 매우 부족했다. 서울 도심은 이미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송파, 강동, 강서, 도봉 등 서울 외곽의 빈 땅을 택지로 개발하여 99㎡에서 165㎡ 규모의 작은 필지로 분할하였다. 여기에 당시의 기술력과 경제력으로 가장 쉽고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대규모로 들어서게 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1990년대 말 아파트가 대량 공급되기 전까지 지속되어 서울 도심으로까지 확대되었고, 급기야 단독주택을 허물고 재산 증식 수단으로 다세대주택 짓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1980년대 부동산 붐으로 생긴 다세대주택의 특징은 반지하와 각 층별 독립적인 접근동선이라 할 수 있다. 1962년 「건축법」의 제정으로 처음 등장한 지하층의 개념은 ‘방공호’였다². 제도적 이유로 형

1 이승택(2020), 구의살롱, 월간 SPACE.

2 지하층의 개념은 1962년 「건축법」을 제정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지상층 면적의 일정량을 지하층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지하층 층고 3분의 1 이상을 지하에 파묻게 했다. 1972년에는 층고 3분의 2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되었다. 이후 1984년에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에 한해 지하층 층고의 2분의 1 이상이 지하에 위치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도 하였다. 이는 방공호로 설치했던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쓰는 사람이 늘자 빛이 더 들어오게끔 지상으로 돌출된 부분을 늘린 것이었다.
(출처: 조선일보(2020), 기생층엔 없었다…반지하의 역습, 2월 22일 기사)

성된 반지하는 당시 급증한 수도권 인구와 함께 임대 수익의 수요와 맞물려 창고였던 반지하를 주거공간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각 층에 두 세대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공간이 구획되면서 층별 독립적인 진입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다.

하지만 반지하층을 창고로 사용하던 당시에는 필요 없었던 화장실과 주방을 새로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화장실의 경우, 기존 정화조와의 관계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새로 설치되는 화장실의 구조와 위치는 제약을 많이 받게 된다. 오수 처리를 위해 화장실 바닥은 기존 정화조의 위치보다 높게 설치되었고, 높이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장실은 정화조와 최대한 가깝게 위치할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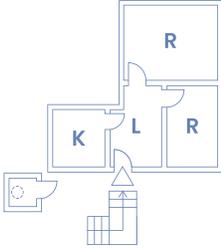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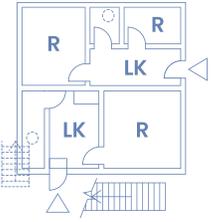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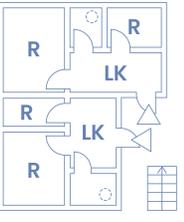
이처럼 1980년대 건립된 반지하 다세대주택은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법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주거 형태로,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 하나의 건축양식과 언어가 담겨 있다. 즉, 반지하 다세대주택은 주택 공급이 부족했던 1980년대를 대변하는 ‘집합체’로서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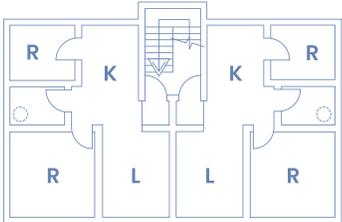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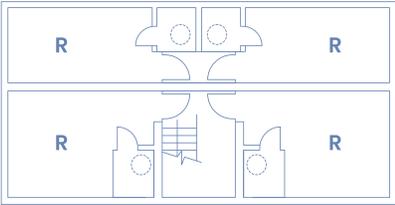
지하층 주거 관련 건축법제 변화(일반주거지역)

구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이후
지하층 주거허용	지하층 주택 설치 허용(76년)	-	• 공동주택 지하주거 허용 검토(90년)	서울시, 침수지역 반지하 규제(10년)
지하층 인정기준	바닥에 지표까지 높이가 천정 높이의 2/3 이상인 경우(73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천정고의 1/2이상(84년) 천정고→층고(86년)	-	-
면적 산정기준	지하주차장, 의무 지하층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78년)	지하층 용적률 면제(81년) 다세대주택의 옥외계단 건축면적 면제(85년)	• 지상층 주차장 면적 면제 • 공동주택 필로티 면적 면제(90년) • 옥외계단 건축면적 포함(93년)	-
용적률	400%→300% (73년)	400% (88년)	• 300% (서울시, 93년)	세분화(00년)
층, 높이 관련	지하층 층수 산정에서 제외(73년)	다세대주택 층수제한 : 3층(88년)	• 층수제한 완화 • 다세대 4층, 다가구 3층(90년)	높이 산정시 필로티층 제외(00년)
지하층 의무설치	인구 20만 이상, 연면적 200㎡ 이상 시 설치(70년)	수도권 : 연면적 85㎡ 이상(84년)	• 다세대주택 의무설치 면제(91년) • 지하층 의무 규정 폐지(99년)	-
주차기준 (서울)	-	-	• 다가구주택 주차기준 제정(97년) • 다세대다가구 기준 통합(99년)	다세대다가구주택 기준 강화(02년)
기타	-	다세대주택 제도 도입(84년)	•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90년)	-

출처: 강경국-전봉희(2017), 법제의 변화에 따른 지하층 주거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 양천구 신정동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37권제2호, p.375.

도시주택의 유형과 지하층 주거의 특징

주택 유형	다가구 거주 단독주택	단독형 다가구주택	절충형 다가구주택
지하층 평면			
관련 법제	• 지하층 외부설치(70년)	• 지하층 기준 완화(84년) • 다세대주택 도입(84년) • 옥외계단 면적제외(85년) • 다가구주택 도입(90년)	• 옥외계단 면적포함(93년)
지하층 주거의 특징	• 지면에서 낮은 바닥 • 비주거 공간을 개조 • 지상에 비해 작은 면적 • 작은 창문/부족한 채광 • 높은 담장 • 외부 화장실	• 바닥높이 상승 • 별도 대문 설치 • 전면+측면/측면 집입 • 지상층과 다른 평면 • 낮은 담장 • 내/외부 화장실	• 통합 대문/별도 대문 • 측면 집입 • 지상층과 유사한 평면 • 낮은 담장 • 내부 화장실

주택 유형	연립형 다가구주택	다중주택/고시원
지하층 평면		
관련 법제	• 다가구주택 주차기준 제정(97년) • 다세대/다가구 주택 주차기준 통합(99년)	• 필로티층 높이 제외(00년) • 주차기준 강화(02년)
지하층 주거의 특징	• 도로면 담장 소멸 • 내부 계단실로 진입 • 창문 방법장치 강화 • 부분 필로티	• 원룸형 평면 • 독립되지 않은 주거(취사시설 설치 불가)

출처: 강경국-전봉희(2017), 법제의 변화에 따른 지하층 주거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37권제2호, p.376.



구의동 골목길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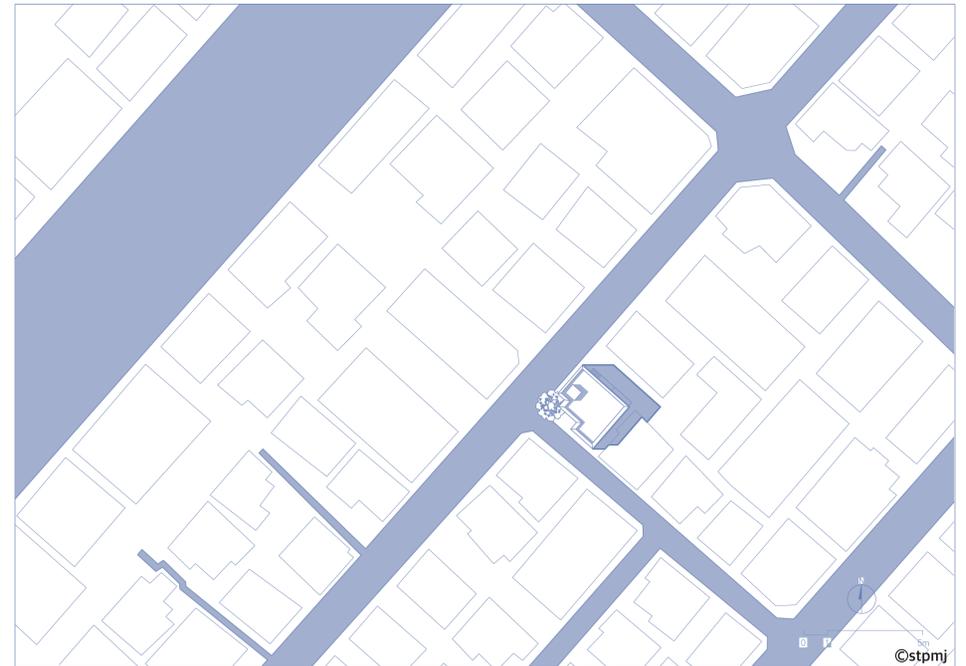
구의동 감나무 벽화



‘구의살롱’이 위치한 구의2동은 구의사거리 북쪽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낙후된 주거지역이다. 1960년대 화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³과 1970년대 화양지구 추가 토지구획정리사업⁴에서도 배제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조성 당시의 도시형태와 조직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대부분의 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1980년대 구의동 다세대·다가구주택에는 감나무가, 옆 동네인 중곡동에는 집집마다 약속이나 한 듯 목련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당시의 동네 풍경을 특징짓는 요소였다. 여전히 구의동에는 감나무가 심어져 있는 반지하와 독립된 진입동선을 가진 다세대주택들이 남아있어 현재까지 1980년대 구의동의 풍경을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풍경 속에 녹아있는 ‘구의살롱’에 대한 소개는 1980년대 반지하 다세대주택을 하나의 건축양식이자 집합적 양식으로 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 3 1966년 5월 10일 지구지정, 1966년 1월 21일 시행인가(시행면적 2,110.5천㎡, 공공용지율 20.7%, 감보율 26.6%, 사업비 273백만 원)
(서울정책아카이브 홈페이지(<https://seoulsolution.kr/ko/content/%ED%86%A0%EC%A7%80%EA%B5%AC%ED%9A%8D%EC%A0%95%EB%A6%AC%EC%82%AC%EC%97%85>)) (검색일자: 2020.7.3.)
- 4 1971년 11월 26일 지구지정, 1972년 3월 28일 시행인가(시행면적 1,522.4천㎡, 공공용지율 29.4%, 감보율 35.1%, 사업비 617백만 원)
(서울정책아카이브 홈페이지(<https://seoulsolution.kr/ko/content/%ED%86%A0%EC%A7%80%EA%B5%AC%ED%9A%8D%EC%A0%95%EB%A6%AC%EC%82%AC%EC%97%85>)) (검색일자: 2020.7.3.)



구의살롱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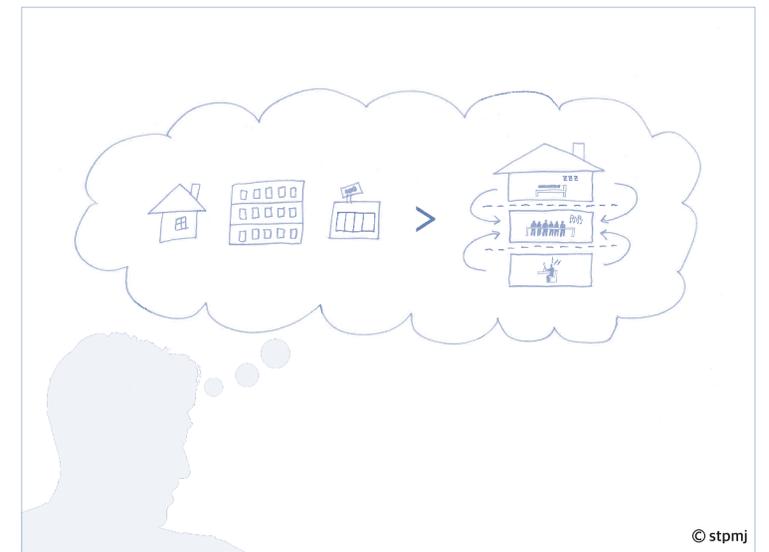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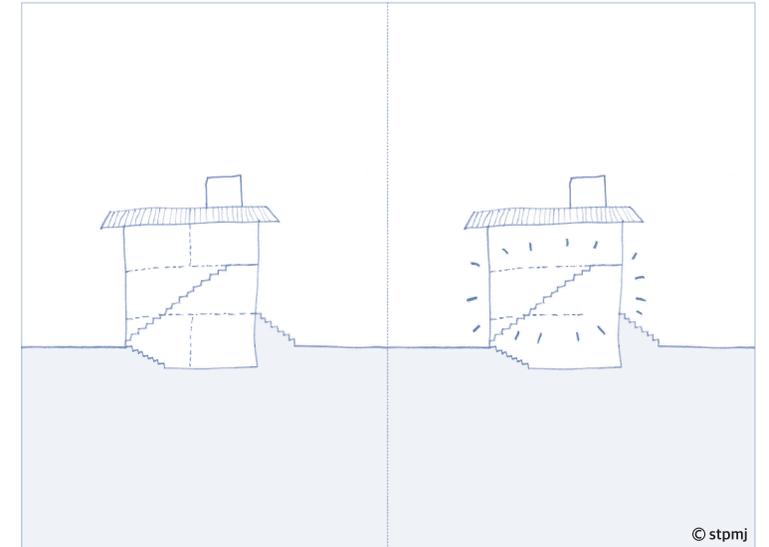
02 1980년대 다세대주택에 새로운 공간을 제안하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는 1980년대 건축된 주택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 빌라 형태의 건축물들이 신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목마다 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1980년대의 풍경을 간직하고 있다. 구의동에 위치한 ‘구의살롱’은 1988년에 건축되어 에스티피엠 제이 건축사사무소의 이승택 소장을 만난 2018년까지 다세대주택으로 사용되었다. 건축물은 반지하층, 주변 도로보다 반층 높은 1층과 2층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반지하층과 2층에는 2세대, 1층에는 1세대 총 5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각 층으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개별동선이 있었다.

이승택 소장은 건축사사무소와 주택을 함께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물색하였고, 현재의 구의살롱을 발견한 후 반지하층과 1층은 업무공간으로, 2층은 주거공간으로 계획하고자 하였다. 특히 업무공간의 주요 작업공간은 반지하층으로 계획하였다. 이는 북측 담장 사잇길을 통해 반지하층으로 바로 출입할 수 있고 내부에서 1층과 연결해주면 반지하층과 1층을 하나의 업무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승택 소장이 계획 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남서측 도로에서 반층 높은 1층 공간이었다.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공간을 구분했을 때 1층은 반지하층과 연계되는 업무공간임과 동시에 2층에 사는 가족이 내려와

머무는 공간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1층 공간을 ‘살롱’이라고 이름 붙이고 업무공간과 가족공간의 중간영역으로서 반지하층과 2층 사이, 업무와 주거 프로그램 사이에서의 회의, 미팅, 전시, 휴식 및 여가 등 사용자들의 다양한 행위를 담기 위해 건축물 내 커다란 ‘응집실’로 계획하였다.



구의살롱의 컨셉스케치

구의살롱은 1980년대 풍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반지하 다세대주택을 하나의 건축양식이자 집합적 양식으로
보는 것에서 시작하였습니다.

2020. 6. 11.
이승택 소장 인터뷰 中



03 공간구성을 위한 보전과 활용을 고민하다

일반적으로 리모델링 작업은 대상 건축물의 내부구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획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구의살롱’ 프로젝트는 건축주인 이승택 소장이 직접 설계와 시공을 했는데, 가장 먼저 건축물 내부를 뜯어내는 해체작업부터 했으며 그와 동시에 공간을 계획하였다. 건축물 내부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세를 더 받기 위해 층별로 가벽을 세우고 2층으로 올라가는 독립적인 계단을 덧붙이고 불법 확장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이승택 소장은 건축물 내부 해체과정에서 발견된 1980년대의 어색한 구축방식과 재료의 켜를 디자인 프로세스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 유행하고 있는 과거지향적 소비 트렌드인 ‘레트로’와 구분하여 과거 건축물이 가진 가치를 현 시대에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에 집중하였고, 건축적 요소를 어떻게 남기고 변경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다.

건축물 내·외부공간에 있어 층별 진입구조, 외부의 건축적 요소, 벽과 바닥의 축조방식과 디테일, 건축물 내 설비배관 등은 한 시대를 환기시키는 집합체적 양식으로 보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내부공간을 구획하던 벽과 일부 슬래브는 현재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도록 철거하였다. 한국식 베이 윈도우 형태, 30년 된 적벽돌, 지붕층을 형성하는 처마 구조와 기와, 1층 계단부의 디테일, 저층부 기단 형태의 콘크리트 및 대리석 마감 등은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건축물 입면의 변화

이승택 소장은 기존 건축물의 외부공간과 창문, 계단, 기단 등의 건축적 요소 및 마감을 기존 상태로 최대한 보전하였다. 반면에 구의살롱은 주변의 1980년대 건축물들과의 미묘한 차이를 갖는 풍경으로 만들고자 건축물 마감재료 등 입면의 변화를 주고자 하였다. 건축물 벽돌과 색상이 비슷한 모르타르를 기존 모르타르 마감 위에 덧붙여 볼륨의 단일화를 추구하였고, 수명이 다한 계단과 발코니의 난간은 발색된 스테인리스 스틸 패널로 감싸는 등 새로운 마감을 사용하되 변화를 최소화 하였다. 또한 이승택 소장이 ‘한국식 베이 윈도우’라 칭하는 창문들은 창틀을 그대로 남겨두되 외부 창은 철거하고, 내부 창은 단열성능이 강화된 제품으로 교체하였다.



리모델링 전(左)과 후(右) 구의살롱의 남동측 전경



©윤준환



리모델링 전(左)과 후(右) 구의살롱의 남서측 전경



©윤준환



벽돌과 유사한 색상의 모르타르를 채운 외부 마감



내부공간의 변화

해체를 통해 30년 된 주택에 숨겨져 있던 내부 마감면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 변화된 역사를 읽을 수 있었다. 1층 슬래브와 내부 마감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주택의 공간확장 방식 등 공간변화와 관련된 흔적들이 발견되었다. 1층 동측 벽에는 주택이 건축될 당시의 조적벽체부터 이후 불법으로 내부를 확장했을 때의 마감면 등 재료의 켜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특히 외부공간이었던 테라스를 내부화하면서 대리석 기단 위에 조적벽을 쌓아올린 흔적도 있었다. 조적벽은 마치 대리석, 모르타르, 벽돌의 물성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된 것처럼 보였는데, 주변 벽체들과 미세하게 다른 질감을 보이는 적벽돌과 그 사이에 층을 형성하고 있는 대리석은 몇 년의 시간차를 드러내어 축조순서를 가늠할 수 있었다. 또한 외부로 난 창이 불법확장으로 내부화되자 이를 막아 벽감으로 활용한 흔적도 발견되었다. 이처럼 이 주택은 일반적인 건축방식과 재료사용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승택 소장은 1층 내부공간의 내장재를 모두 제거한 뒤 벽지나 페인트와 같은 마감을 새로 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 훗날 새로운 사용자가 서로 다른 시기의 마감과 축조방식을 경험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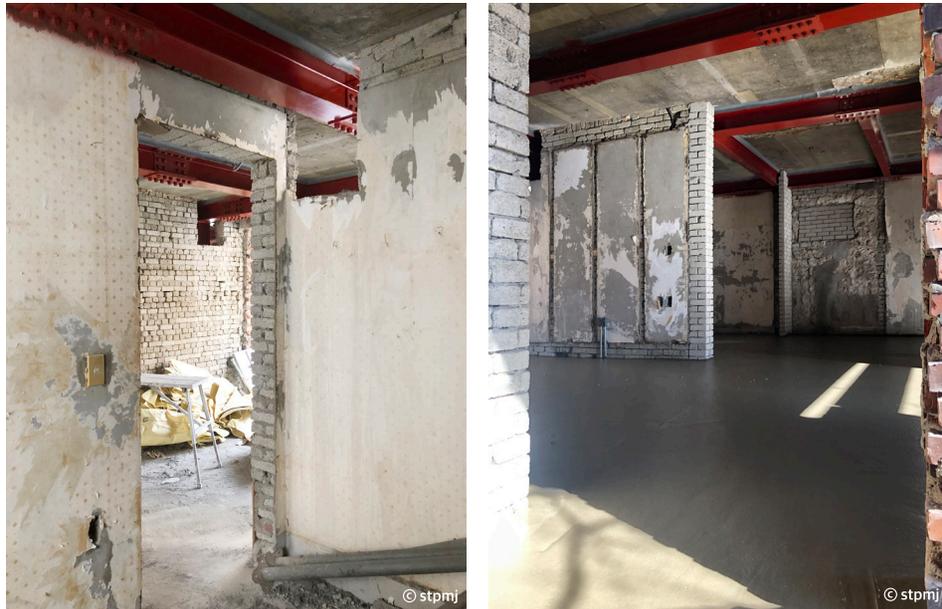


리모델링 전 구의살롱의 거실창(左)과 해체 시 발견한 불법확장의 흔적(右)



반지하층과 1층을 연결하는 계단을 시공하던 중 발견한 재료의 켜

현행법상 대수선 시 내진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구의살롱’은 철골로 구조를 보강하였다. 철골로 보강하는 경우 건축물의 규모가 크지 않는 한 원래의 내력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기존 벽을 모두 철거해도 무방하지만, 이승택 소장은 내부의 벽을 모두 철거하지 않고 내력벽이 아닌 단순 공간구획용 벽이거나 리모델링 계획 시 활용하지 않을 벽을 대상으로 철거여부를 결정하였다. 하지만 주된 업무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2세대가 거주했던 반지하층에는 일부 내력벽을 철거하였다. 또한 1층 응접실에서도 라왕합판이 남아 있는 벽을 제외하고는 내벽을 철거하여 응접실이 다양한 행위를 담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1층 철골조 보강모습

1층 동측 벽과 접하는 다른 벽에서는 라왕합판으로 된 장식 몰딩 마감과 벽지 마감이 혼재되어 있었다. 이승택 소장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마감만 철거한 뒤 벽돌과 미장면을 보전하고자 하였다. 북측에 주방으로 활용되던 공간의 벽면에는 당시 주방 레이아웃에 대한 스케치가 분필로 그려져 있었는데, 이 역시 건축물을 처음 설계했던 건축가의 흔적으로 남겨 두었다. 이처럼 1층 벽면에는 벽돌로 마무리했던 부분과 시멘트로 도장한 부분 등 준공 당시의 다양한 마감 흔적이 남아 있어 이 집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라왕합판으로 된 장식 몰딩 마감과 벽지 마감이 혼재되어 있던 벽(左)을 마감만 철거한 뒤 보전한 모습(右)



주방 레이아웃에 대한 건축가의 흔적

기존의 반지하층은 공간을 구획하여 두 세대가 살았기 때문에 2개의 화장실이 있었다. 지어질 당시에는 주방과 화장실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두 세대로 구획하여 세를 주게 되면서 2개의 화장실이 추가로 설치되었다. 반지하층 화장실 두 곳은 기존 정화조와의 관계로 인해 단차를 두고 올라서야 하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었다. 반지하층과 1층을 업무 공간으로 활용하고 이를 연결하는 계단 설치로 반지하층의 화장실이 필요치 않아 철거하였다. 하지만 화장실의 흔적과 배관 등을 보전하여 공간의 기억은 남겨 두었다.



반지하층의 화장실 바닥의 흙을 철거한 후(左) 화장실의 흔적을 남긴 모습(右)



반지하층의 화장실 입구(左)와 화장실 내부의 모습(右)



반지하층과 1층의 연결계단 주변에 남아있는 화장실의 흔적

지금은 사용되지 않지만 옥상의 오래된 물탱크실은 바닥의 일부를 철거하여 2층 현관에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하고, 과거 물탱크와 연결되었던 배관들은 그 당시 건축물의 설비 시스템을 보여주기 위해 남겨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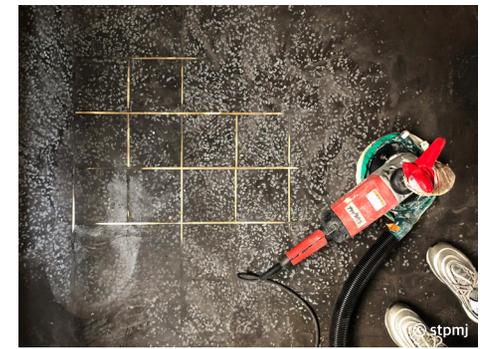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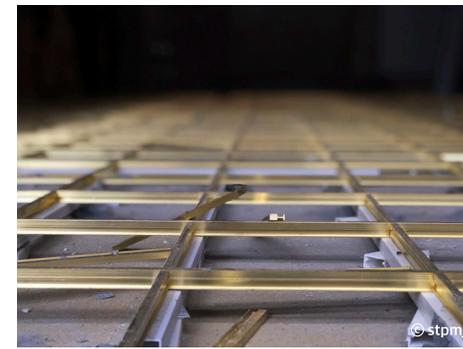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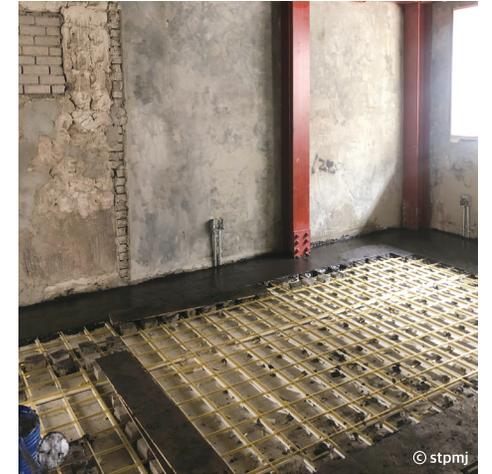


옥상의 물탱크실(左)과 물탱크실의 바닥 일부를 철거한 뒤 옥상에서 바라본 모습(右)



2층 현관에 드러난 물탱크실의 배관(左)과 2층 현관에서 올려다 본 모습(右)

1층 바닥의 경우 1970년대와 1980년대 공공건축물과 아파트에 많이 사용되던 테라조를 900mm 간격의 황동줄눈 사이에 시멘트와 돌을 넣고 갈아내는 마감방식을 적용하였다. 계획 당시에는 건축물 해체작업 시 발견한 온돌바닥 돌을 활용하여 바닥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작업 인부들이 폐기물로 처리하여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1층 바닥면의 검은색 콘크리트와 진회색 골재를 채운 150mm의 황동 신주 그리드는 외부 계단과 2층 발코니 난간의 발색된 스테인리스 스틸 패널과 같은 색상으로 통일하여 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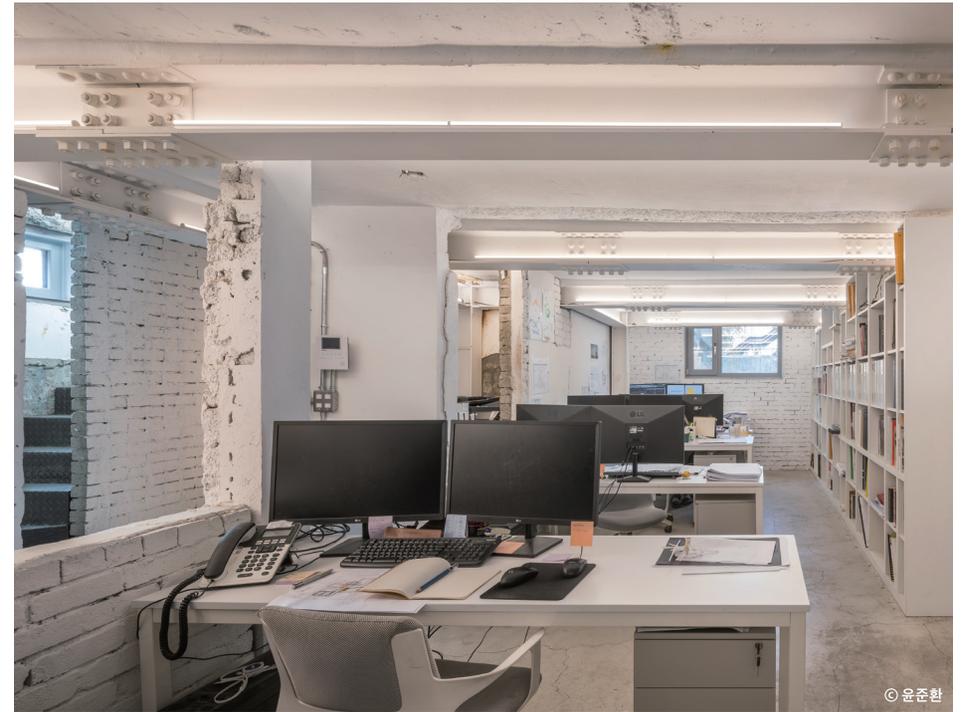


1층 바닥의 황동 신주 그리드 시공모습

2층 주거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공간에는 마감을 최소화하였다. 천장은 콘크리트를 그대로 노출시켰고, 바닥은 현장에서 제작한 테라조와 노출 콘크리트를 사용하였다. 벽체는 벽돌을 노출시키고, 반지하층은 주요 업무공간의 조도 확보를 위해 미장 위에 흰색 페인트를 칠했다.



기존 벽체의 마감 흔적이 남겨져 있는 1층 응접실



벽돌미장 위 흰색 페인트를 칠한 반지하층 벽체

이렇게 구의살롱의 공간에는 1981년 준공 당시의 흔적과 전 집주인의 확장공사 흔적, 이번 리모델링의 흔적까지 공존하게 되었다. 이승택 소장은 소비를 위한 레트로와 구의살롱이 구분되는 것은 그 시대 상황과 구성원들이 갖고 있던 집합적 가치를 담아내고 보여줄 수 있느냐의 차이이며, 모든 것을 남기거나 일부러 과거를 재현하는 것은 건축가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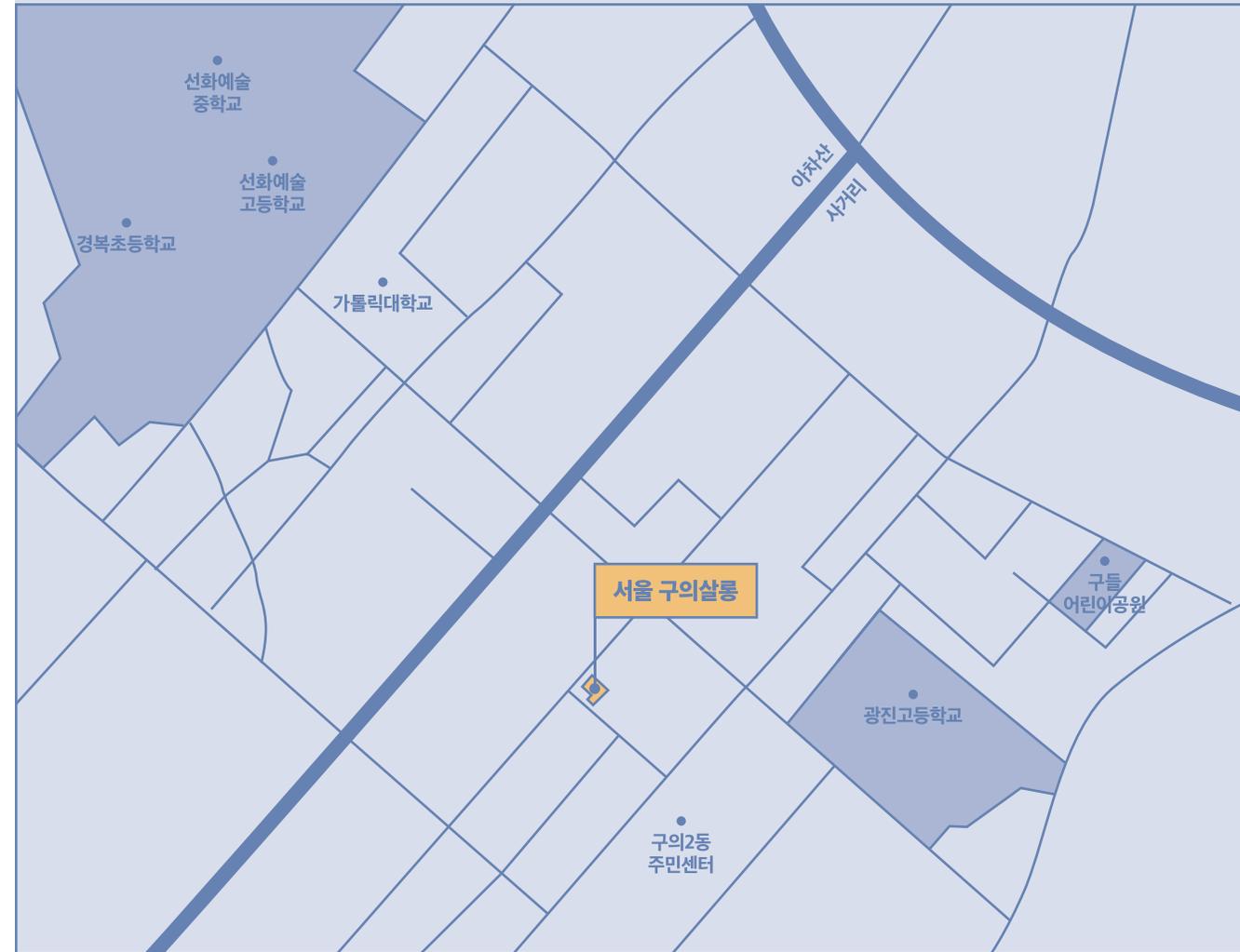


원래 외벽이 있었던 곳인 적벽돌이 있는 부분부터 세 가지의 마감이 혼재하고 있는 1층 응접실의 메인 창 옆의 벽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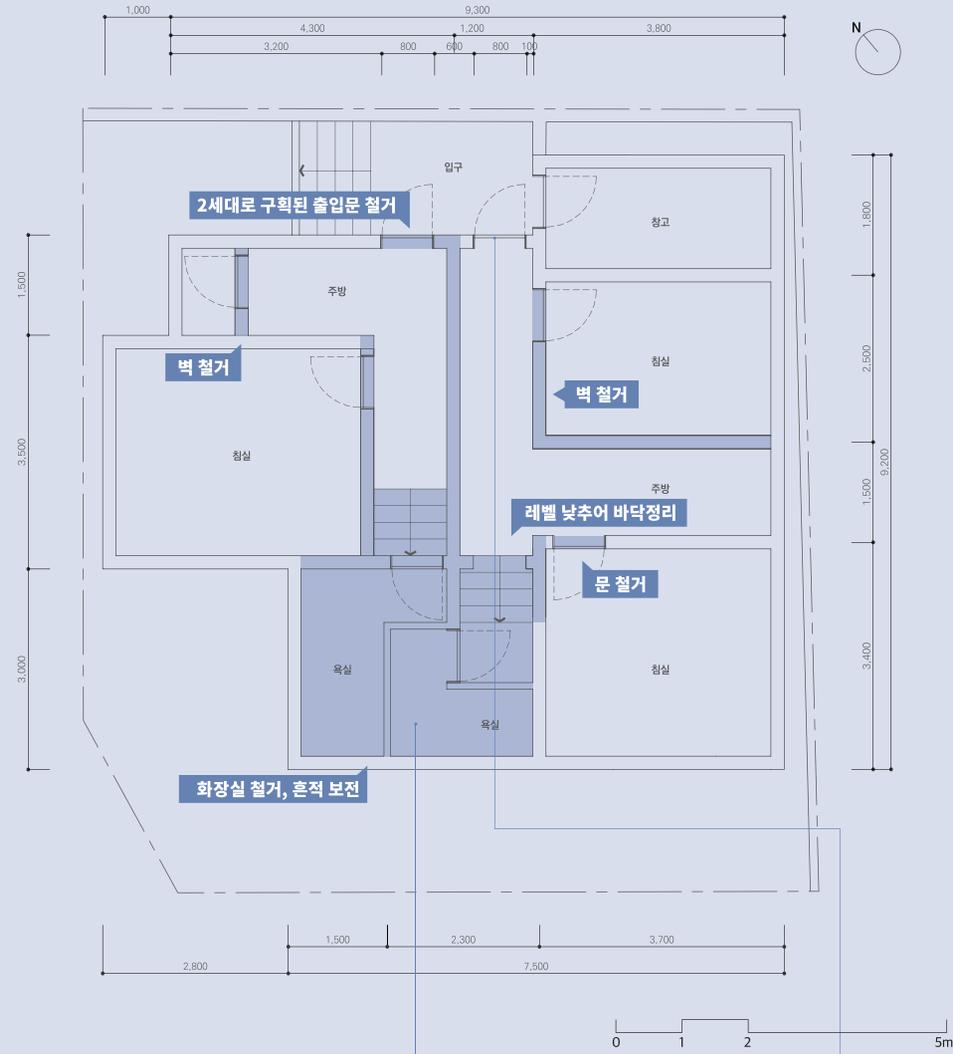
위치도

서울 구의살롱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34길 39



리모델링 전
반지하 평면도



반지하층 화장실 철거 후 흔적 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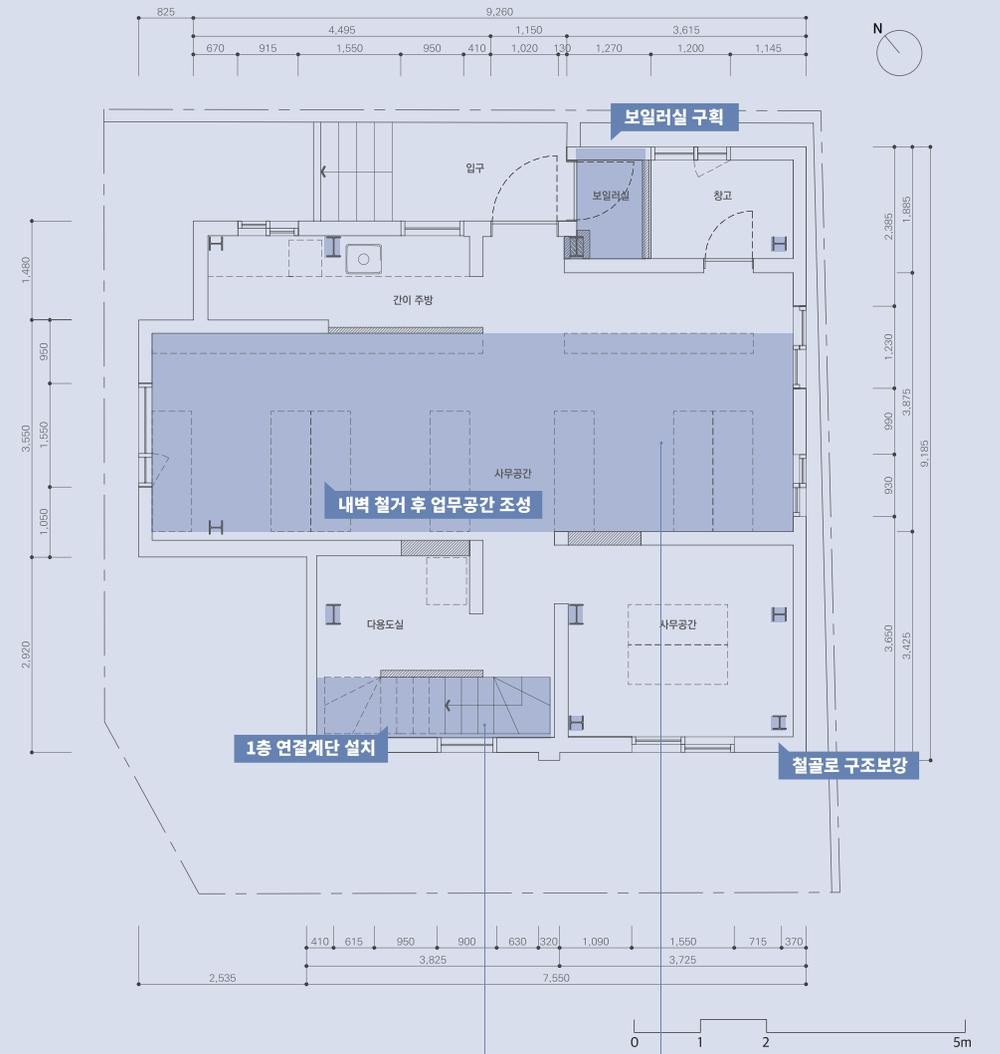
© stpmj



© stpmj

반지하층 두 세대 중 한 세대의 출입문

리모델링 후
반지하 평면도



반지하층 업무공간과 1층을 연결하는 계단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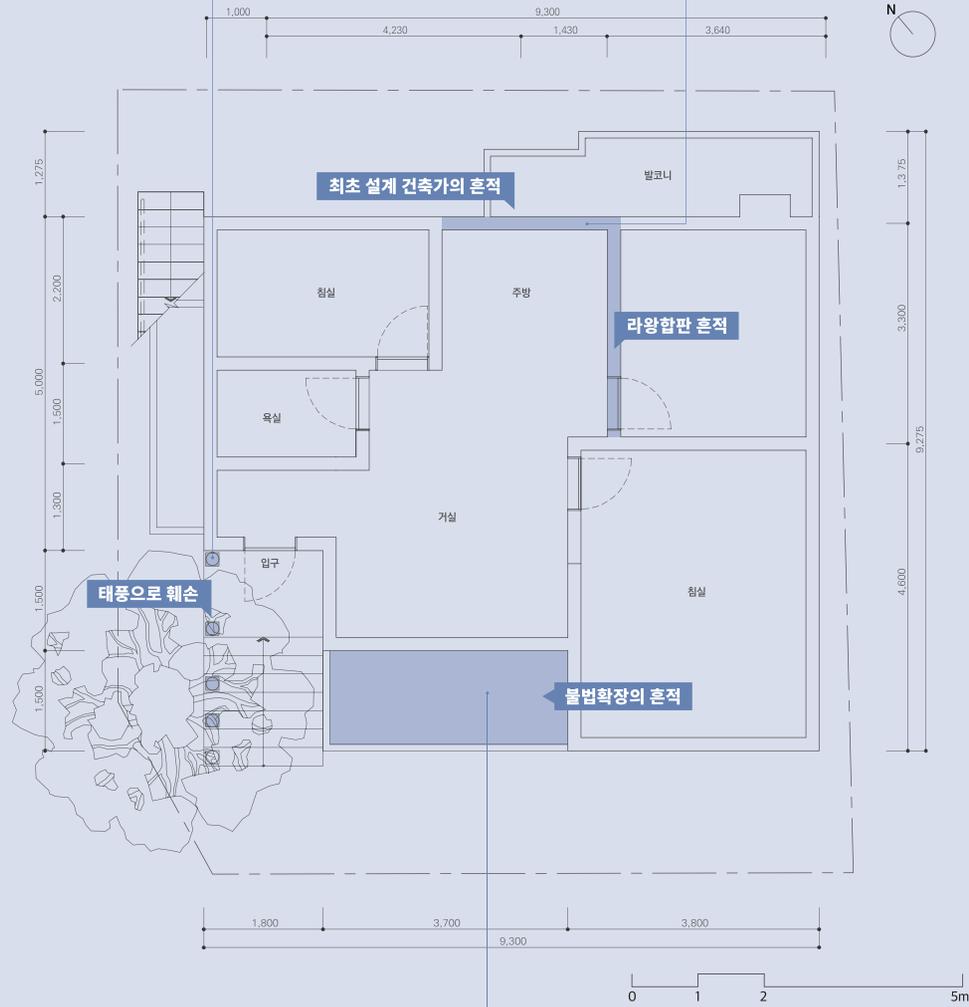
두 세대로 구획되어 있던 반지하층의 내벽을 철거하여 업무공간으로 조성

리모델링 전 1층 평면도



태풍으로 인해 훼손된 현관장식

최초 설계 건축가의 주방 레이아웃 스케치 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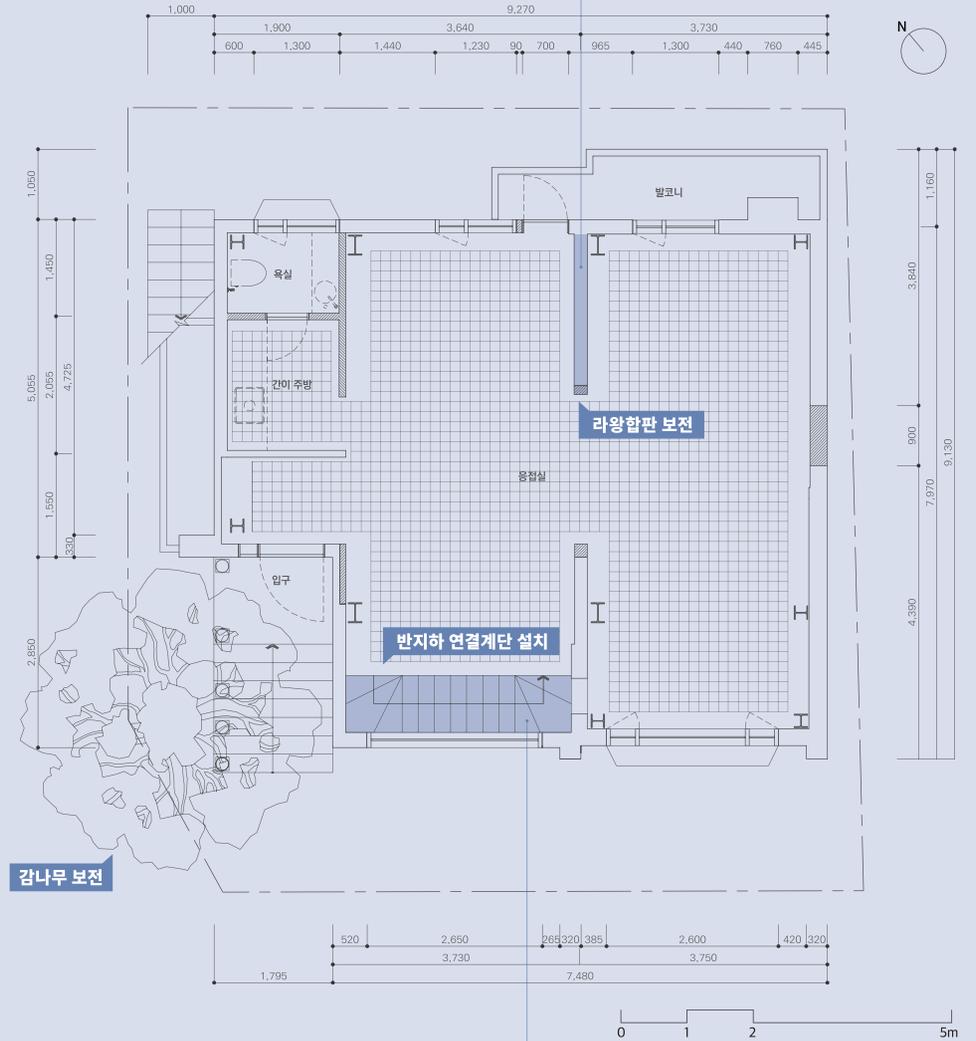


외부였던 공간을 내부로 불법확장한 흔적

리모델링 후 1층 평면도



라왕합판이 있던
흔적 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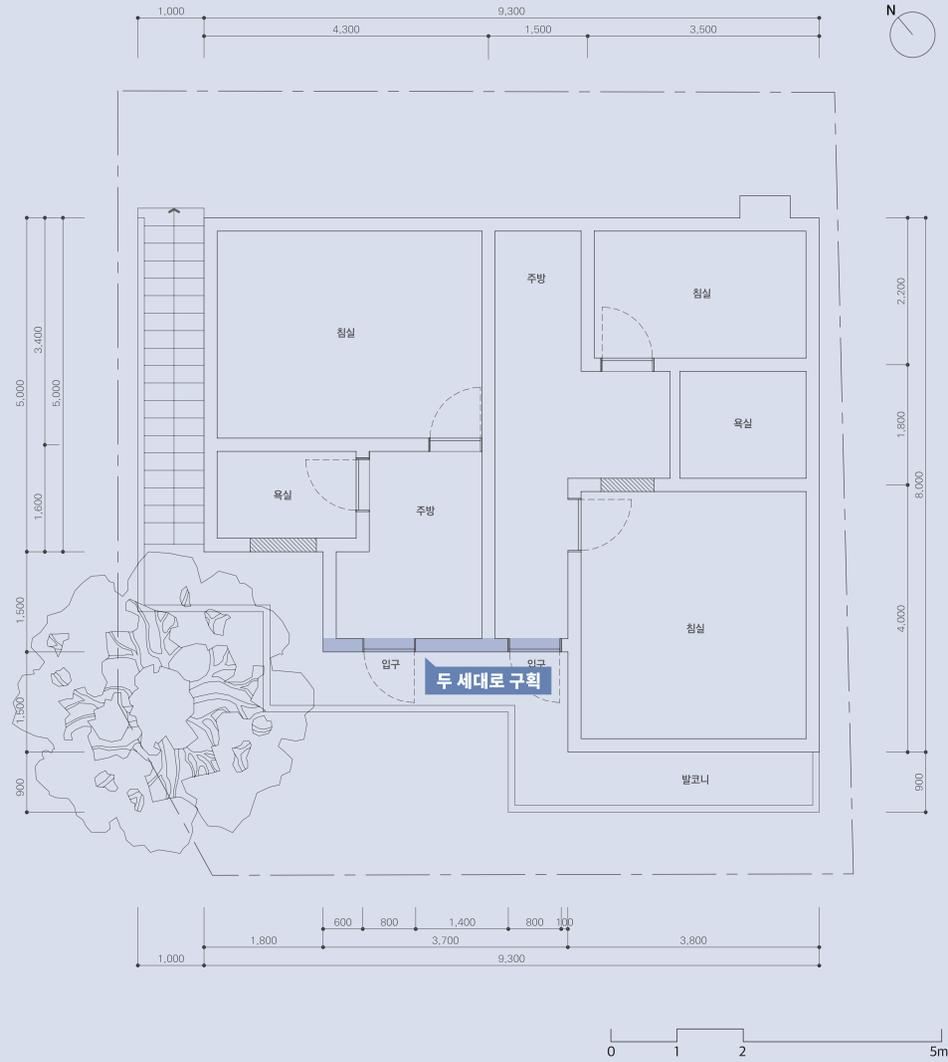


감나무 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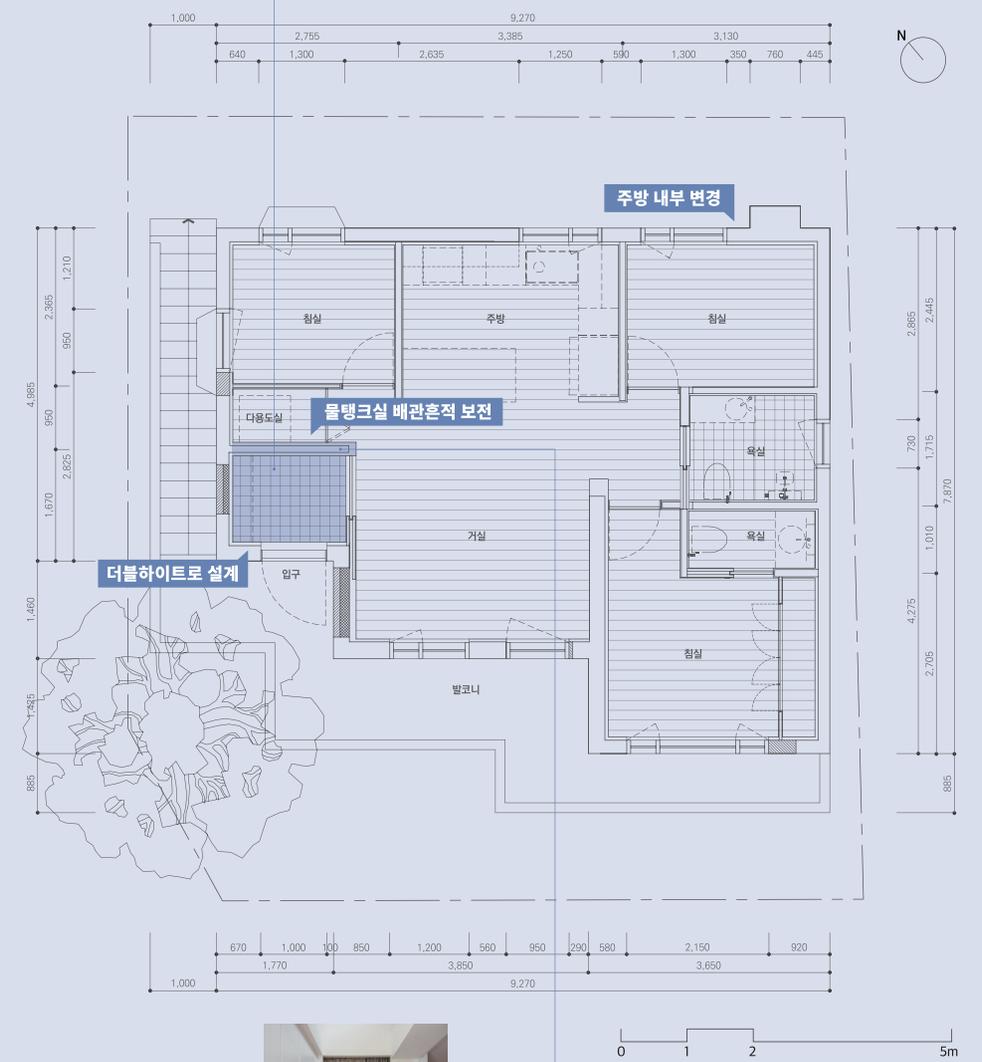


불법확장한 흔적을 제거하고
반지하층과 1층의 연결계단 설치

리모델링 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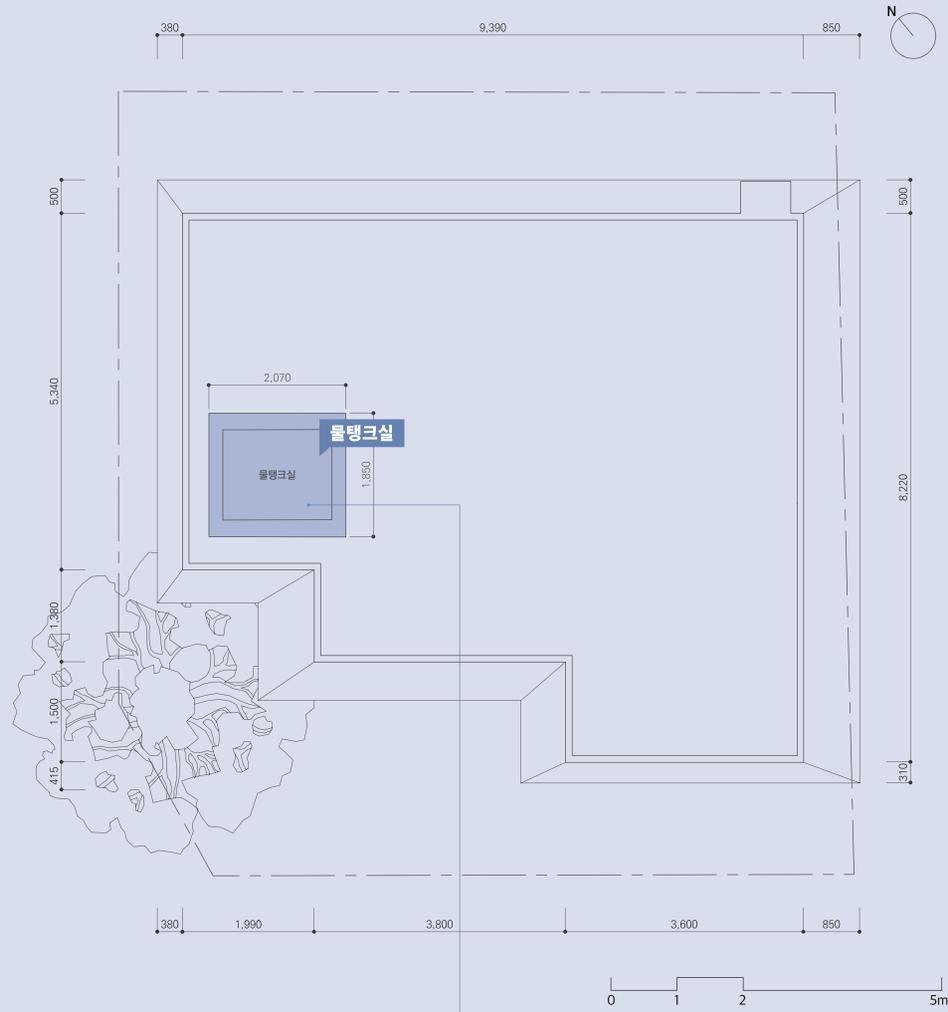
리모델링 후
2층 평면도



물탱크실 바닥을
철거하여 2층 주택
의 현관을 더블하이
트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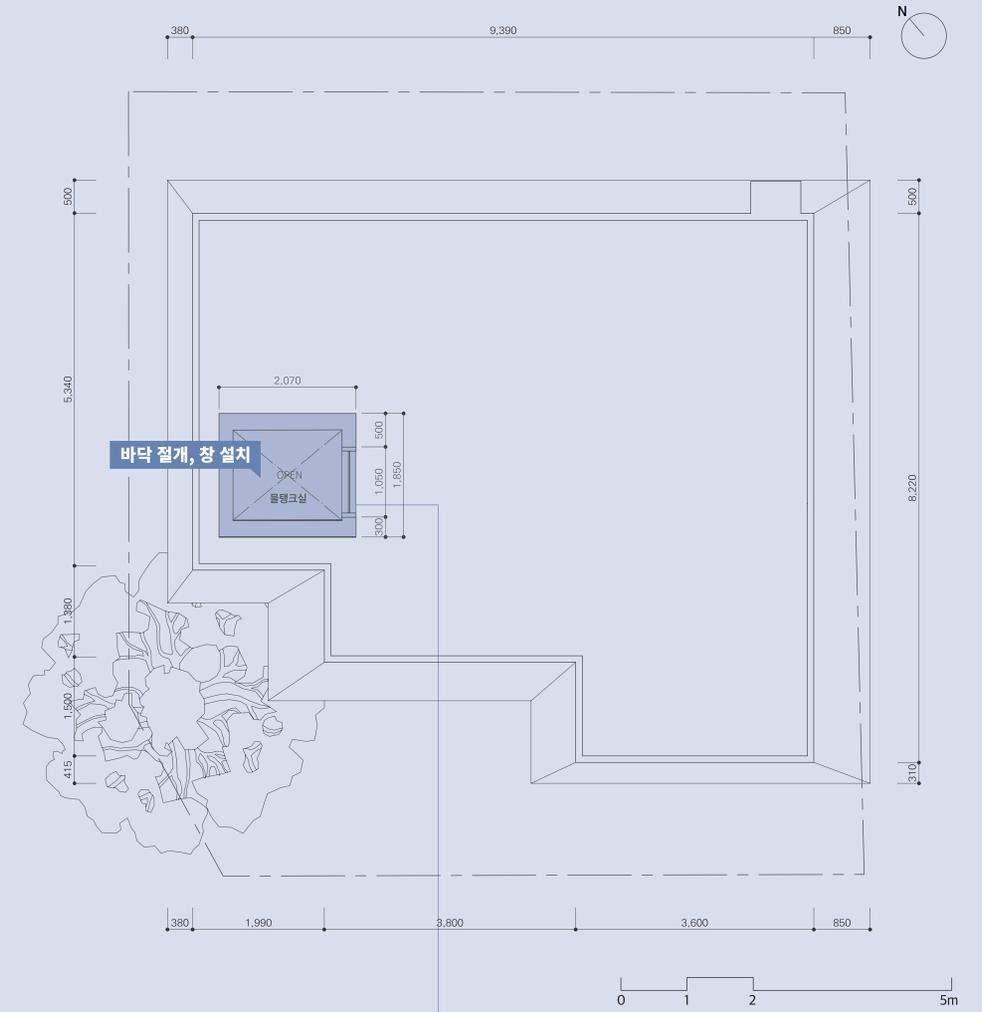


물탱크실 배관흔적 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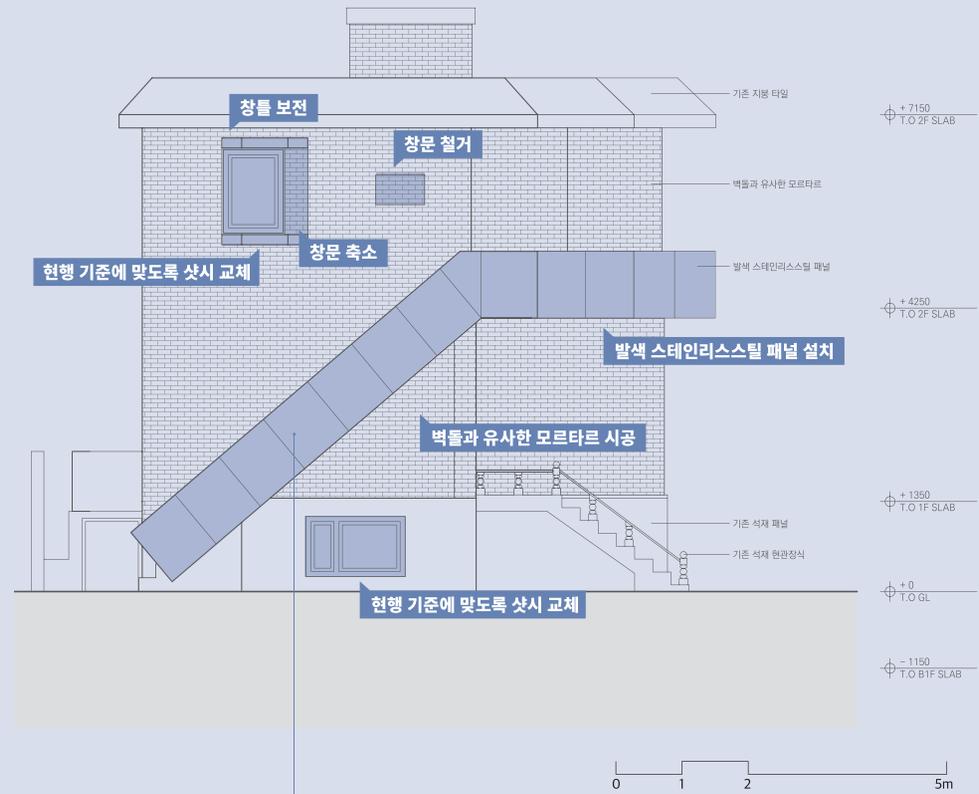
리모델링 전 물탱크실의 모습

© stpm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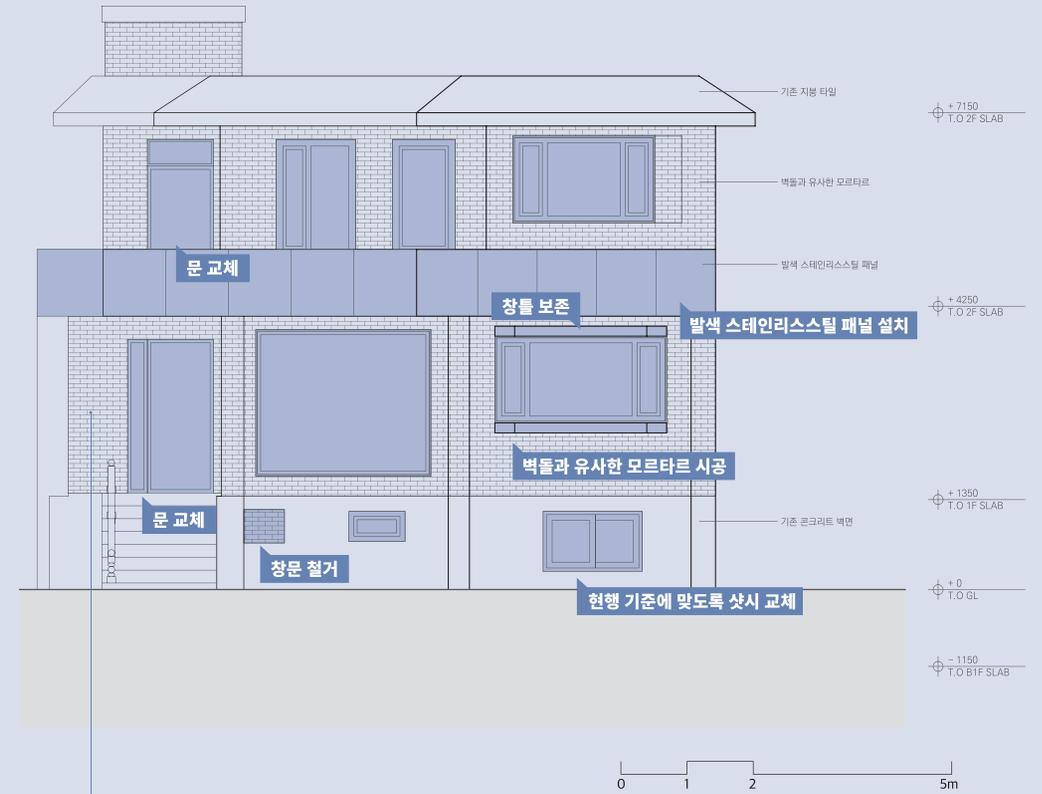


기존 물탱크실의 바닥을 절개한 후 창문을 설치하여
2층 주택 현관에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

© stpmj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난간에 발색 스테인리스스틸 패널 설치



벽돌과 유사한 모르타르 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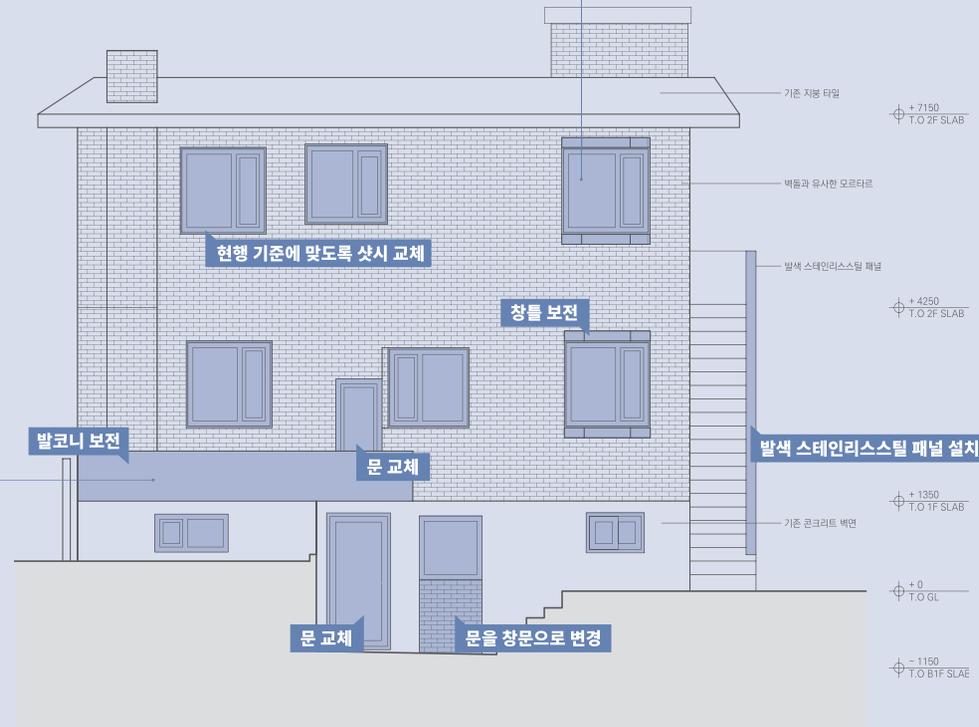
리모델링 전과 후의 구의살롱 모습

리모델링 후
배면도



발코니 보전

현행 기준에 맞도록 샷시 교체 및 창틀 보전



0 1 2 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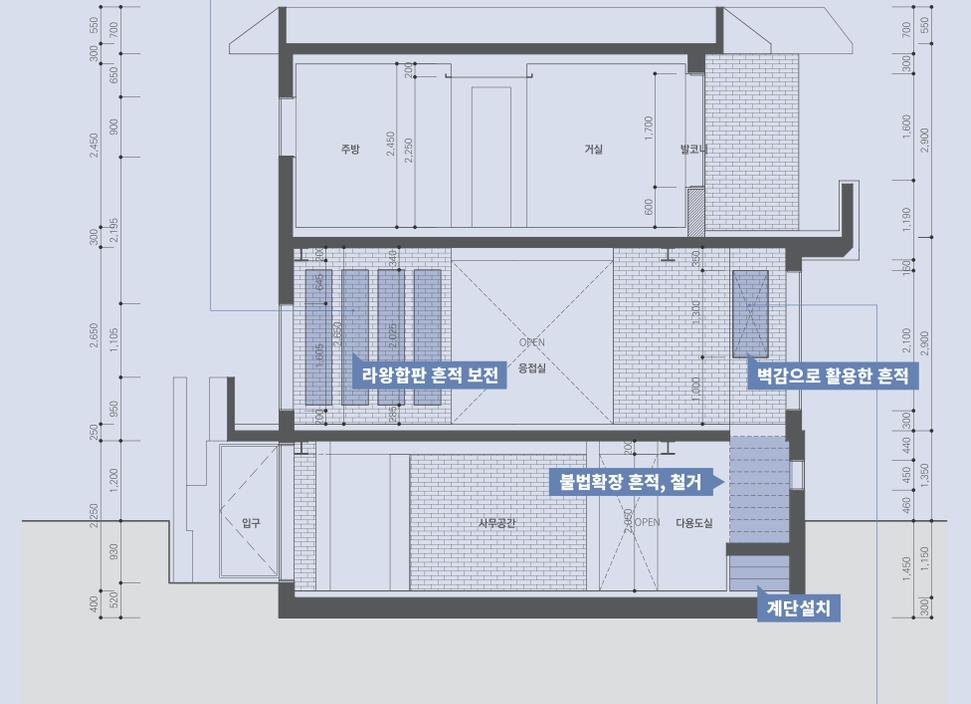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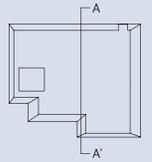


구의살롱 후면의 모습

리모델링 후
A-A'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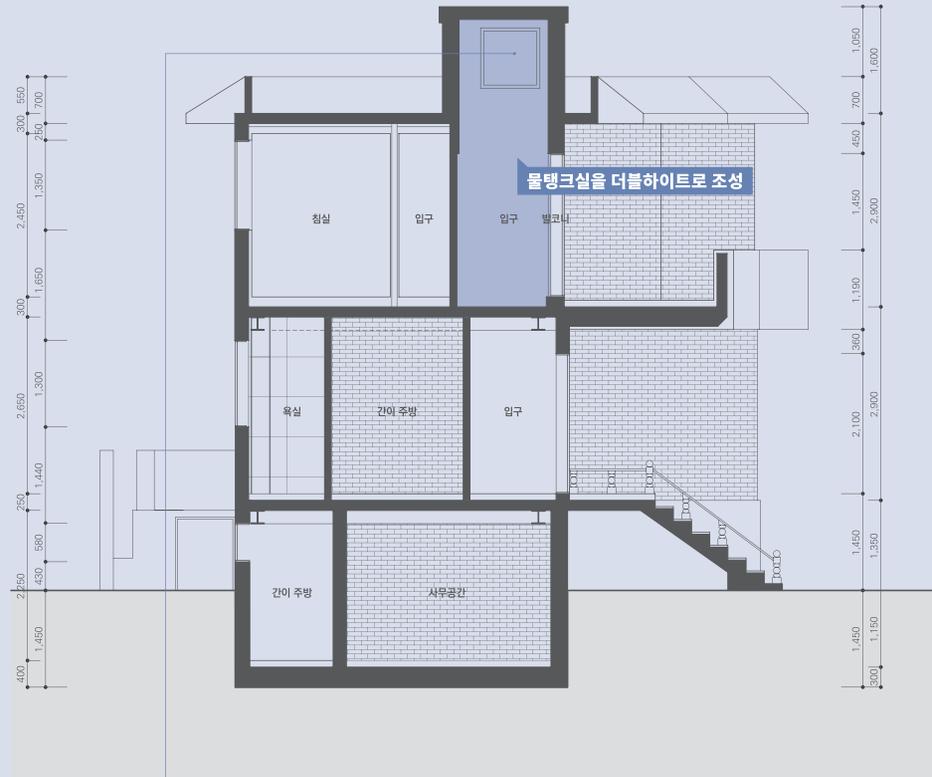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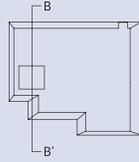
라왕합판이 있던 흔적 보전



0 1 2 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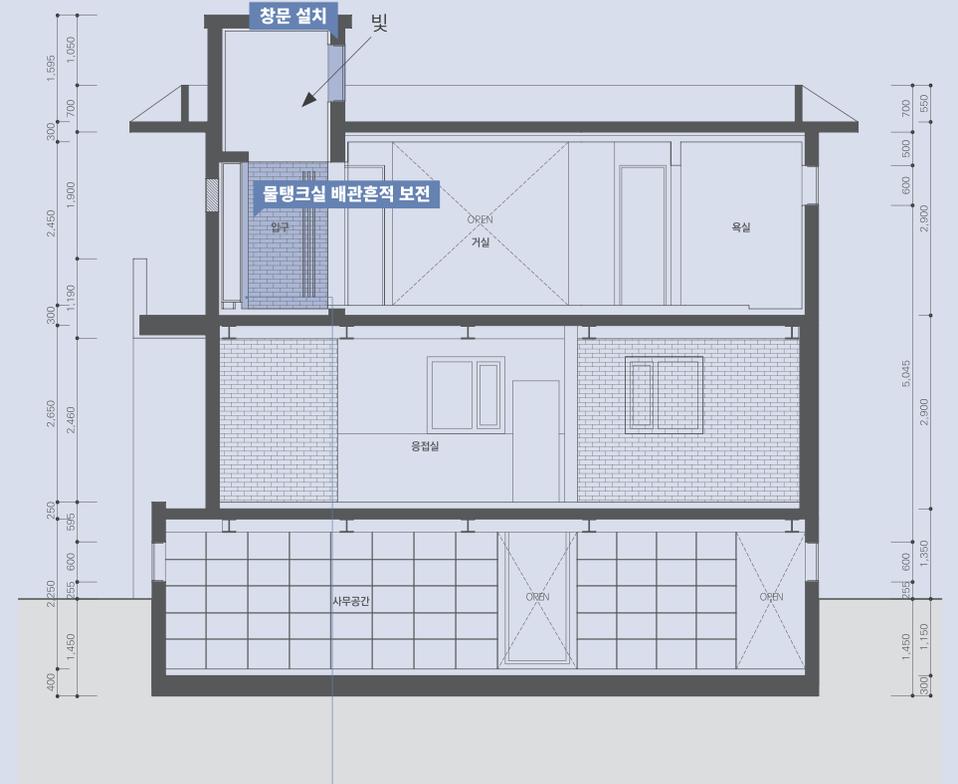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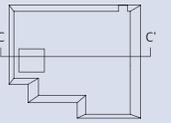
벽감으로 활용했던 흔적과 불법확장의 흔적 철거



물탱크실 바닥을 철거하여 2층 주택의 현관을 더블하이트로 조성



© 배지훈



물탱크실의 배관흔적 보전



기존 물탱크실의 바닥을 절개한 후 창문을 설치하여 2층 주택 현관에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

04 기존 도시조직 안에서 점진적인 변화를 꿈꾸다

구의살롱의 운영현황, 앞으로의 계획

현재 구의살롱의 반지하층과 1층은 에스티피엠제이 건축사사무소의 업무공간으로, 2층은 이승택 소장의 주거공간으로 사용 중이다. 반지하층은 건축사사무소의 주된 작업공간이며, 1층 응접실은 건축사사무소의 회의공간으로 사용 중이다. 응접실은 이승택 소장이 계획했던 대로 업무와 주거 프로그램 사이에서 의뢰인과의 미팅, 내부회의, 모형 전시, 직원들의 휴식공간, 가족들의 모임 등 사용자들의 다양한 행위를 담는 공간으로 사용된다.

구의살롱 뒤쪽이 재개발되면서 8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지역과 커뮤니티 단위의 작은 가게가 두 곳 정도 있어 처음에는 구의살롱을 상업적인 공간으로 제안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사무소 운영을 위해 반지하층과 1층 연결동선의 경우 카페와 베이커리가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바리스타 공간과 베이커리 공간으로 동선의 분리가 가능했다. 계단의 폭이 80cm 정도라 필요하지 않을 경우 계단을 없애도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1층은 최대한 비워낸 자유로운 평면 구조이기 때문에 구획이나 레이아웃의 제약을 받지 않아서 장기적으로 이 동네에 맞는 다른 상업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다.

구의살롱이 위치한 구의2동은 아차산역 주변과 사거리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다. 최근에는 상업시설이 주거 밀집지역으로 확장되고 있어, 다세대주택 1층을 상업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구의2동은 주택수요가 크지 않고 역세권이거나 큰 회사가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원주민이 터 잡고 사는 동네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구의살롱 1층은 아차산역의 상업시설 수요를 받는 곳이 될 수 있다. 이승택 소장은 원래의 도시조직 안에서 점진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용도가 상업시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의살롱 역시 사용자가 바뀌더라도 또 다른 상업시설로 채워질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광주 예술공간 집

광주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예술공간 집'은 1967년도에 지어진 5칸 규모의 일(-)자형 한옥으로, 소유주이자 운영자인 문희영 대표가 중학교 2학년 시절부터 약 10년간 거주했던 주택이다. 미술을 전공하고 큐레이터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2017년, 주택을 '예술공간 집'이라는 이름의 작은 갤러리로 리모델링하여 개관하였다. '예술공간 집'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어린이 아트클래스를 운영하든 등 작지만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문화·예술공간이다.

3

- 01 어릴 적 살던 한옥, 갤러리가 되다
- 02 집의 기억을 남기다
- 03 작품 전시를 위해 공간 활용을 고민하다
- 04 오래된 작품을 꺼내어 전시하다

광주 예술공간 집
Art Space House in Gwangju

위치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58번길 11-5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건축면적 71.06㎡
연면적 71.06㎡
층수 지상1층
구조 목조
용도 주택 → 갤러리 겸 휴게음식점



이 어릴 적 살던 한옥, 갤러리가 되다

‘예술공간 집’으로 보전·활용되고 있는 한옥은 문희영 대표가 중학교 2학년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 약 10년간 거주했던 집이다. 1967년에 지어진 5칸의 일(-)자형 한옥은 그의 어머니께서 생애 처음으로 장만했던 집으로 1997년까지 이 집에 거주했고, 이후에는 세입자를 들여 주택으로 계속 사용하였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약 10년간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 근무해온 문희영 대표는 결혼 후 두 아이를 양육하면서 큐레이터로 활동하기가 어려워졌다. 이후 다시 큐레이터로 근무하면서 시간을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직장을 고민하던 중에 어릴 적 살던 한옥을 리모델링하여 소규모 갤러리로 개관하게 되었다. 예술공간 집이 위치한 광주 동구 장동 일대에는 오래된 건축물을 보전·활용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공간 집이 특별한 이유는 실제 거주했던 사람이 한옥의 가치를 인식하고 직접 보전·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갤러리로 보전·활용 중인 예술공간 집 모습

02 집의 기억을 남기다

문희영 대표는 리모델링을 계획하면서 한옥에 담긴 가족들과의 추억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그에게 이 한옥은 큐레이터로서 꿈을 키워온 공간이다. 이 집에 거주하면서 미술대학 진학을 결심하고 매진했던 입시 준비, 부모님의 반대에 맞서 다투던 지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인터뷰 당시 전했다.



© 문희영



© 문희영



© 문희영

학창시절 문희영 대표와 한옥의 모습

과거 한옥에는 목직인 목재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작은 마당과 어머니께서 소중히 가꾸은 정원이 마당 한 켠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한옥은 5칸의 일(-)자 한옥으로 전면에는 미닫이문이 설치되어 있었고, 왼쪽 끝부터 차례로 세 칸은 문희영 대표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공간, 나머지 두 칸은 세입자를 들여 세를 받는 공간으로 사용했다.



© 문희영



© 문희영

리모델링 전 대문에서 마당을(上), 마당에서 대문을(下) 바라본 모습

분리된 출입구

이 집에서 생활할 때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세입자의 가족구성에 따라 변화되는 집의 모습이었다. 부모님께서 거주 공간 일부에 세를 놓았기 때문에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문 대표의 가족들이 사용하는 공간 배치도 조금씩 달라졌다.

처음 이 집에 이사왔을 때에는 중간에 가장 큰 방인 안방을 기준으로 왼쪽 옆 두 개의 작은방은 문 대표와 형제들이 사용했고, 오른쪽 옆 두 칸을 각각의 세입자가 사용하였다. 마당에는 재래식 화장실, 연탄창고, 세탁실이 있었다. 당시 문 대표의 가족들과 안방과 접해 있던 방의 세입자는 마루를 함께 공유하여 출입하였고, 가장 끝 방에 거주한 세입자는 따로 분리된 출입구를 사용하였다. 시간이 지나 화장실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형제들이 함께 사용하던 방은 현대식 주방 겸 식당으로 바뀌었다. 생활의 변화에 따라 공간도 같이 변해왔지만, 대문 가까이 있던 방의 독립된 출입구는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문희영 대표는 주택으로 사용하던 당시의 집 형태와 어릴 적 기억을 남기기 위해 세입자 가족들이 사용했던 분리된 출입 동선을 그대로 두어 사무공간과 전시공간의 보행 동선을 분리하였다. 문 대표와 가족들이 사용했던 주출입구는 전시장 입구로 사용하고, 세입자 전용 출입구는 문 대표가 사무실 겸 작품보관실로 접근하는 출입구로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다.



과거 안방으로 쓰였던 공간과 세입자 공간 및 부엌



갤러리와 사무실로 변경된 안방과 세입자 공간 및 부엌

대문과 작은 정원

문희영 대표는 한옥 건축물뿐만 아니라 외부 공간에 대한 보전도 함께 고민하였다. 그중 하나인 목재 대문은 정기적으로 가족들이 함께 페인트로 덧칠했던 추억이 있어, 이번에도 페인트만 새로 덧칠해 형태를 보전하기로 결정하였다. 갤러리라는 용도 특성상 큰 회화작품이나 조각 예술품을 갤러리 안으로 들이기 위해서는 출입구가 넓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문희영 대표는 관람객들이 대문을 통해 갤러리로 들어서면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듯한 편안한 느낌을 주고 싶어, 기존의 대문을 보전하였다. 또한 현재 마당에 심어져 있는 비파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과거 완도에서 교편생활을 하던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보낸 묘목을 어머니가 정성으로 가꾼 것이다. 갤러리에서 야외 아트워크를 진행하기 위해 화단의 형태를 변경하였지만, 가족들의 추억이 담겨있는 화단의 수목들은 그대로 남겨두어 문희영 대표의 기억과 함께 자라나고 있다.



기존 대문의 모습, 리모델링 이전 페인트칠이 되어있는 나무 대문, 리모델링 후 현재의 대문



과거 화단 모습(上), 리모델링 후에도 보전된 비파나무와 무화과나무(下)

03 작품 전시를 위해 공간 활용을 고민하다

예술공간 집은 2017년 6월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여 11월에 개관했다. 문희영 대표는 한옥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공간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재들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한옥의 외관과 목구조는 최대한 보존되었다. 하지만, 내부 공간은 주거 용도가 아닌 작품을 감상하는 전시공간으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많은 변화가 필요했다. 지붕은 2007년 주택으로 사용될 당시, 양철지붕으로 교체한 적이 있어 지붕 수리 비용은 줄일 수 있었지만, 교체 전 기와지붕이 주던 한옥의 멋이 사라져 아쉬움이 있었다.



양철지붕으로 교체된 지붕 모습



전시공간 마련하기

한옥을 전시공간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관람객들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부공간을 최대한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마루를 뜯어내어 층고를 확보하고, 외관을 유리 벽으로 교체하여 시야를 확보하였다. 또한 공간감을 넓히기 위해 천장의 반자를 털어내어 한옥의 지붕구조를 그대로 드러내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 문희영



© 문희영

시야 확보 및 개방감을 주기 위해 마루와 천장을 해체한 모습

리모델링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에서는 주택 내부를 구획하여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문희영 대표는 개인전을 할 수 있도록 작품을 설치할 수 있는 벽체를 마련하되 최대한 개방감을 줄 수 있는 공간을 원했다. 공사과정에서 관람자의 시야 확보와 작품 설치를 위해 공간 구획을 여러 차례 수정하였다.



리모델링 후 전시공간 주출입구 모습



리모델링 후 전시공간에서 주출입구를 바라본 모습

가능하면 많은 수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기존 한옥의 마루 검 복 도와 면하는 벽체는 남겨 두고, 건축물 외벽을 통유리로 교체하여 마 당에서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마당에서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외벽을 유리로 마감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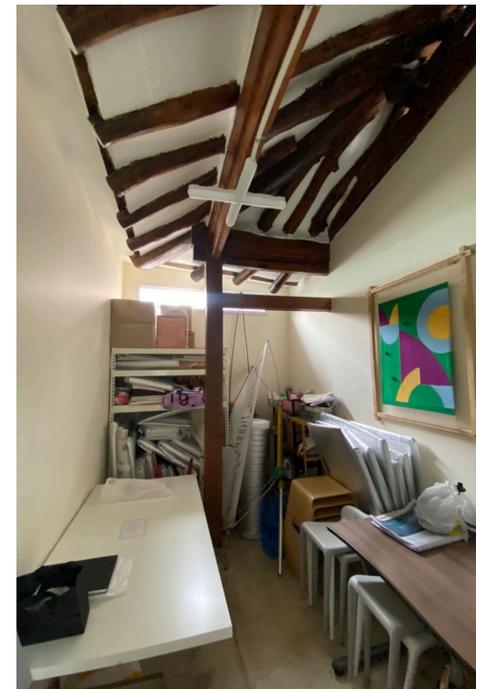
**그 외
부속공간
마련하기**

문희영 대표는 한옥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한 후 사용승인 및 용도변경 등의 과정을 진행하였다. 예술공간 집의 현재 용도는 휴게음식점으로 마당 끝에 위치한 창고를 개조하여 카페로 활용하고 있다.



과거 연탄창고 및 세탁실로 사용되었던 마당 창고(上)를 개조한 카페(下)

이 외에도 작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작품보관실과 좌대 등 전시에 필요한 집기들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마련하기 위해 한옥과 담장 사이공간을 활용하여 공간을 확보하였다. 또한 전시가 진행되는 동안 작가들이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는 응접실이 필요한데, 한옥 공간이 협소하여 사무실과 마당에 테이블을 설치하여 응접실로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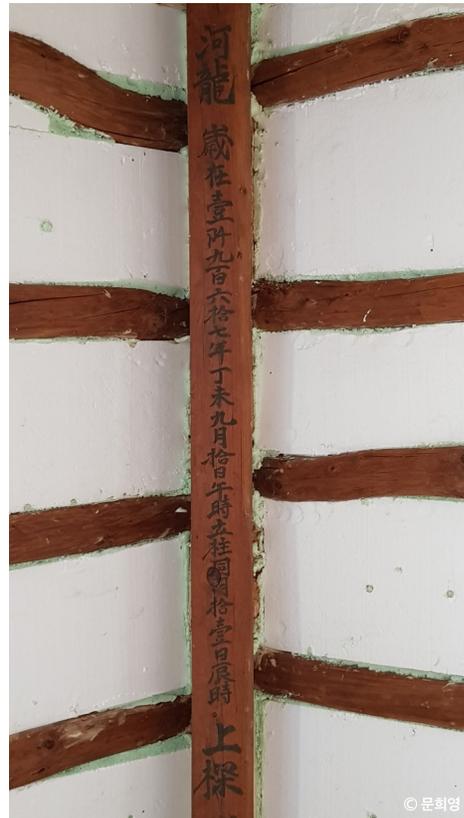


문희영 대표의 사무실 겸 응접실(左) 및 작품보관실(右)

한옥의 원형 보전하기

리모델링을 담당한 업체에서는 처음 공사 기간을 두 달 정도로 예상하였는데, 공사가 시작되고 난 후 한옥의 구조체가 예상했던 것보다 낡아서 기간이 길어졌다. 그에 따라 예산 또한 초과하였지만, 문희영 대표는 한옥의 원형을 변형시키지 않고 보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천정을 올려다보면 1967년에 이 집이 지어질 때 쓰인 상량문을 볼 수 있다. 이 상량문은 전시공간의 층고를 높이기 위해 기존 한옥의 천장 마감재를 제거하면서 드러난 것이다. 문희영 대표는 감추어져 있던 상량문을 본 후 천장을 별도로 마감하지 않고 그대로 노출시켜 관람객이 지붕 목구조와 부재 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계획을 조정하였다.



상량문



© 문희영

한옥의 초석 또한 리모델링 공사 중 깨진 하나의 초석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초석을 그대로 보전하였다. 문희영 대표는 기존의 초석과 교체된 초석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존의 각진 모양과 달리 둥근 모양의 초석으로 교체하였다.

이 외에도 오랜 시간을 버텨온 틀어진 창방과 창틀, 바닥, 타일과 곳곳에 남아 있는 장식들을 그대로 보전하였다.



기존의 각진 초석(左)과 교체된 둥근 모양의 초석(右)



기존의 바닥과 창틀 장식을 그대로 보전한 모습



기존 벽체 또한 전시공간으로 기능하기 위해 다수의 벽체를 철거하였지만, 한옥의 구조체를 그대로 보전하고 노출하였다. 다만, 철거 과정에서 흙벽을 제거하고 보니 나무 기둥이 썩어 있어 기존 기둥을 모두 철거한 후 동일한 위치에 철골로 기둥을 세운 후 목재 합판으로 기둥을 감싸 목재기둥처럼 보일 수 있도록 하였다. 내부 기둥은 썩어서 교체할 수밖에 없었지만, 외부에 있는 기둥들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존 목재기둥 철거 후 철골로 기둥을 세운 후 목재합판으로 덧댄 모습

외부공간의 변화

예술공간 집은 전남여자고등학교 정문과 마주한 골목길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다. 자칫 지나치기 쉬운 좁은 길에 들어서면 예술공간 집의 유리창으로 된 대문부와 철제 간판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리모델링 당시 기존 담장을 철거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에 따라 콘크리트 벽체를 철거한 후 유리창을 설치하고, 과거 한옥에 있었던 한식 창틀을 옮겨와 설치하였다.



과거 담장 외부 공간(左)과 리모델링 후 모습(右)





© 여인우



© 여인우

예술공간 집 입구과 골목길의 풍경

문희영 대표는 예술공간 집의 마당 공간을 어린이 아트클래스 등 외부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하면서 공간확보를 위해 화단을 정비하였다. 거주 당시 문 대표의 아버지가 심으신 비파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제외하고는 초화류와 화단 경계석을 제거한 후 정돈된 형태의 화단으로 재조성하고 현무암으로 마당 바닥을 마감하였다.



© 문희영

과거 화단현황과 공사과정



© 문희영



예술공간 집 마당의 모습



예술공간 집 마당에서 어린이 아트클래스를 진행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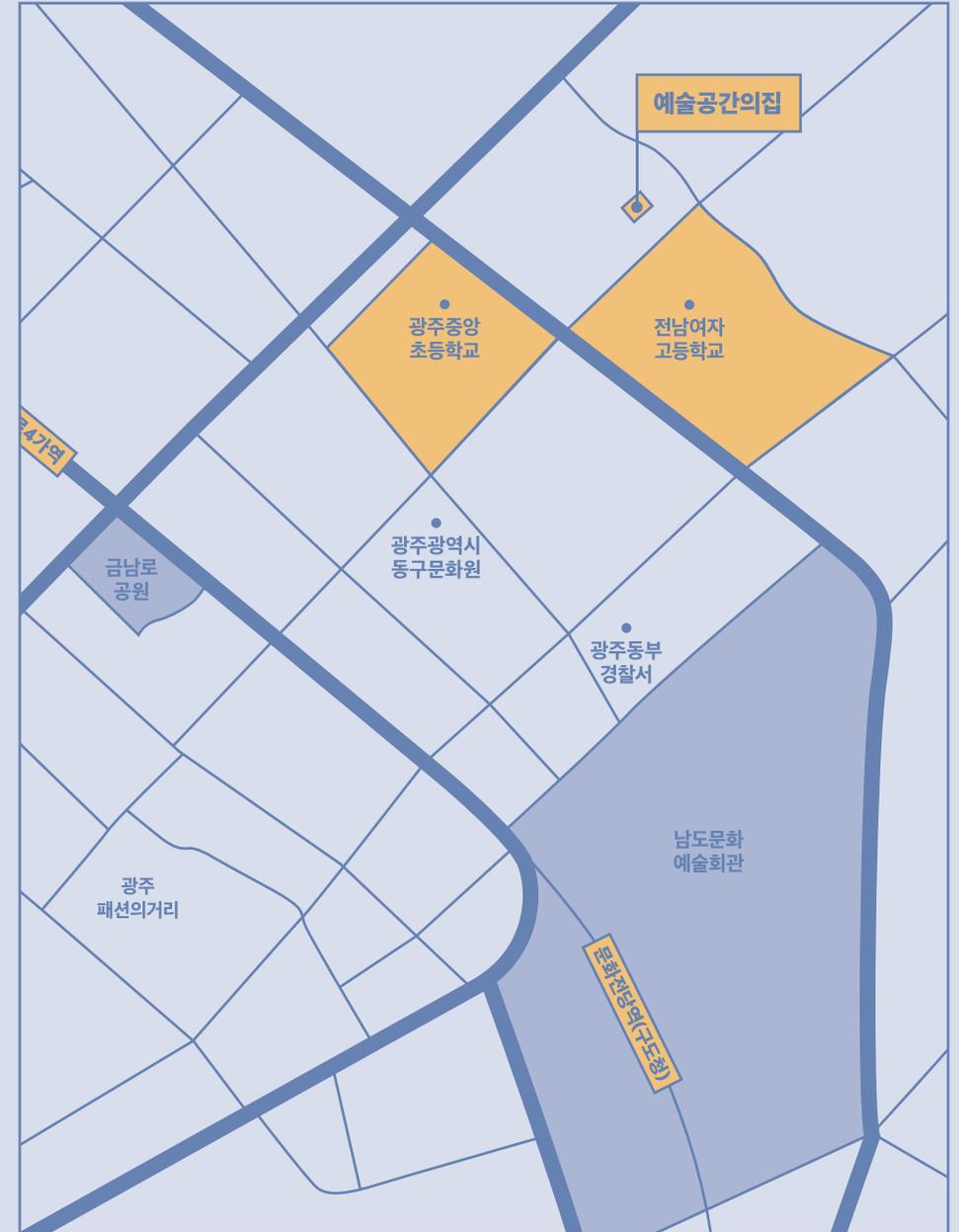


©문화영

위치도

광주 예술공간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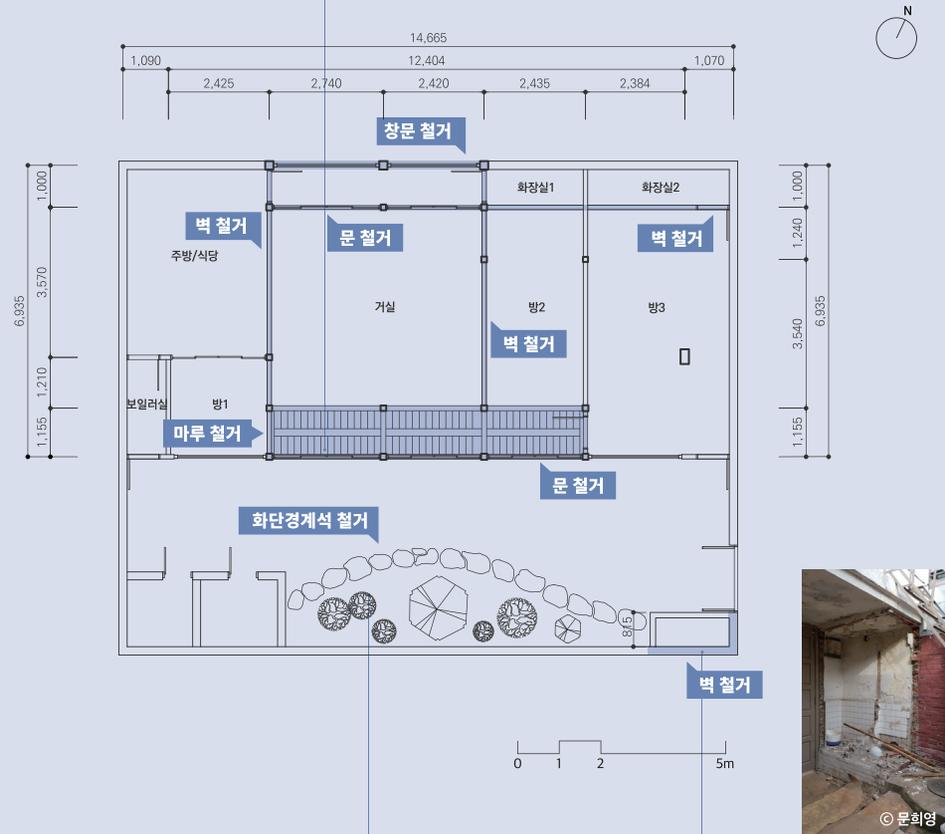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158번길 11-5



리모델링 전 평면도



마루 철거



기존 화단 현황(左) 및 공사 중인 화단의 모습(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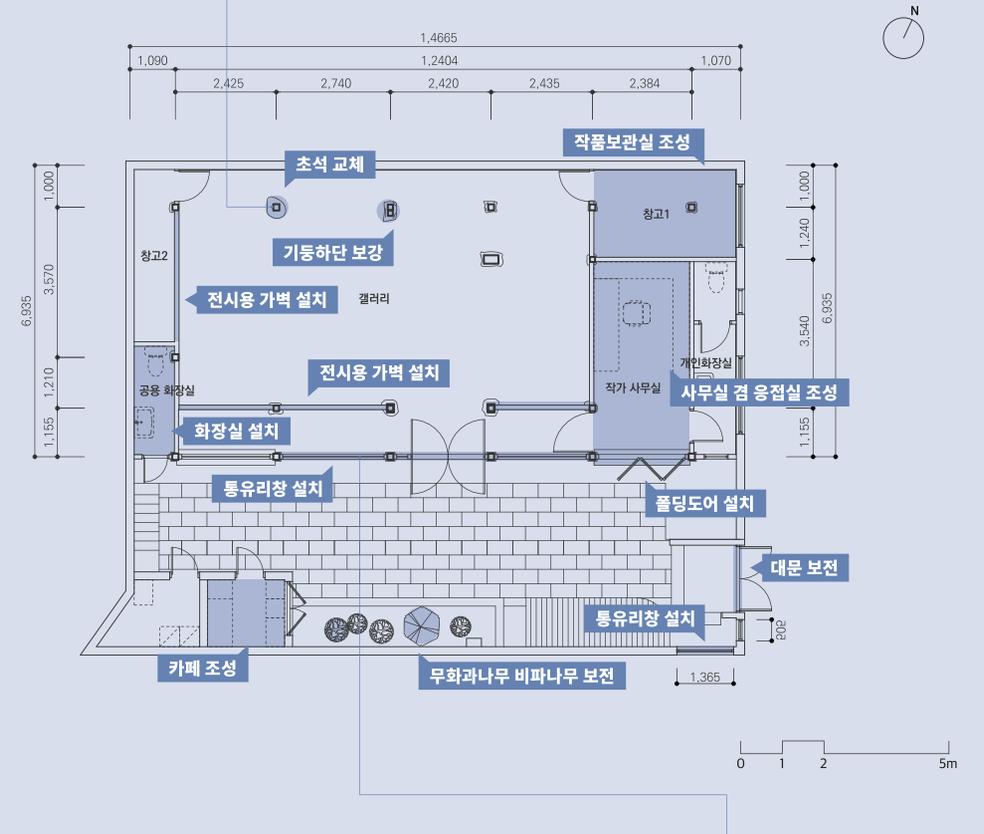


재래식 화장실로 막혀있는 대문 측면 벽

리모델링 후 평면도



기존 각진 초석과 교체된 둥근 초석



마당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유리로 마감



©여인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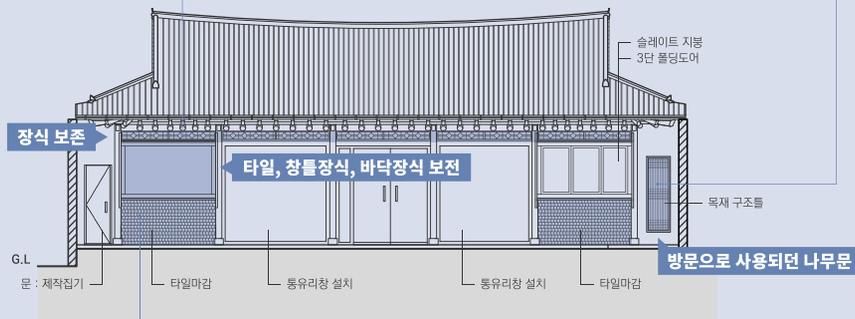
리모델링 후 정면도



기존 한옥의 장식 보전



기존 방문으로 사용되던 나무문을 옮겨와 픽스유리 창 사이에 끼워 재사용



타일, 창틀장식, 바닥장식 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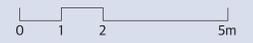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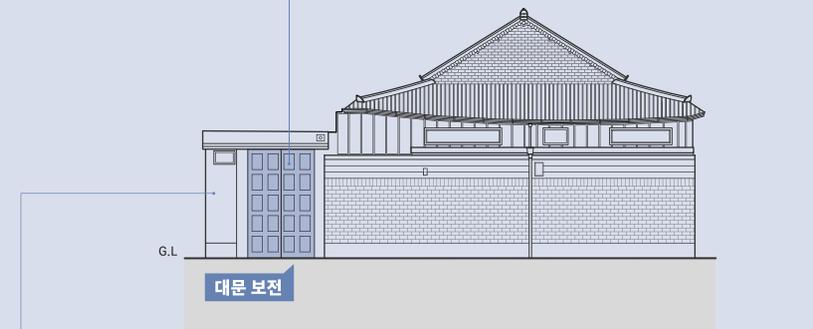
리모델링 후 측면도



기존 대문 도색만 하여 사용



예술공간 집 간판



측면 통유리창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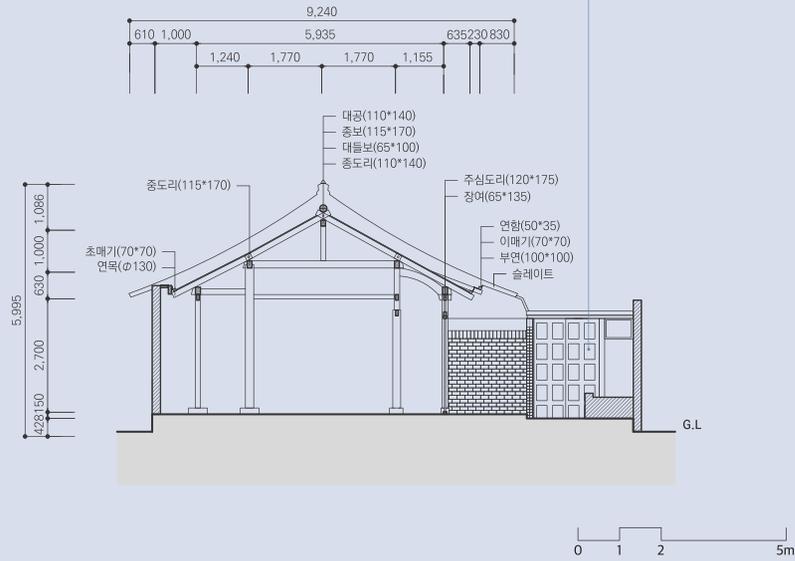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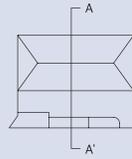


주택으로 사용할 당시 마을 공동으로 교체했던 양철지붕(세와)

리모델링 후
A-A' 종단면도



마당에서 바라 본 대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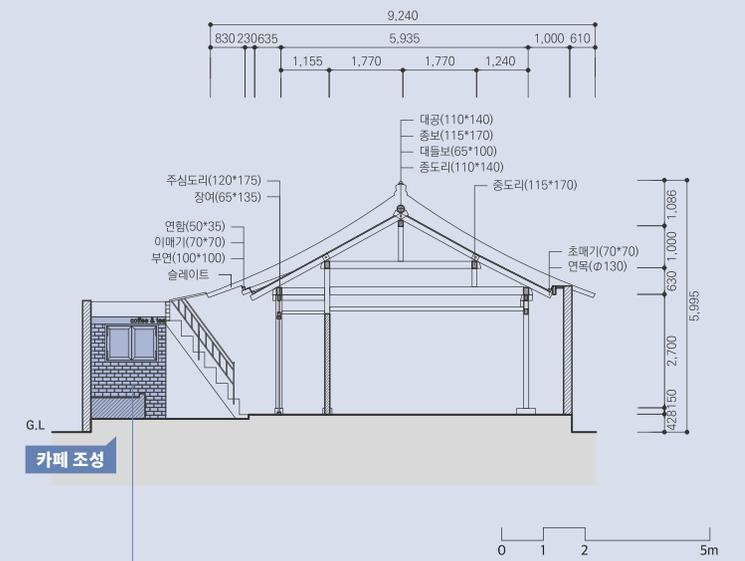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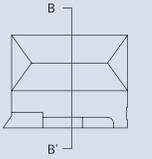


기존 한옥의 목구조 보전



©여인우

리모델링 후
B-B' 종단면도



기존 연탄창고를 카페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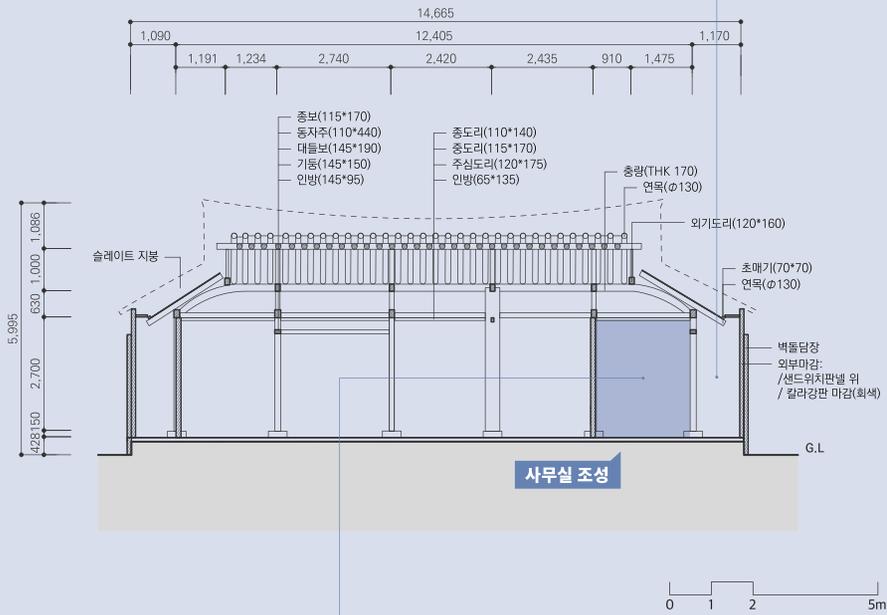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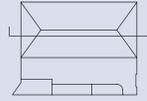


연탄창고 위에서 바라본 예술공간 집 전경

리모델링 후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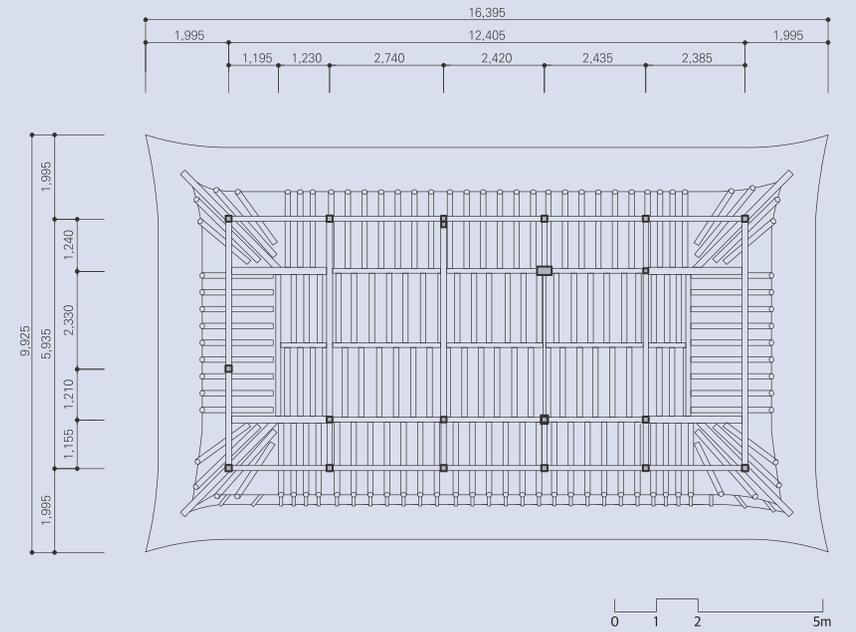


사무실 뒤 작품보관실



큐레이터 사무실 겸 작가 응접실로 사용

리모델링 후
양시도



상량문



예술공간 집 지붕구조

04 오래된 작품들을 꺼내어 전시하다

한옥을 갤러리로 리모델링하면서 마당 한켠에 폐자재가 쌓여있는 모습을 본 문희영 대표는 전시되지 못하고 창고에 있는 작가들의 오래된 작품들을 떠올렸다. 고민 끝에 예술공간 집 개관 기념전으로 현재 활발하게 작품 활동 중인 작가들의 초창기 작품을 내보이는 전시를 기획하였다. 2017년 11월 30일에 시작되어 12월 31일에 종료된 예술공간 집 개관 기념전 <다시 호흡하는 시간>은 조병철 작가의 「봄손님1991」, 박일주 작가의 「동명동 철길집1992」, 공성훈 작가의 「먼지그림-나무1996」, 정선희 작가의 「삶 속에서 새벽을 열다2001」 등 중견 작가들의 젊은 시절 순수와 패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작품이 전시되었다.⁵

첫 전시를 시작으로 문희영 대표는 오래된 집과 새롭게 조성된 갤러리의 관계를 모티브로 전시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다. 20대, 30대 신진 작가들의 작품과 중견 이상 작가들의 옛 작품을 연계하여 전시하는 등 예술공간 집의 정체성과 전시 콘텐츠를 연결 짓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5 예술공간 집 개관 기념전 리플렛에서 인용



예술공간 집 개관 기념전



예술공간 집 전시 모습





예술공간 집 전시 진행 모습

INTERVIEW

50년 된 집의 시간을 들추고 삶의 흔적들을 다듬어
예술공간이 된 집의 첫 전시 <다시 호흡하는 시간>에서는
오래된 집처럼 조금은 지난 시간의 작품들을 들춰냈다.

예술공간 집 개관 기념전 리플렛의
문희영 큐레이터의 인사말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

예술공간 집은 한 해 평균 14번의 전시를 개최하는데, 그 중 기획전을 3차례 개최한다. 운영은 대관 비용, 작품 판매 수수료, 문희영 대표가 운영하는 세미나 강연비 등으로 이루어진다. 기획전은 대부분 기금을 받아서 개최하는 경우가 많다. 초대전 등에 의해 발생하는 수입으로는 갤러리 운영 및 기획전 개최가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예술공간 집은 주로 회화와 사진 작품을 전시하고 있지만, 건축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조각 작품 또한 전시가 가능하다.

새로 짓기보다 오래된 한옥을 보전·활용해서 좋은 점은, 예술을 접하는 진입장벽을 낮춰 지역 주민들이 쉽게 찾아와 편안하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술관 이름을 ‘예술공간 집’으로 지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예술공간 집은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비교적 동네 어르신들이 자주 방문하시는데, 그들에게 한옥은 추억의 공간으로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실제로 그들이 어린 시절에 살았던 집과 전시공간이 비슷해서 매우 좋다고 말하는 관람객이 많다. 작품보다 집을 먼저 보는 바람에 작가들이 서운해한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다. 문희영 대표도 이러한 예술공간 집의 매력과 분위기에 어울리는 작품들을 전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문희영 대표는 예술공간 집이 위치한 광주의 옛 모습이 담긴 그림과 사진을 수집하여 <광주의 추억> 시리즈 전시를 열었다. 이 전시는 광주문화재단으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아 개최되었다. 이처럼 예술공간 집은 지역의 기록들을 수집하여 예술작품과 함께 보여줌으로써 지역주민이 친숙하게 향유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트클래스, 공연, 방송촬영 등 다양한 용도로 유연하게 활용되는 예술공간 집

제주 순아커피

제주의 대표적인 원도심인 삼도동에 위치한 순아커피는 1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일본식 목조 주택으로 다다미와 도코노마가 보전된 것이 특징이다. '순아'는 예전의 집주인 할머니의 성함으로 일제 강점기, 한국전쟁, 제주 4·3 사건을 모두 겪은 할머니를 기억하기 위해 기존의 주택을 최대한 보전하고, 이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순아커피'로 이름 지어 운영하고 있다.

4

- 01 순아할망을 기억하다
- 02 오래된 주택의 가치를 알아보다
- 03 가족의 역사를 담다
- 04 공간에 담긴 이야기를 이어가다



고려인삼홍삼도소매
 錦山高麗人蔘紅蔘都小賣 T.756-7589

SOO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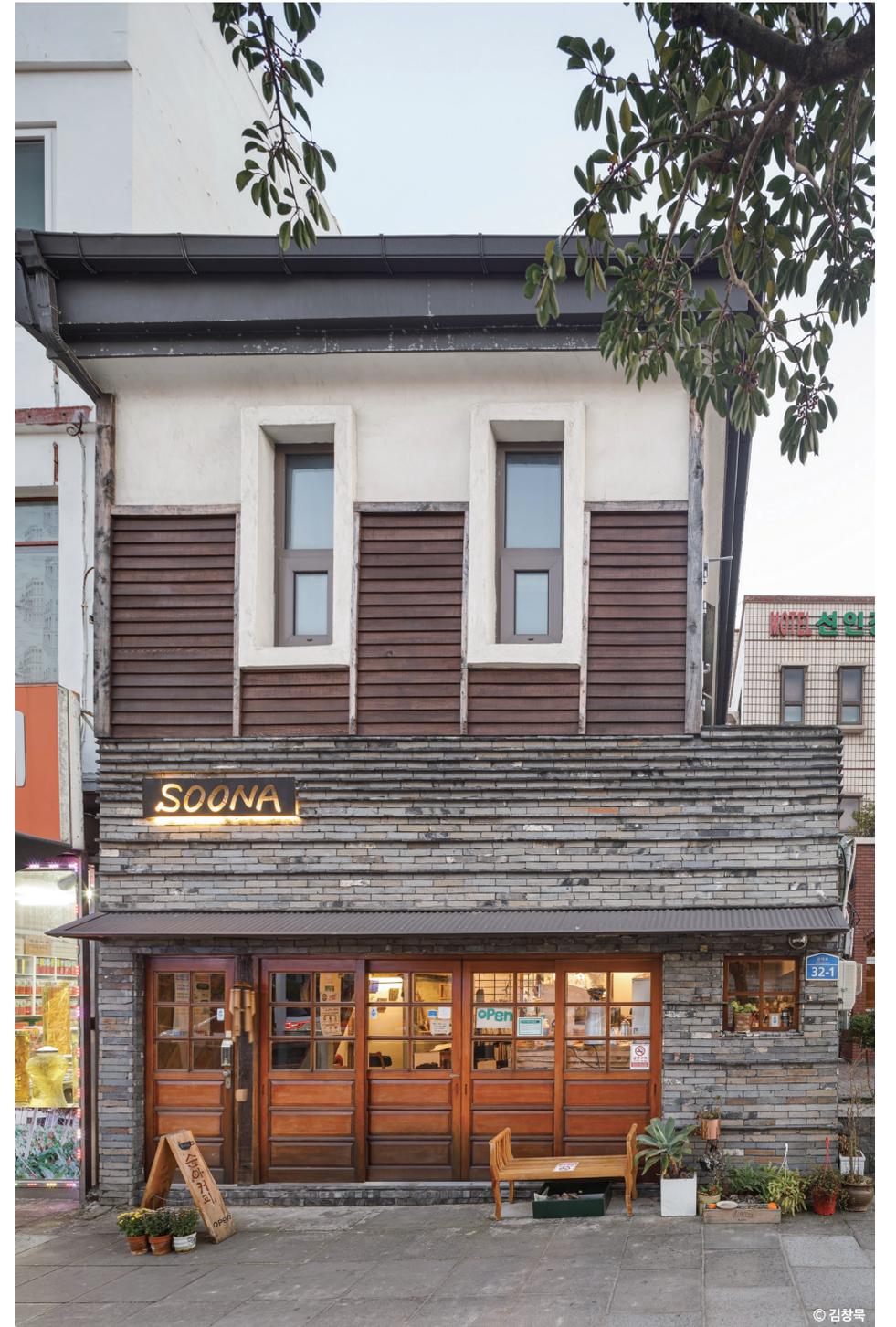
순아커피
 Soona Coffee in Jeju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 32-1
지역·지구	상업지역
건축면적	41.32㎡
대지면적	43㎡
층수	지상2층
구조	목조
용도	주택 → 카페

이 순아할망을 기억하다

제주목관아(濟州牧官衙)가 위치한 제주의 대표적인 원도심에 작은 카페 ‘순아커피’가 자리한다. 어렵게 장만한 집을 가족들에게 선물하고 별세하신 순아할망(할머니의 제주도 방언)을 기억하기 위해, 할머니 이름으로 카페 이름을 지었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집을 카페로 리모델링하여 보전·활용한 사례다.

순아할망은 한국에서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제주 4·3 사건을 모두 겪은 후 1950년대에 가족들과 일본으로 건너가 타향에서 생업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일본에서 순아할망은 자식들을 성공시킬 만큼 부를 얻었지만, 고향인 제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순아할망과 가족들이 제주로 돌아와 마련한 2층 목조주택이 지금의 순아커피다. 이 주택은 순아할망이 거주한 이래로 동서 숙림할망 부부와 세 아들이 이어 살았다. 1층은 동네 점방인 숙림상회와 다섯 식구의 살림집으로, 2층은 세를 놓아 다섯 식구가 거주하였다. 2016년, 숙림상회가 태풍으로 피해를 입고 숙림할망 부부가 연로하여, 가게를 운영하기 어려워지자 삼 형제 중 첫째아들 부부가 이 주택을 보전·활용하여 카페로 운영하게 되었다.



제주 원도심에 자리한 순아커피의 모습

02 오래된 주택의 가치를 알아보기

2016년 10월 제주도 부근 해상으로 근접한 태풍 차바Chaba의 영향으로 숙림상회 2층의 서측 벽이 무너져내렸다. 오랜 기간 이 자리에서 동네 점방店房인 숙림상회를 운영해온 숙림할망 부부는 무너진 벽면을 수선하기에는 건축물이 너무 낡고 오래되었다고 판단했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카페로 신축하기로 결정한 숙림할망 부부는 태풍과 폭우로 망가진 가재도구들을 집 밖으로 옮기고 있었다. 마침 숙림상회 단골 손님이자 근처에서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권정우 소장^{탐라지역건축사사무소}이 가게 앞을 지나는 길에 이 모습을 발견하고는 자초지종을 물었다. 철거를 위해 대부분의 세간을 정리했다고 하자, 권 소장은 평소에 올라가 보지 못했던 2층을 구경할 수 있냐고 물었고, 숙림할망이 흔쾌히 허락했다. 오랜 시간 이 집에 거주하며 가게를 운영해온 노부부에게는 낡고 불편한 주택에 불과했지만, 권 소장의 눈에는 숙림할망과 가족들의 역사가 담긴 박물관처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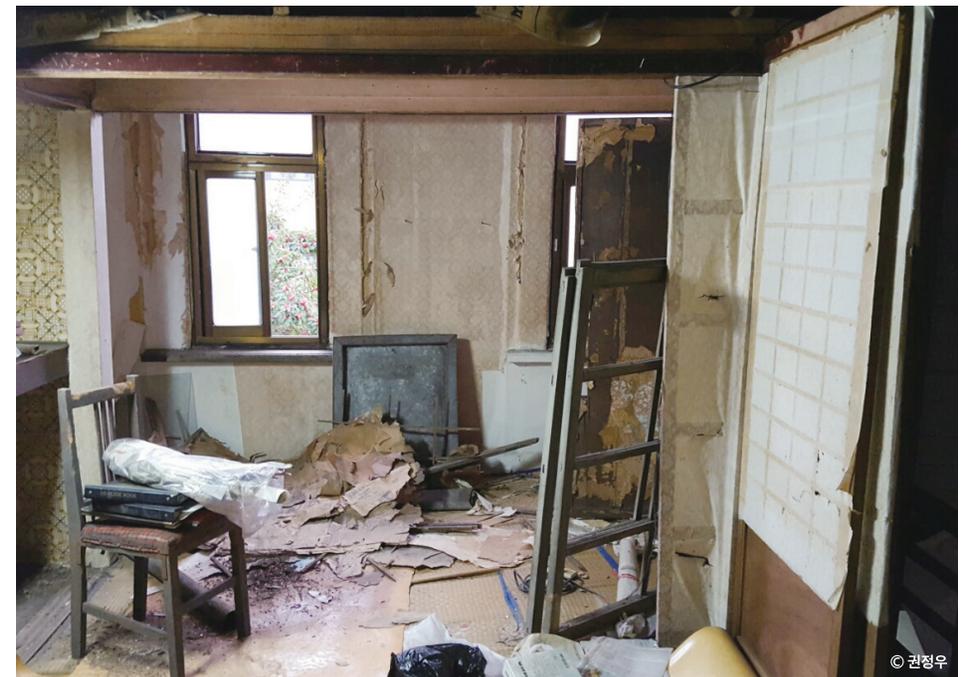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외벽이 날아간 모습

권정우 소장이 무너진 측벽 사이로 드러난 주택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니 벽체는 대나무를 엮어 흙으로 만든 심벽으로 일제강점기 일본 목수가 지은 것으로 추측되었다. 주택의 정확한 건립 연도는 알 수 없었지만, 비바람에 뜯겨나간 벽지 가장 안쪽에서 발견된 약 100년 전 신문지에서 주택의 나이를 가늠할 수 있었다. 과거에는 도배공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신문에 풀을 먹여 먼저 벽에 붙이고 그 위에 벽지를 발랐는데, 그때 사용된 신문일 것이라고 권정우 소장은 추측했다. 이 외에도 일식 주택의 전형인 다다미⁶, 도쿄노마⁷가 온전히 남아 있어 철거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건축물이었다. 보존·활용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한 권정우 소장은 숙립할망 부부와 세 아들을 설득하였고, 결국 소유주는 기존 주택을 카페로 보존·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6 마루방에 까는 일본식 돛자리. 속에 짙을 5cm가량의 두께로 넣고, 위에 돛자리를 씌워 꿰맨 것으로, 보통 너비 석 자에 길이 여섯 자 정도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든다.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 7 일본식 방의 상좌(上座)에 바닥을 한층 높게 만든 곳으로 벽에는 족자를 걸고 바닥에는 꽃이나 장식물을 꾸며놓는다. 보통 객실에 꾸민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리모델링 이전의 2층 도쿄노마와 장식용 선반 모습



리모델링 이전의 2층 주거공간의 모습



벽지를 붙이기 위해 사용했던 옛 신문의 흔적



벽지 가장 안쪽에 붙어있던 옛날 신문



리모델링 전 1층 숙림상회 모습



리모델링 전 1층 숙림상회 내부 주거공간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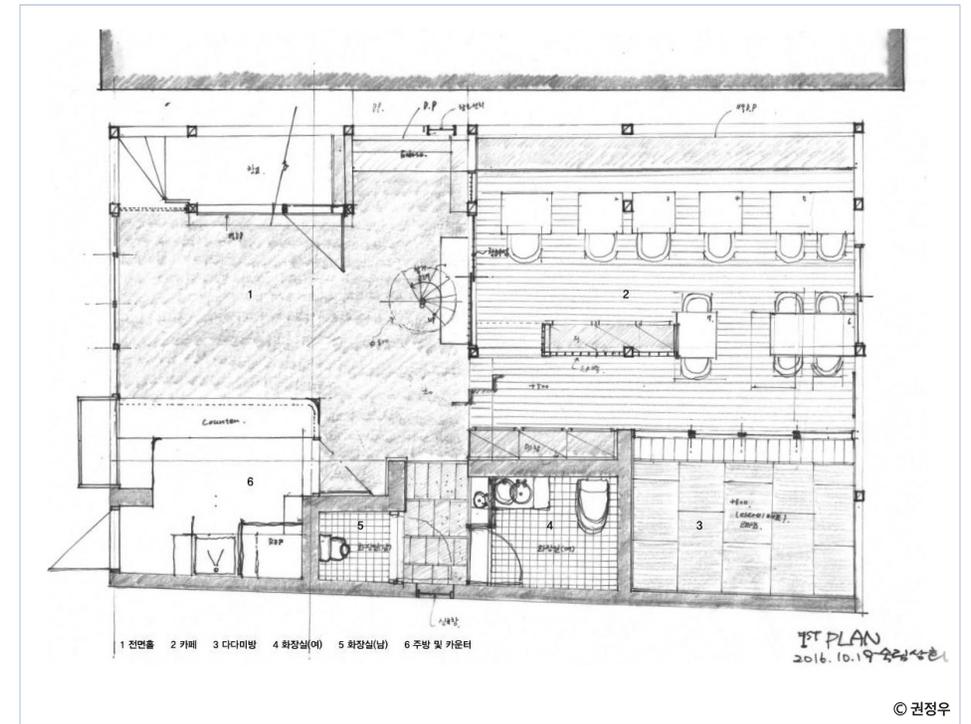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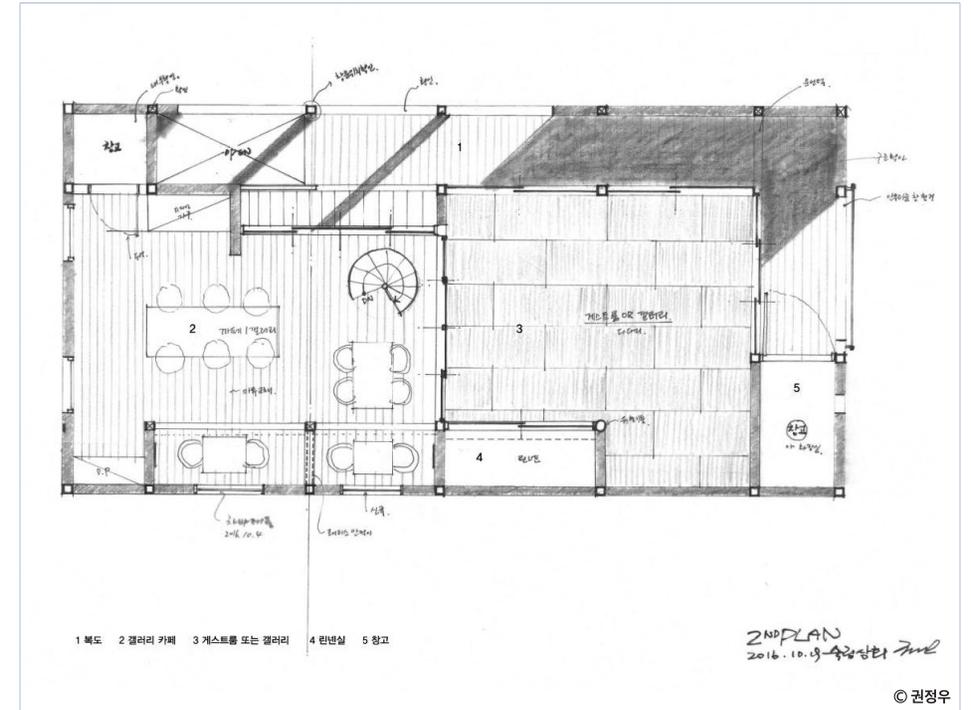
집의 기억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다

처음에 계획했던 순아커피는 아카이빙 카페였다. 권 소장이 처음 숙림 상회를 방문했던 날, 방 바닥에 집주인이 버려놓은 일본어 사전과 책, 오래된 일기장, 매주 성당에서 받아온 주보, 쌓여있는 액자와 사진, 현상하지 않은 카메라 필름 등을 모티브로 이 집과 가족들의 역사를 전시하는 카페를 꿈꾸었다. 특히 제주도 사진작가협회 초대 회원이었던 할아버지만 아니라, 아마추어 사진작가로 활동해온 첫째아들의 사진 중에서 제주의 원도심과 자연이 담긴 사진들이 카페의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집주인 할아버지가 본인의 살림살이를 전시하는 게 부끄러웠는지 재차 거절하여 초반에 기획했던 아카이빙의 성격은 많이 줄었고, 현재는 약간의 살림살이와 사진만이 카페에 전시되어 있다.

1층 카페 공간 벽면에 걸려있는 흑백사진은 첫째아들이 대학 시절 처음으로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이다.



첫째 아들이 대학 시절 찍은 사진이 전시된 카페 벽체



순아커피 초기 계획안

© 권정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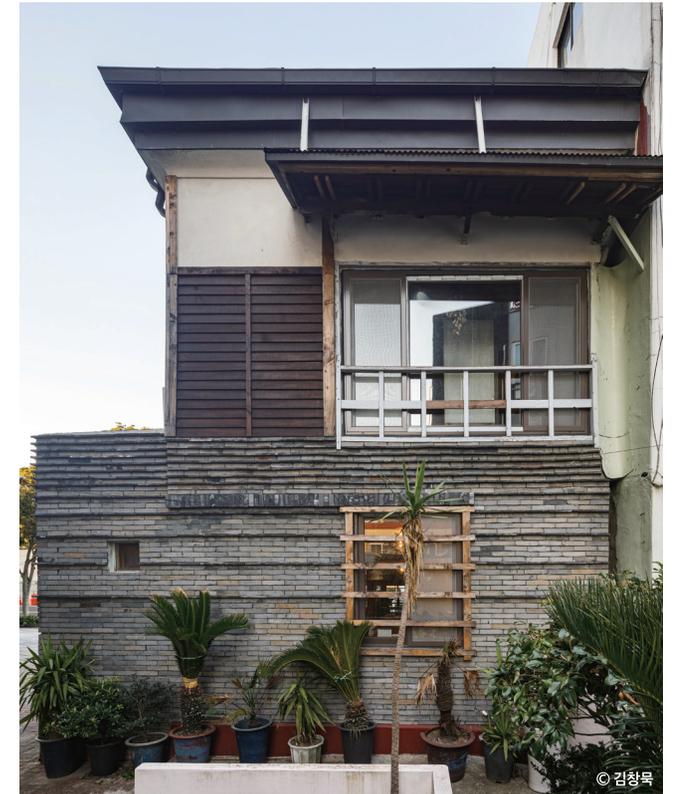
© 권정우

03 가족의 역사를 담다

본격적인 리모델링을 설계하기에 앞서 권정우 소장은 주택 공간에서 보전할 부분, 활용을 위해 변화가 필요한 부분, 건축물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나누었다. 1층 숙림상회 공간과 접방 구석에 있던 노부부의 생활공간은 카페로 활용하기 위해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2층은 과거 주거공간의 모습 그대로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일식 목조주택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건축물 외관의 변화를 계획하였다.

건축물 외관의 변화

카페로 리모델링하기 전 숙림상회는 기존 목구조에 모르타르 미장을 덧댄 후 페인트로 여러 겹 칠한 상태로 있었다. 오랜 시간 거주하면서 누수와 외풍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수공사가 여러 차례 진행되어, 외관만 본다면 목구조 건축물임을 알 수 없었다. 권정우 소장은 100년 된 일식 목조주택의 고유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건축물 입면의 변화를 계획하였다. 페인트를 여러 번 덧칠해 고르지 못한 1층 외벽을 시멘트로 메우고, 고벽돌 타일을 이어 붙였다. 2층 하단부는 내부 목부재와 색이 비슷한 적삼목 패넬로 마감하였고, 상단부는 회반죽으로 마감하였다.



순아커피 외관의 변화
(上: 측면, 下: 배면)

숙림상회 지붕은 처마가 옆 건물에 바짝 붙어있는 외지붕^{반지붕} 형태였다.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지붕 윗면과 건축물 우측면의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는 건 한계가 있었다. 크레인 장비가 공사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처음으로 지붕의 윗면을 살펴볼 수 있었다. 천장의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샌드위치 패널을 덧댄 것을 파악하였다. 권정우 소장은 지붕의 형태를 건축물의 원형과 가깝게 만들기 위해 제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건축물인 보물 제322호 관덕정 주변의 제주 원도심 사진을 수집하여 숙림상회의 옛 모습을 되찾고자 힘썼다. 숙림상회의 옛 모습이 담긴 사진을 찾기는 어려웠지만, 당시 관덕정 주변에는 양지붕 형태의 일식 목구조 건축물이 많아, 이 주택의 원형 또한 양지붕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지붕의 모양을 변경하였다.



지붕공사 모습



내부공간의 변화

1층에서는 건축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가벽을 철거했고, 점방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진열해 둔 선반들을 모두 철거하였다.

내부공간의 가장 큰 문제는 구조보강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목조 기둥 하부가 부식되어 2층 바닥이 상당히 기울어진 상태였다. 바닥의 수평을 바로 잡기 위해 기둥의 썩은 밑동을 잘라내고 다시 목재로 덧대어 보강한 후 바닥 전체를 아래에서부터 조금씩 들어올렸다. 바닥을 원래대로 평평하게 맞추는 작업은 공사 기간 중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내부 목재 계단의 하부는 선반을 설치하기 위해 합판으로 가려져 내부 모습을 유추할 수 없었다. 합판을 철거하고 보니 작은 창고 공간이 있었다. 그러나 얇은 벽지로 여러 겹 쌓여 있어 창고 출입문을 찾기가 어려웠다. 현재 이 공간은 1층 카페의 선반 장식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리모델링 이전 내부 목재 계단 하부 공간 모습



리모델링 후 내부 목재 계단 하부 공간 모습



리모델링 이전 1층 내부공간 모습



리모델링 후 1층 내부공간 모습



© 김창묵



© 김창묵

기존 구조체가 보전되어 있는 카페 홀 모습

도시에는 오래된 건축물과 새로 지은 건축물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야
좋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
순아커피 설계자 권정우 소장



집의 역사를 보여준다

순아커피 2층은 도코노마와 장식용 선반, 다다미 등 기존 주택의 원형을 최대한 보전하고자 하였다. 이때 원형이란 순아할망과 숙림할망이 거주한 당시가 아니라, 일식 목조주택이 지어진 최초의 원형을 의미한다. 여러 겹의 벽지와 합판으로 막혀 있던 도코노마를 드러내어 숙림할망과 할아버지의 살림살이를 전시하고, 바닥에는 다다미를 깔아놓아 좌식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이 옛 주택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미닫이문으로 분리된 다다미방 바로 옆 공간은 태풍 피해로 인해 벽체와 도코노마가 상당 부분 훼손되어 입식 공간으로 조성하고 바닥을 목재로 마감하여 원형을 보전한 공간과는 차별을 두었다.



2층 도코노마와 장식용 선반에 전시된 집주인의 살림살이

순아커피 2층에는 관덕정이 바라다보이는 유리창이 있다는 사실 또한 매력적이다. 태풍 피해로 벽체가 무너진 위치에 유리창을 설치하여 카페 손님들이 관덕정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태풍피해 당시 빗물로 흠박이 쓸려 내려가 대나무와 진흙으로 엮인 벽체 구조가 노출된 북측 벽면은 회벽이나 다른 재료로 마감하지 않고 유리로 마감하여 마치 미술관에서 작품을 전시하듯 구조를 드러내어 집의 역사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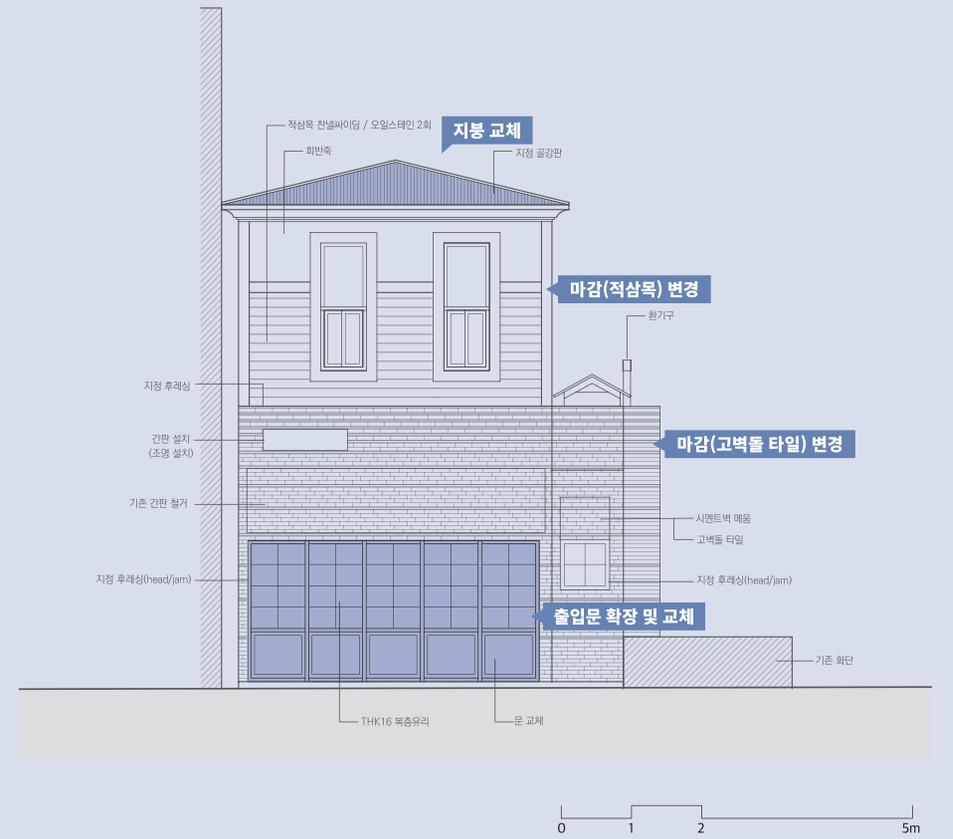


관덕정을 내려다볼 수 있도록 유리창이 설치된 모습

마지막으로 2층에는 좁은 복도를 따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창문들이 줄지어 있었다.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해야 하는 규제가 도입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이라 창을 열면 우측 건축물의 외벽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권정우 소장은 맞닿은 건축물의 외벽을 이용하여 집 주인 할아버지가 수집한 LP 레코드와 사진을 걸어 두는 전시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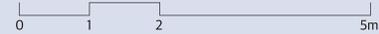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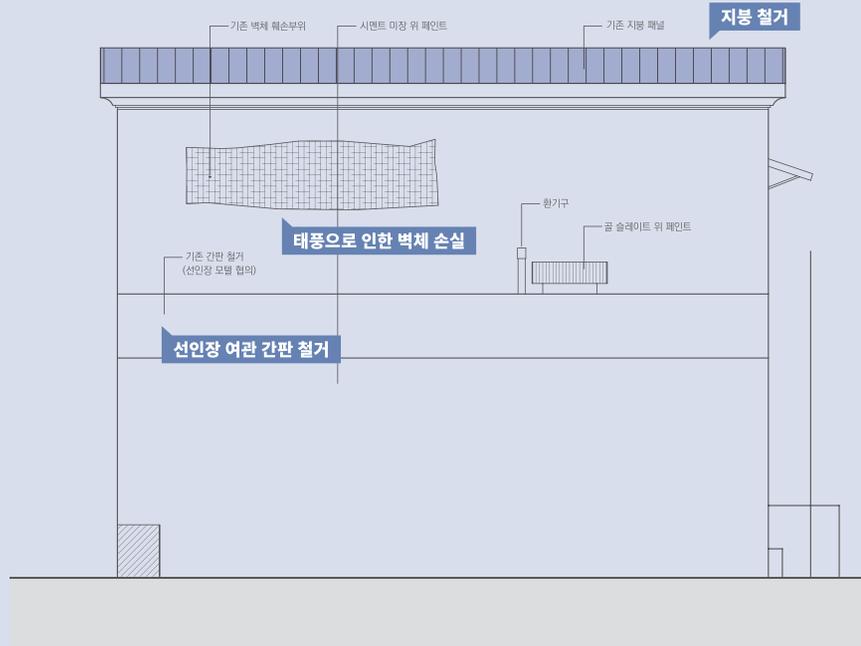
맞닿아 있는 건축물 외벽을 전시벽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



리모델링 전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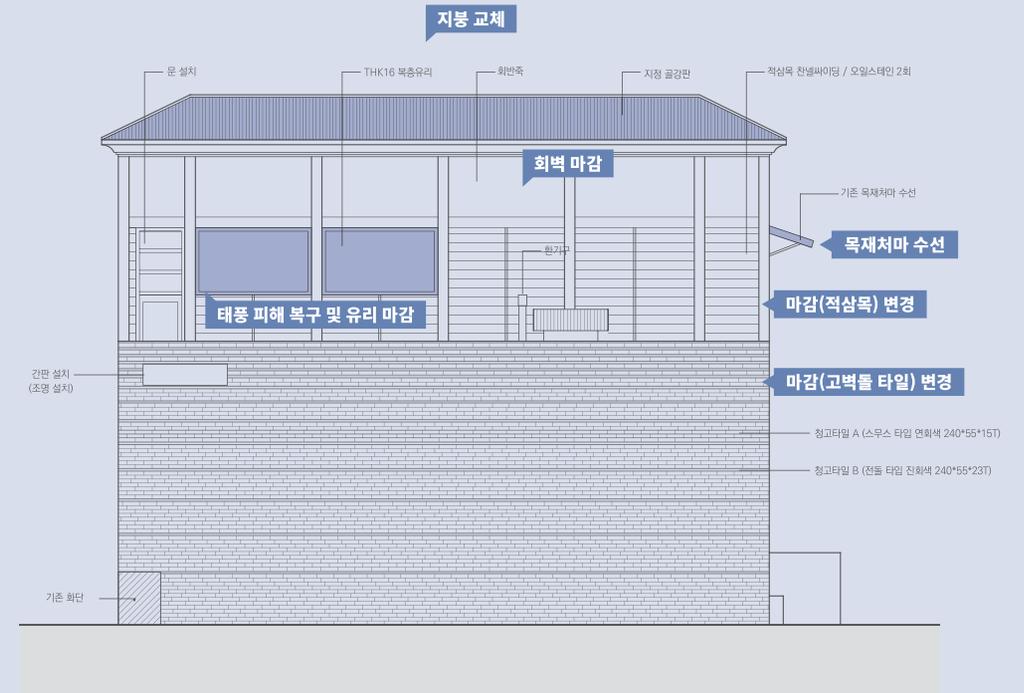
과거 숙림상회 측면 현황



리모델링 후
우측면도



현재 순아커피 측면 현황



리모델링 전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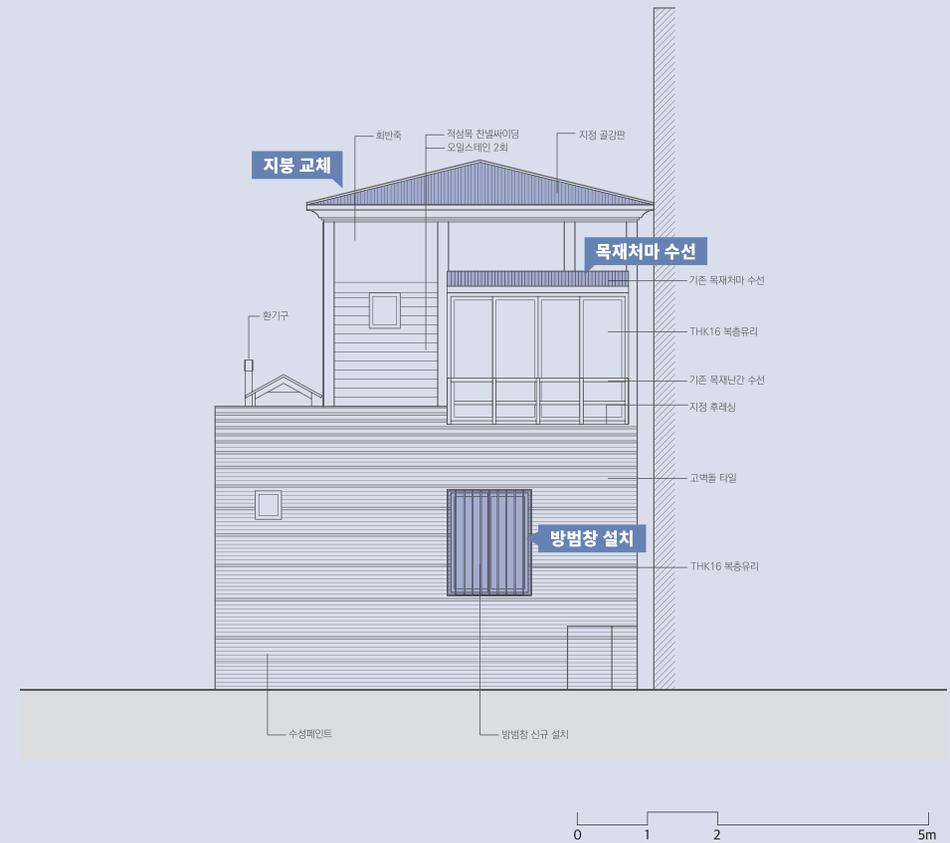
과거 숙박상회 배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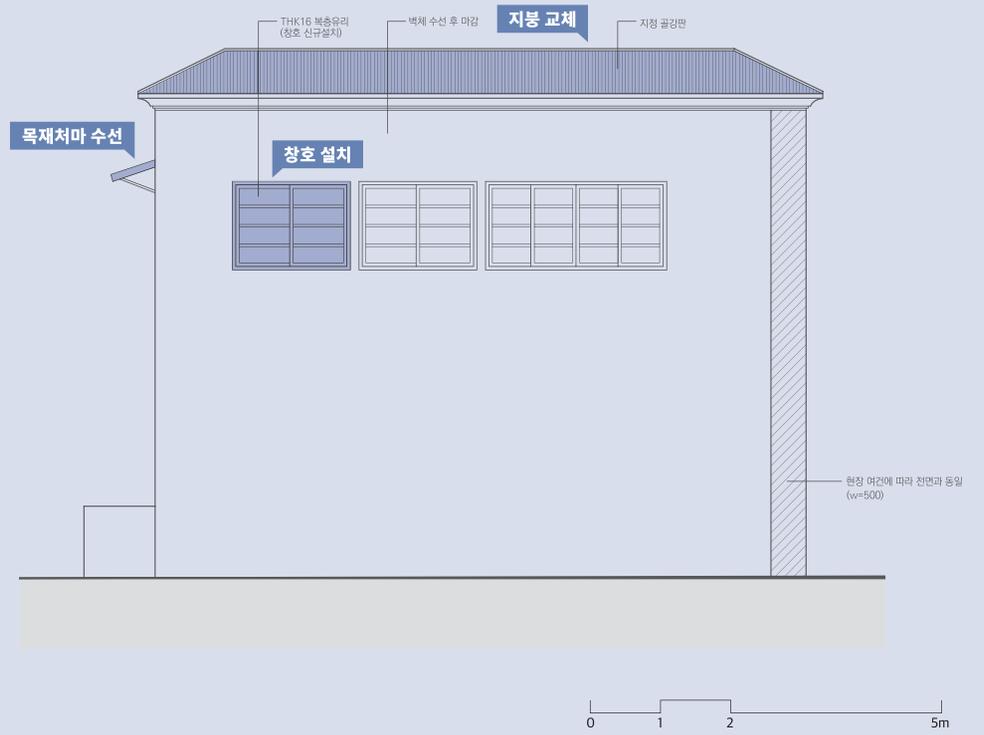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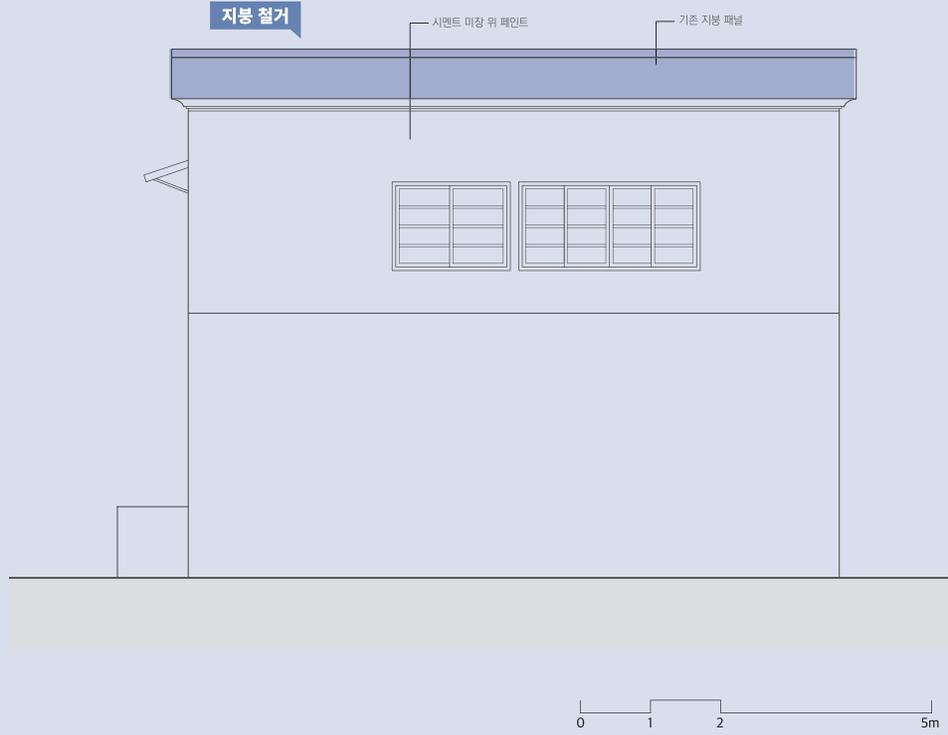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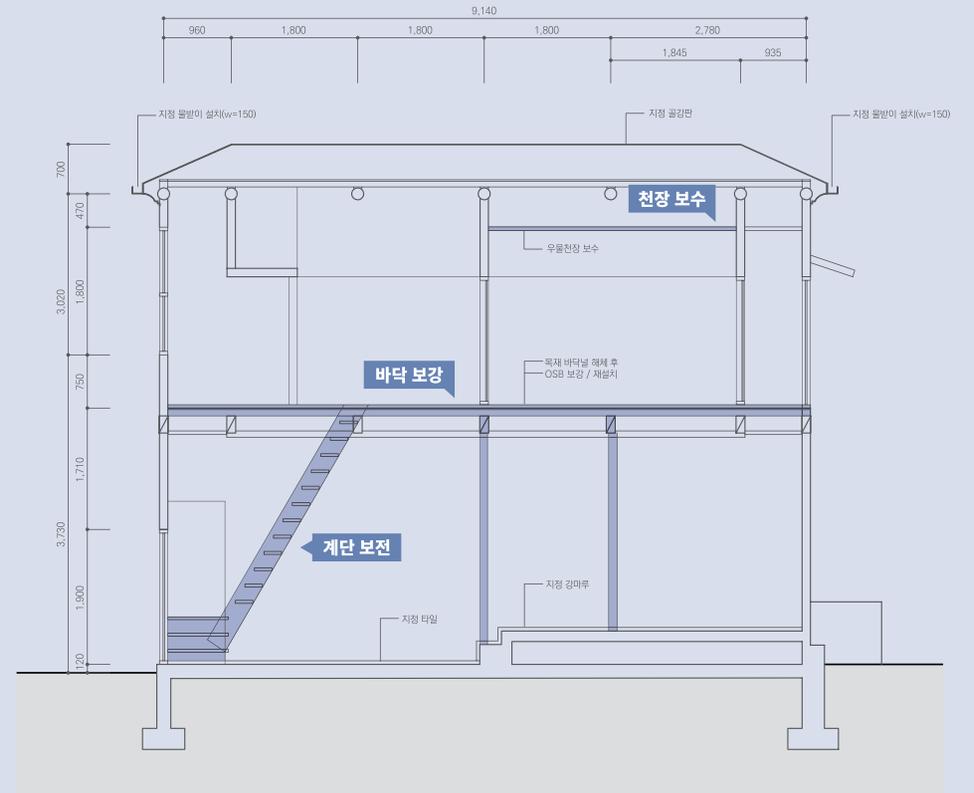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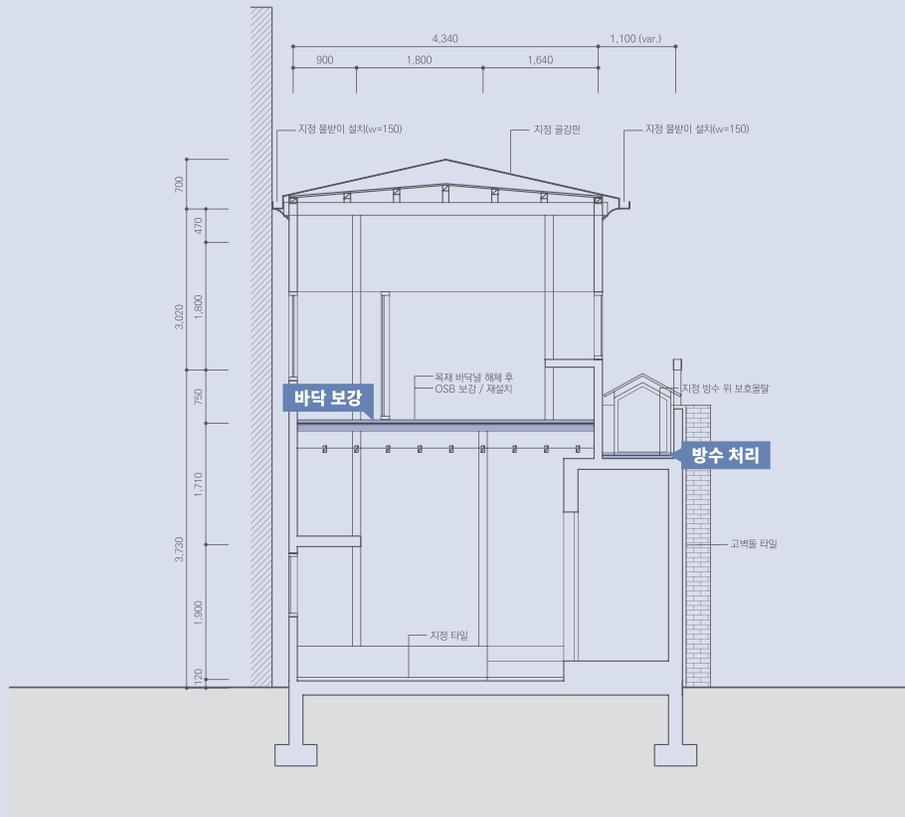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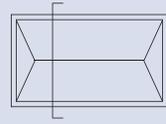
리모델링 후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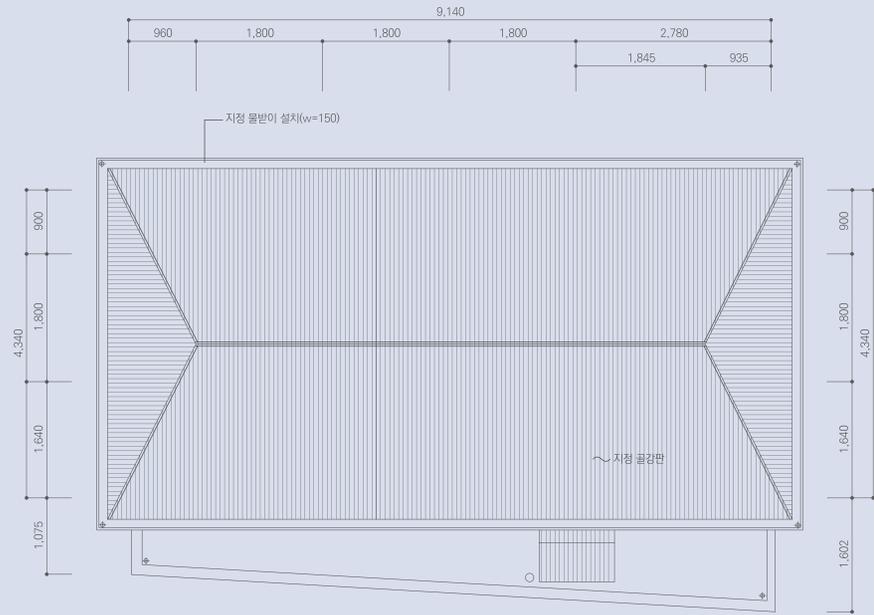
현재 순아커피 배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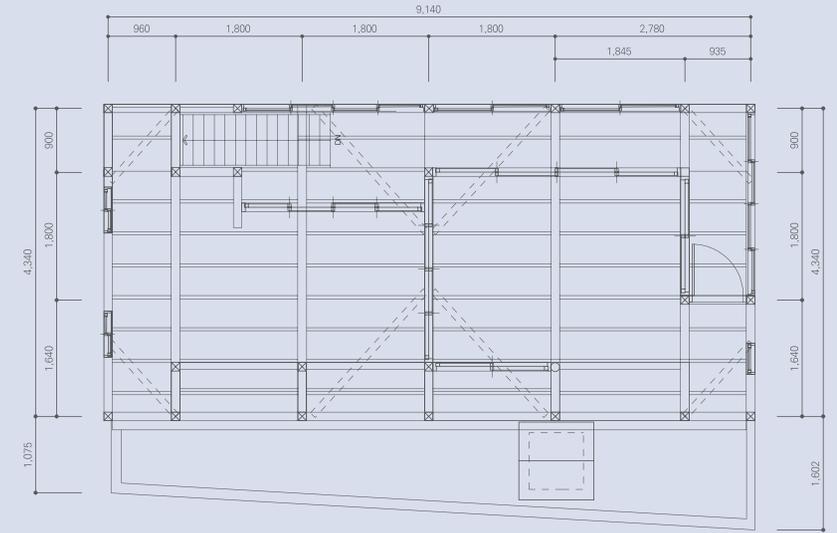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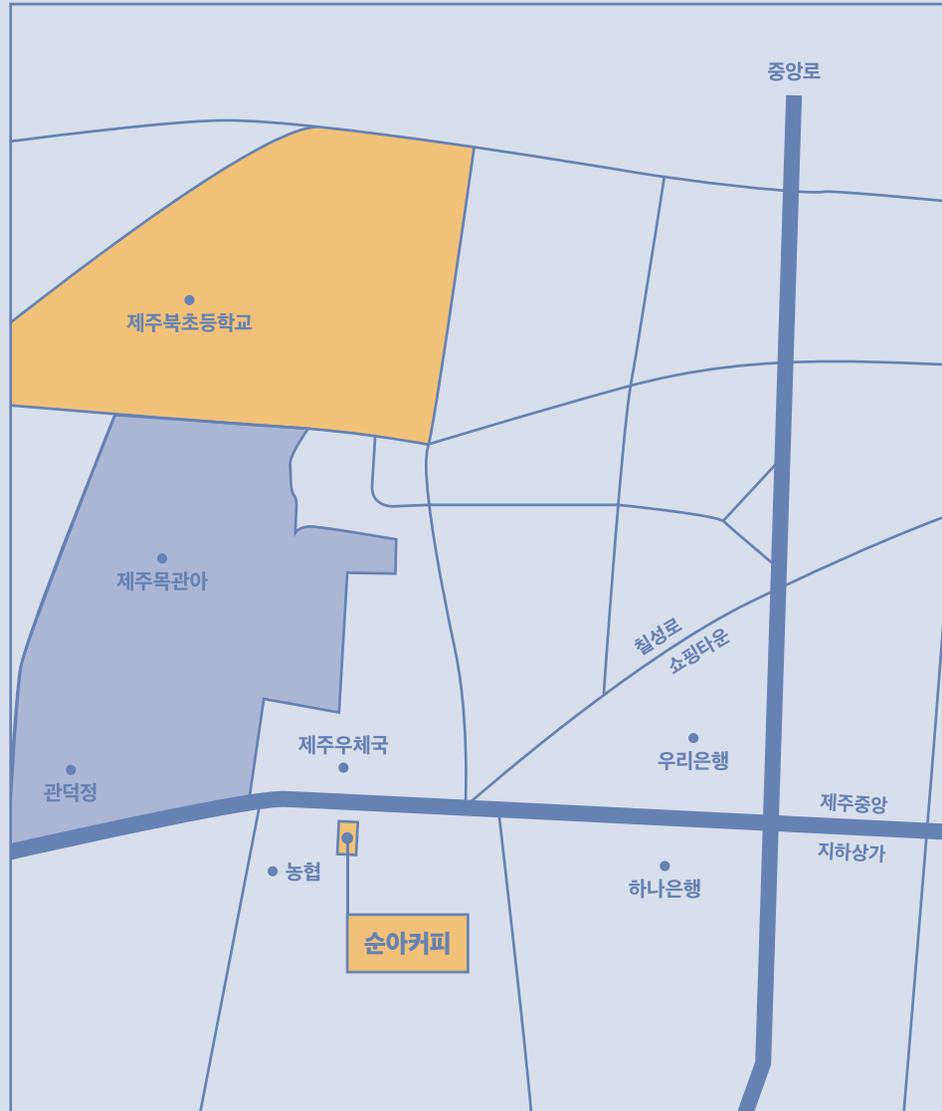


리모델링 후
지붕 평면도



리모델링 후
지붕 가구도





04 공간에 담긴 이야기를 이어가다

순아커피는 숙림할망의 첫째아들과 그의 아내, 처제 세 사람이 2017년부터 운영해오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새 운영자를 찾아야 했다. 새 운영자 선정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순아커피 건축물에 담긴 순아할망과 숙림할망의 이야기, 주택의 역사와 제주의 이야기 등을 손님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였다. 이에 기존 운영자는 카페의 수익성보다 가족의 역사와 건축물의 가치를 보전하고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운영자로 선정하고자 꽤 오랜 시간 고민하였다. 2019년 10월부터 순아커피를 운영해오고 있는 정양선 대표는 기존 운영자인 숙림할망의 첫째아들과 동네 소꿉친구로 어릴 적부터 서로의 집을 자주 오가던 사이였다. 제주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정양선 대표는 주택 공간의 변화는 물론이고 순아할망과 숙림할망의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카페 운영의 책임자였다. 순아할망이 고생 끝에 마련한 집을 가족들에게 선물한 것처럼, 현재 정양선 대표는 이 집에 담긴 가족들과 제주의 원도심 이야기를 카페에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선물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가치를 잇는 건축자산 활용

02 주택

발행일	2020년 12월 31일
발행처	건축공간연구원
펴낸이	박소현
엮은이	건축문화자산센터
지은이	이민경, 권영란, 김민지
출판등록	제569-3850000251002008000005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홈페이지	www.auri.re.kr
설계도면	서울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주)건축사사무소원원아키텍츠 서울 구의살롱: stpmj 건축사사무소 제주 순아커피: 탐라지에 건축사사무소
실속도면	광주 예술공간잡: 조찬영·이동환(한국전통문화대학교)
디자인·제작	(주)크리에이티브 다다(02-518-1571) www.credada.com

ISBN

979-11-5659-310-2

비매품

© 2020, 건축공간연구원 건축문화자산센터

* 이 책에 수록된 모든 사진과 도면은 저작권자와의 사전 협의를 거쳤습니다.

* 이 책의 저작권은 건축공간연구원에 있습니다. 허락 없이는 어떠한 형태로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책은 건축공간연구원 홈페이지 www.auri.re.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비매품



93540



9 791156 593102

ISBN 979-11-5659-310-2